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5권 제1호 / 2020. 03

연구논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

김 현 숙 / 정 희 영

기독교교육을 위한 성서 스토리텔링 공간 기획 연구 - 미국 켄터키의 '아크 인카운터' 사례를 중심으로 -

김 태 룡

예술과 복음: 반 고흐의 풍경화에 대한 연구

라 영 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 탐색

김 종 훈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에 대한 연구

이 상 민

'잉여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 -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

전 성 호 / 이 현 심 / 이 창 돈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생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

오 의 석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5권 제1호 (통권 82호) / 2020. 3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1호 (통권 82호), 2020년 3월호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9층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 | 김현숙 / 정희영
Analysis on Homeschooling Research Trends in Korea | Hyun-Suk Kim / Hee-Young Jeoung
- 037 기독교교육을 위한 성서 스토리텔링 공간 기획 연구
- 미국 켄터키의 '아크 인카운터' 사례를 중심으로 - | 김태룡
A Bible Storytelling Spatial Planning Study for Christian Education
- Focused on 'Ark Encounter' Case in US Kentucky - | Tae-Ryong Kim
- 061 예술과 복음: 반 고흐의 풍경화에 대한 연구 | 라영환
Art and the Gospel: A study on Vincent van Gogh's Landscape Paintings | Young Hwan Ra
- 079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 탐색 | 김종훈
Exploring the Meaning of School Community Recognized b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 Jonghun Kim
- 105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에 대한 연구 | 이상민
A Study on the Alternative Life of Christians in the Consumption Society | Sang-Min Lee
- 141 '잉여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
-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 | 전성호 / 이현심 / 이창돈
Psychoanalytic Exploration of Surplus Desire and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 Focusing on the movie "Parasites" - | SungHo Jeon / HyunSim Lee / ChangDon Lee
- 163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생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 | 오의석
A Study on the Sense of Reality and Formative Embodiment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Focusing on 'Ecology and Environment' | Eui Seok Oh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

Analysis on Homeschooling Research Trends in Korea

김 현 숙 (Hyun-Suk Kim)**

정 희 영 (Hee-Young Jeoung)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domestic homeschooling research in total of 82 theses published from 1999 to August 2019 on the timing, publishing organizations, religions, subjects, methods, and topics of domestic homeschooling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has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since 2005, and has been increasing again since 2015. Religion-related research consisted of only 23 Christian homeschooling researches(28%), and no other religion-related research. The university with the most research was Chongshin University, and among academic societies, KCES. Human subjects were much researched, and among them, parents were the most researched. As for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search was the most frequently done. For research topics, the most researched topics were foundation and operation, among which, laws and institutions were the most researched.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domestic homeschooling should be re-established the relationship as a process of coexistence, supplement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defining the rang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forms of educ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the environmental elements about domestic homeschooling should be established by researching the optimal environments that will be able to enhance the educational qualities of domestic homeschooling. Third, it is needed to continue researching different kinds of methods of the studying about domestic homeschooling. Fourth, it will be expanded the study of domestic homeschooling curriculum and be developed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homeschooling, education, research trends.

* 2019년 11월 03일 접수, 2020년 01월 21일 최종수정, 01월 2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9년 5월 11일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기독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psalm7746@naver.com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yjeoung56@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학교 중심 공교육 제도는 ‘만인을 위한 교육’, ‘인권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평등과 국가통합, 산업사회 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주영달, 2017). 그리고 국가관리체제 하에서 교육과정의 표준화, 규격화를 이루며 차등이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왔다(김영화, 2001). 그러나 학교 중심 공교육 제도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학교 제도가 갖는 내적 모순점으로 인해 기존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기존 공교육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로 교육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게 되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제도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었다(주영달, 2017).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 2.5% 감소하였으나 같은 시기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0.1% 증가하였다(교육부, 2018). 이는 학업중단 학생 중 상당수가 실제 학업중단이 아닌 조기유학이나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육권인, 2019). 실제로 2015년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업중단 현황조사결과를 보면 2015년 학업중단 초등학생 2733명 중 1520명이 정규교육 외의 진로선택(대안교육)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학업중단 중학생 3276명 중 1435명이 정규교육 외의 진로선택(대안교육)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다(신은경, 2017). 최근 6년간 초·중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매년 6만명에 이르고, 연간 누적 학생 수도 약 2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김성기, 2017),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한 형태인 홈스쿨링 인구 수도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홈스쿨링은 가정(home)과 학교(school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김현숙, 2017). 홈스쿨링은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의 한계,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방법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 또한 교사 주도의 학습이 아닌 학습자 주도의 개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최정재, 2008). 그리고 동료들의 경쟁 및 압박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무한한 교육자원을 활용하며 교육받는다라는 장점이 있다. 홈스쿨링은 가정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교육의 책임자로서 깊이 관여하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이 강화된다(김안국, 2013).

이러한 장점에서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법』 제 68조 제1항에는 ‘취학의무’ 즉 보호자는 학령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홈스쿨링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홈스쿨러들은 ‘취학의무 위반’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 지속하거나, 초·중등 교육법상의 취학유예제도를 통해 홈스쿨링을 지속하고 있다(신은경, 2017).

1999년 ‘민들레’라는 잡지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홈스쿨링은 1999년 전국 200여 가구로 시작하여(한국일보, 1999. 9. 6) 2016년에는 경기도에만 2350명의 홈스쿨링 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정진, 2017). 아직 국가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홈스쿨러들의 숫자가 더해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홈스쿨링 인구의 증가에 따라 홈스쿨링 관련 연구도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1999년에 홈스쿨링 도입과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김병안, 1999)를 시작으로 2019년 3월 현재까지 40여 편의 학위 논문과 40여 편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었다. 홈스쿨링 제도와 법에 관한 연구는 정일환·이명옥(2006)의 “미국 홈스쿨링 제도화 과정분석과 시사점”, 주영달(2019)의 “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육권인(2019)의 “홈스쿨링 제도화와 관련하여 교육 민영화에 기반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비교연구” 등이 있다. 실제 홈스쿨링에 관한 논문으로는 권근숙(2002)의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현황과 실천사례”와 박은숙(2017)의 “한국 홈스쿨링의 실제와 교육적 의의”가 있으며 홈스쿨러들의 실태 및 인식 조사 논문으로는 김진숙(2004)의 “홈스쿨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홈스쿨링 실태와 인식”, 윤의정(2017)의 “대입전략으로 스스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고교 자퇴생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이 있다.

기독교 홈스쿨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유희진·정희영(2015)의 “기독교 유아 홈스쿨링 교육과정 분석연구”, 김현숙(2017)의 “한국 지역교회의 홈스쿨링 지원방안 연구”, 이민영(2019)의 “초등학생 선교사 자녀를 위한 성경이야기를 통한 홈스쿨링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등 연구가 활발해지고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홈스쿨링과 관련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한 편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는 언제, 어떤 대상과 주제로 연구되었는지, 어떤 종교와 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홈스쿨링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전반적(연구시기 및 발표기관, 종교)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대상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과 그 하위영역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홈스쿨링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199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출간된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이 분석대상이다. 먼저 한국학술정보원(riss4u)에서 ‘홈스쿨링’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일차적으로 160편의 논문을 분류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된 연구내용이 홈스쿨링이 아니거나 관련성이 낮은 논문 그리고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한 학술지 논문 43편, 석·박사 학위논문 39편 등 총 82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연구 도구

(1) 연구의 전반적 동향 분류 기준

홈스쿨링 관련 논문의 연구시기별 동향 분석은 홈스쿨링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9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큰 줄기가 되는 빈도수의 연도별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 연구의 전체 기간에 대해 5년 단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기관별 동향 분석은 학위논문을 발간한 기관과 학술지 논문을 발간한 기관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

종교 관련 홈스쿨링 논문의 동향 분석은 일반적인 논문과 기독교, 기독교 외 종교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기준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 기준은 황정숙(2007)과 우민정(2011)의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인적대상과 물적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중 인적대상은 유아, 초등, 중·고등, 자녀, 부모, 홈스쿨링 관련자로 분류하였으며 유아, 초등, 중·고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아, 초등, 중·고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구분되지 않고 여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자녀로 분류하였으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에 각각 분류

하였다.

물적대상으로 홈스쿨링 관련 기관, 가정환경, 문헌, 매체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Human subjects	Infants
	Elementary Schools
	Middle/High Schools
	Children
	Parents
	People involved
Physical subjects	Organization
	Home environment
	Literature
	Media
Other	Programs, activities, ideas, etc.

(3)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기준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우민정(2010), 정희영·방승미·유희진(2012)의 분류를 기준으로 수정·보완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질적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 참여관찰, 현상학, 내러티브, 사례연구, 심층면접, 기타로 분류하였다. 문헌연구는 문헌고찰 및 조사의 연구유형들이며 기타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이거나 그 외의 연구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Details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correlation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tion & observation, ethnographic research, phenomenology, narrative, case study, in-depth interview
Literature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Other	Mixed research

(4)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 기준

홈스쿨링 동향연구에 관한 선행연구가 한 편도 없으므로 홈스쿨링의 상위개념인 대안교육 관련 연구 주제를 분류한 백종면(2016)의 분류를 수정 및 보완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연구 주제를 Table 3과 같이 교육이념·철학, 교육내용·방법, 교육성과, 설립·운영, 기타 분야 등 다섯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야별 하위영역을 제시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topics

Topics(categories)	Sub-categories
Ideology and philosophy for education	Educational ideology, religious education, concepts and managing principles,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dividual courses programs, curriculum, didactics and learning methods
Results of education	Influences and effects, satisfaction evaluation, current status
Foundation and operation	Faith and experience of homeschoolers and people involved, educational demand, institutions and laws, the nature of operation, suggestions for growth
Other	Individuals, families, organizations, cases overseas, etc.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논문을 연구의 전반적 동향(시기, 종교, 시기, 기관),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주제에 따른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시기별 동향은 1999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논문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여 연구 시기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반적 동향,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논문을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홈스쿨링 연구의 전반적 동향

(1) 홈스쿨링 관련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시기에 따른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Table 4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trends by year

(N=82)

Year Category	1999-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Total(%)
Master	4(4.9)	12(14.6)	9(11)	8(9.8)	33(40.2)
Doctor		3(3.7)	1(1.2)	2(2.4)	6(7.3)
Journal	7(8.5)	21(25.6)	7(8.5)	8(9.8)	43(52.4)
Total	11(13.4)	36(44)	17(20.7)	18(22)	82(100)

1999년에 시작된 홈스쿨링 연구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11편(13.4%)이 연구되었으나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3.3배 증가된 36편(44%)이 연구되어 어느 때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17편(20.7%)으로 급감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8편(22%)이 연구되었다.

석·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 33편(40.2%), 박사학위논문이 6편(7.3%), 학술지 논문이 43편(52.4%)으로 학술지 논문이 전체 연구의 절반이 넘는 52.4% 이루어졌다.

(2)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의 현황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는 현재까지 기독교 외의 타 종교 관련해서는 한 편도 연구되지 않았으며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논문만 총 23편(28%)이 연구되었다.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 현황은 Table 5와 같다.

전반적으로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가 59편(72%)이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23편(28%) 이루어졌으며 타 종교는 한 편도 연구되지 않았다.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 23편(28%)중에 석사학위논문이 14편(17.1%)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술지 논문은 8편(9.8%), 박사학위논문이 1편(1.2%) 이루어졌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술지 논문이 2편(2.4%) 이루어졌다.

석사학위논문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와 일반적인 연구가 각각 14편(17.1%)과 19편(23.2%)으로 일반적인 연구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비해 1.35배 많이 이루어졌으며 박사학위논문은 일반적인 연구가 5편(6.1%), 기독교 관련 연구가 1편(1.2%)으로 일반적인 연구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비해 5배 많이 이루어졌다. 학술지 논문은 일반적인 연구가 35편(42.7%), 기독교 관련연구가 8편(9.8%)으로 일반적인 연구가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비해 4.3배 많이 이루어졌다.

Table 5 Religion-related homeschooling research trend

(N=82)

Category	Year	Christianity	Non-Christian religion	General	Total
Master	1999-2004			4(4.9)	4(4.9)
	2005-2009	6(7.3)		6(7.3)	12(14.6)
	2010-2014	6(7.3)		3(3.7)	9(11)
	2015-2019	2(2.4)		6(7.3)	8(9.8)
	Sub-total	14(17.1)		19(23.2)	33(40.3)
Doctor	1999-2004				
	2005-2009			3(3.7)	3(3.7)
	2010-2014			1(1.2)	1(1.2)
	2015-2019	1(1.2)		1(1.2)	2(2.4)
	Sub-total	1(1.2)		5(6.1)	6(7.3)
Journal	1999-2004	2(2.4)		5(6.1)	7(8.5)
	2005-2009	4(4.9)		17(20.7)	21(25.6)
	2010-2014			7(8.5)	7(8.5)
	2015-2019	2(2.4)		6(7.3)	8(9.8)
	Sub-total	8(9.8)		35(42.7)	43(52.4)
Total		23(28)		59(72)	82(100%)

(3) 홈스쿨링 관련 연구가 게재된 기관 현황

홈스쿨링 관련 학위논문 발간기관의 현황은 Table 6과 같다.

홈스쿨링 관련 학위논문이 발간된 기관은 총 28개 기관이다. 총 28개 기관 중 전남대를 포함한 22개 대학에서는 1편이 발간되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2편씩 발간되었고, 연세대학교, 백석대학교에서 3편씩 발간되었다. 홈스쿨링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발간된 곳은 충신대학교로 총 5편의 홈스쿨링 관련 학위논문이 발간되었다.

Table 6 Homeschooling-related thesis trend

(N=39)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Publishing organizations	
1 published	22 univers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eonan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ya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Daegu Catholic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Seoul Women's University, Gangwon Nationa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estminster Theological University,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Dong-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2 published	3 universit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Inha University.
3 published	2 universities	Yonsei University, Baekseok University.
5 published	1 university	Chongshin University.
Total	39	

홈스쿨링 관련 학술지 논문 발간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Table 7 Homeschooling-related thesis publishing organization trend

(N=43)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Publishing organizations	
1 published	27 academic societies	Gaya University,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Daekyung Education Society,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Seoul Women's University, Cheonan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ety for Curriculum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Chongshin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SA Law Socie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ety of Children, Kosin University Mission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e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urriculum integration, The Anam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The Philophy Of Education Society Of Korea,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Kyungsung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Chosun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 The Association for Korean Cultural Studies
2 published	1 academic society	The Korea Society For Education Law
6 published	1 academic socie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8 published	1 academic society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Total	43	

홈스쿨링 관련 학술지 논문이 발간된 기관은 총 27개 학회이다. 총 31개 학회 중 한국평생교육학회를 포함한 27개 학회에서 1편씩 게재되었으며 대한교육법학회에서 2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에서 6편이 게재되었다. 홈스쿨링 관련 학술지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곳은 한국비교교육학회로 총 8편의 학술지 논문이 게재되었다.

Table 8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subject trends

(N=100)

Category	Subj ect Year	Human subjects						Physical subjects				Other (programs, activities, ideas)	Total
		Infants	Elementary schools	Middle/ high schools	Children	Parents	People involved	Organiz ation	Home environ ment	Literatu re	Media		
Master	1999- 2004		1 (1)		2 (2)	2 (2)				1 (1)			6 (6)
	2005- 2009				4 (4)	6 (6)		2 (2)				4 (4)	16 (16)
	2010- 2014	1 (1)	1 (1)		2 (2)	1 (1)		2 (2)		1 (1)		1 (1)	9 (9)
	2015- 2019		1 (1)	2 (2)	1 (1)	4 (4)	1 (1)			(1)		1 (1)	11 (11)
	Sub- total	1 (1)	3 (3)	2 (2)	9 (9)	13 (13)	1 (1)	4 (4)		3 (3)		6 (6)	42 (42)
Doctor	1999- 2004												
	2005- 2009				1 (1)	1 (1)				1 (1)	1 (1)		4 (4)
	2010- 2014									1 (1)			1 (1)
	2015- 2019					1 (1)				1 (1)			2 (2)
	Sub- total				1 (1)	2 (2)				3 (3)	1 (1)		7 (7)
Journal	1999- 2004				1 (1)	1 (1)				1 (1)		5 (5)	8 (8)
	2005- 2009			1 (1)	3 (3)	3 (3)		1 (1)		9 (9)	1 (1)	5 (5)	23 (23)
	2010- 2014			2 (2)	2 (2)	5 (5)	1 (1)					1 (1)	11 (11)
	2015- 2019	1 (1)				1 (1)				6 (6)		1 (1)	9 (9)
	Sub- total	1 (1)		3 (3)	6 (6)	10 (10)	1 (1)	1 (1)		16 (16)	1 (1)	12 (12)	51 (51)
Total		2 (2)	3 (3)	5 (5)	16 (16)	25 (25)	2 (2)	5 (5)		22 (22)	2 (2)	18 (18)	100 (100)
		53 (53%)						29 (29%)				18 (18%)	100 (100%)

2. 홈스쿨링 관련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

홈스쿨링 관련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현황은 Table 8과 같다.

각 논문의 연구대상 총 분석 논문은 82편이었으나 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대상이 중복된 경우를 포함하여 총 연구대상은 100건이었다. 이중 인적대상에 관한 연구가 53건(53%) 연구되었고, 물적대상에 관한 연구가 29건(29%), 기타 연구가 18건(18%) 순으로 연구되었다.

인적대상에 관한 연구는 부모에 관한 연구가 25건(25%), 자녀에 관한 연구가 16건(16%), 중·고등학생에 관한 연구가 5건(5%), 초등학생에 관한 연구가 3건(3%), 유아에 관한 연구가 2건(2%), 관련자에 관한 연구가 2건(2%) 순으로 연구되었다.

물적대상에 관한 연구는 문헌에 관한 연구가 22건(22%), 기관에 관한 연구가 5건(5%), 매체에 관한 연구가 2건(2%) 연구되었고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타 연구로 18건(18%)이 연구되었다.

3. 홈스쿨링 관련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홈스쿨링 관련 연구 방법별 연구현황은 Table 9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방법에서 문헌연구는 총 50편으로 60.98%를 차지하였으며 질적연구는 17편으로 20.73%를 차지하였다. 양적· 질적 혼합연구는 11편으로 13.4%가 이루어졌지만 양적연구는 4편으로 4.88%에 그쳤다.

둘째, 질적연구는 심층면접 7편(8.54%), 사례 4편(4.88%), 현상학 3편(3.66%), 참여관찰 2편(2.44%) 순으로 연구되었으며 문화기술적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양적연구는 조사연구가 3편(3.66%), 실험연구가 1편(1.22%) 이루어졌으며 상관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Table 9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method trend

(N=82)

Category	Method Year	Quantitative			Qualitative						Literature	Other	Total
		Experiment	Survey	Correlation	Ethnographic	Participation & Observation	Phenomenology	Narrative	Case	In-depth interview	Literature review	Mixed	
Master	1999-2004	1 (1.22)							1 (1.22)	1 (1.22)	1 (1.22)		4 (4.88)
	2005-2009		1 (1.22)						1 (1.22)		6 (7.32)	4 (4.88)	12 (14.63)
	2010-2014						1 (1.22)		1 (1.22)		6 (7.32)	1 (1.22)	9 (10.98)
	2015-2019		1 (1.22)							2 (2.44)	3 (3.66)	2 (2.44)	8 (9.76)
	Sub-total	1 (1.22)	2 (2.44)				1 (1.22)		3 (3.66)	3 (3.66)	16 (19.51)	7 (8.54)	33 (40.24)
Doctor	1999-2004												
	2005-2009					1 (1.22)					1 (1.22)	1 (1.22)	3 (3.66)
	2010-2014							1 (1.22)					1 (1.22)
	2015-2019										1 (1.22)	1 (1.22)	2 (2.44)
	Sub-total					1 (1.22)		1 (1.22)			2 (2.44)	2 (2.44)	6 (7.32)
Journal	1999-2004									1 (1.22)	6 (7.32)		7 (8.54)
	2005-2009		1 (1.22)			1 (1.22)				1 (1.22)	18 (21.95)		21 (25.61)
	2010-2014						2 (2.44)		1 (1.22)	1 (1.22)	1 (1.22)	2 (2.44)	7 (8.54)
	2015-2019									1 (1.22)	7 (8.54)		8 (9.76)
	Sub-total		1 (1.22)			1 (1.22)	2 (2.44)		1 (1.22)	4 (4.88)	32 (39.02)	2 (2.44)	43 (52.44)
Total		1 (1.22)	3 (3.66)			2 (2.44)	3 (3.66)	1 (1.22)	4 (4.88)	7 (8.54)	50 (60.98%)	11 (13.4%)	82 (100%)
		4 (4.88%)		17 (20.73%)									

4. 홈스쿨링 관련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홈스쿨링 관련 총 82편의 논문에서 주제를 모두 분류한 결과 142건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연구 주제를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분류한 표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topic trend by thesis

(N=142)

Research topic	Ideology and philosophy for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Results of education			Foundation and operation					Other		Total
	Educational ideology	Religious education	Concepts and managing principles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Individual courses	Programs	Curriculum	Didactics and learning methods	Influences and effects	Satisfaction evaluation	Current status	Faith and experience of homeschoolers and people involved	Educational demand	Institutions and laws	The nature of operation	Suggestions for growth	Individuals, families, organizations	Cases overseas	
Master	1 (0.7)	14 (9.9)			2 (1.4)	3 (2.1) (국어 예술 발레)	2 (1.4)	4 (2.8)	1 (0.7)	6 (4.2)		5 (3.5)	4 (2.8)		3 (2.1)	4 (2.8)	6 (4.2)	3 (2.1)	1 (0.7)	59 (41.6)
Doctor		1 (0.7)				1 (0.7) 영어		2 (1.4)		1 (0.7)				1 (0.7)	2 (1.4)				2 (1.4)	10 (7)
Journal	4 (2.8)	7 (4.9)			7 (4.9)	2 (1.4) (영어, 컴퓨터)		6 (4.2)	3 (2.1)	3 (2.1)	1 (0.7)	7 (4.9)	2 (1.4)		10 (7)	2 (1.4)	6 (4.2)	3 (2.1)	10 (7)	73 (51.4)
Total	5 (3.5)	22 (15.5)			9 (6.3)	6 (4.2)	2 (1.4)	12 (8.5)	4 (2.8)	10 (7)	1 (0.7)	12 (8.5)	6 (4.2)	1 (0.7)	15 (10.6)	6 (4.2)	12 (8.5)	6 (4.2)	13 (9.2)	142 (100)
	36 (25.3%)					24 (16.9%)				23 (16.2%)			40 (28.2%)					19 (13.4%)		142 (100%)

홈스쿨링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연도별 연구 동향은 Table 11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관련 연구 주제 총 142건 중 설립운영이 40건(28.2%), 교육이념·철학이 36건(25.4%), 교육내용·방법이 24건(16.9%), 교육성고가 23건(16.2%), 기타가 19건(13.4%) 순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홈스쿨링 관련 연구 주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종교교육이 22건(15.5%)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모두 기독교 관련 종교교육이었다. 또한 제도와 법이 15건(10.6%) 연구되었으며 외국사례가 13건(9.2%) 연구되었고,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각각 12건(8.5%) 연구되었다. 그 외에 개념·운영원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학위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석사학위에서는 종교(기독교)교육이 14건(9.9%), 영향 및 효과 6건(4.2%), 발전방안 6건(4.2%), 현황 5건(3.5%) 순으로 연구되었다. 박사학위에서는 외국사례, 제

도·법,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각각 2건(1.4%)씩 연구되었으며 종교(기독교)교육이나 영향 및 효과, 교육수요도 1건(0.7%)씩 이루어졌다. 학술지 논문에서는 제도·법제가 10건(7%), 외국사례(미국) 10건(7%), 종교(기독교)교육, 현황, 전개과정이 각각 7건(4.9%)씩 연구되었으며 교육과정과 발전방안도 각각 6건(4.2%)씩 연구되었다.

Table 11 Homeschooling-related research topic trend by year (N=142)

Topic		Year	1999-2004	2005-2009	2010-2014	2015-2019	Total
Ideology and philosophy for education	Educational ideology, religious education, concepts and managing principles, identity, development process		3 (2.1)	20 (14.1)	8 (5.6)	5 (3.5)	36 (25.4)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dividual courses programs, curriculum, didactics and learning methods		2 (1.4)	8 (5.6)	7 (4.9)	7 (4.9)	24 (16.9)
Results of education	Influences and effects, satisfaction evaluation, current status		7 (4.9)	8 (5.6)	4 (2.8)	4 (2.8)	23 (16.2)
Foundation and operation	Faith and experience of homeschoolers and people involved, educational demand, institutions and laws, the nature of operation, suggestions for growth		2 (1.4)	18 (12.7)	12 (8.63)	12 (8.63)	40 (28.2)
Other	Individuals, families, organizations, cases overseas, etc.		3 (2.1)	7 (4.9)	5 (3.5)	4 (2.8)	19 (13.4)
Total			17 (12%)	61 (43%)	32 (22.5%)	32 (22.5%)	142 (100%)

IV. 분석 결과

1.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시기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1999년에 시작된 홈스쿨링 연구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11편(13.4%)이 연구되었으나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3.3배 증가된 36편(44%)이 연구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학교 중심 공교육 제도가 갖는 획일성과 순응성, 몰개성성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지나친 경쟁과 성적추구, 집단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 폭력,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문제, 현대사회의 특징인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빠른 변화, 한국 가정의 자녀수 감소나 학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의 상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주영달, 2017; 김정진, 2017).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다른 원인은 인터넷의 보급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된 이후 2002년에는 각 가정에 2300만 여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었다. 또한 1997년에 163만명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4년 6월 300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2006년 이후 인터넷 보급률은 78.4%에서 증가폭이 1% 내외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교육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수업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던 학습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교육 대책이 실행되었는데, 2000년 개국한 EBS 인터넷 교육방송에 사교육비 억제액 1조 3천 941억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질 높은 이러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안선희, 2010),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홈스쿨링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은 홈스쿨러들이 흔히 겪는 단절과 고립이라는 부정적 요인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는데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유비쿼터스 환경은 지역적·문화적·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홈스쿨러들 간에 가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최정재, 2009). 그 동안 학교 밖에서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경험해야 했던 홈스쿨러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통한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인 공동체로 확장되면서 홈스쿨링을 위한 지원·협력 모임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김현숙, 2017).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은 홈스쿨러로서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 정보의 교류를 갖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지 않고 도리어 감소되었는데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36편(44%)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연구는 52.9% 감소된 17편(20.7%) 이루어졌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제68조 제1항에 제시된 ‘취학의무’ 법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이 초·중학교에 취학하지 않으면 ‘취학의무 위반’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취학의무 불이행에서 파생된 아동학대 가정 또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3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발견으로 아동학대 증가율이 급증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연합뉴스, 2019. 5. 4).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70%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아동의 체계적 관리를 피해가는 방편으로 홈스쿨링을 악용하는 사례가 방종되면서 홈스쿨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일요신문, 2015. 12. 21). 홈스쿨링 연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들 수 있다. 2007년 10개 시범대학

으로 출발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2010년도에 11%, 2014년에 13%로 확대되었으며 서울교대, 카이스트, 포스텍,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거의 100%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대학의 주요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한수경, 2017).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홈스쿨러들은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는 총 82편의 연구 중 23편(28%)이었으며 23편 모두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였으며 불교·천주교·기타 종교와 관련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14편(17.1%), 학술지 논문이 8편(9.8%), 박사학위논문이 1편(1.2%)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총 82편의 연구 중 23편(28%)이 기독교 관련 연구였으며 홈스쿨링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다른 종교와 관련된 홈스쿨링 연구가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홈스쿨링의 연구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도권 학교의 동성애, 낙태, 진화론 등의 비성경적 교육을 거부하고 기독교 홈스쿨링을 통해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숙, 2017). 종교 관련 연구 중 기독교 홈스쿨링 연구가 많은 다른 요인으로서는 미국의 홈스쿨 선교사 브래들리 볼러(Bradley Voeller) 가정의 한국 홈스쿨링 사역과 2002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홈스쿨링 세미나와 포럼 등이 기독교 홈스쿨 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홈스쿨 전문 출판사이자 서점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DCTY)’이 2006년 권성운 대표에 의해 설립되면서 다양한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서적이 출간된 것이(크리스천투데이, 2007. 9. 19)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홈스쿨링 관련 연구가 게재된 학위논문 발간 기관 중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게재한 학교는 충신대(5편)과 백석대(3편), 연세대(3편)이며, 가장 많은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학회는 한국비교교육학회(8편)와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6편)이다. 5편의 학위논문 연구가 이루어진 충신대학교와 3편씩 연구가 이루어진 백석대와 연세대는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또한 6편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는 기독교교육 전문학회로 국내의 홈스쿨링에 기독교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8편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한 한국비교교육학회는 세계 각 국가와 민족,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교육사상을 비교 연구법을 통해 연구하는 학회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비교 연구”(육권인·백일우, 2017), “미국 홈스쿨링 제도와 과정분석과 시사점”(정일환·이명옥, 2006) 등 주로 세계 처음으로 홈스쿨링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홈스쿨링과 한국의 홈스쿨링을 비교한 연구들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법제화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 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 홈스쿨링 법제화를 이룬 다른 나라들에 대해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대상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별 분포를 보면 인적대상에 관한 연구는 53건(53%), 물적대상이 29건(29%) 연구되어 인적대상에 대한 연구가 1.82배 더 많이 연구되어졌다. 이는 홈스쿨링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인 부모, 자녀 등 인적대상에 관한 연구가 다수 연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모에 대한 연구가 25건(25%)이나 이루어진 것은 부모가 홈스쿨링에 있어서 교사, 상담가, 친구, 안내자 등의 역할을 하며 홈스쿨러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현숙, 2017). 그러나 홈스쿨러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홈스쿨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1건(0.7%)으로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홈스쿨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한다.

물적대상 중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홈스쿨링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적환경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물적대상 중 관련 기관에 관한 연구가 5건(5%)으로 미비하였으나 최근 홈스쿨러들의 증가로 인해 홈스쿨링 지원·학습·협력단체 등이 형성되면서 홈스쿨링 관련 기관들도 증가되고 있으므로 홈스쿨링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김현숙, 2017). 또한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계성을 소유한 존재이므로(송태은, 2019) 홈스쿨러들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시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적대상에 대한 연구 29건(29%) 중 문헌에 관한 연구가 22건(22%)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는 석사, 박사, 학술지 논문 모두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한 1999년도부터 꾸준히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홈스쿨링이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봉착한 홈스쿨링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홈스쿨링 관련 법과 제도라는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달리(이민경, 2010) 홈스쿨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초·중등 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취학의무'에 대한 해석이 법률상으로 취학이 인정되는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홈스쿨링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하는 것을 취학의무 불이행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은 적어도 아이들이 일 정기간 동안 노동에서 제외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중시해서 만든 법이다(김춘진, 2012). 현대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한 가정들에게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취학의무 불이행이라

는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공교육 제도의 아이들은 1인당 평균 초등학생 450만원, 중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400만원의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나(김춘진, 2012) 취학의무 불이행이라는 해석은 홈스쿨러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과 보조를 전무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육기회 비용 전부를 홈스쿨러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또한 취학의무 불이행이라는 해석은 부정적인 사회통념을 형성하여 홈스쿨러들에 대해 아동학대 가정이나 무책임한 가정, 학교체제 부적응아라는 오해를 받게 하며(CBS 노컷뉴스 2016. 6. 17), 홈스쿨링으로 학습한 초·중·고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의 부재로 인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으면서, 대학 입시와 진로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김재웅, 2009). 이러한 홈스쿨링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홈스쿨링 관련 단체와 관련자, 법률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여 국회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3.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방법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 중 50편(60.98%)의 연구가 문헌연구로 연구되었으며 질적연구는 17편(20.73%), 양적연구는 4편(4.88%)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적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수량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며 어떤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개개의 현상보다는 일반화된 법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적방법은 법칙 정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채선희, 1996). 그러나 양적방법은 질적연구에 비해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량화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연구대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거 홈스쿨링의 참여인구가 적으며, 전국적으로 거주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별 가정단위로 홈스쿨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적연구에 요구되는 홈스쿨러 표본확보가 어려웠고 그로인해 양적연구가 4편(4.88%) 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홈스쿨링 인구가 증가하였고,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국적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모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어 양적연구 환경이 구축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양적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주제별 분석 결과

홈스쿨링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홈스쿨링 연구 주제에 따른 동향에서 홈스쿨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가 40건으로 가장 많이 연구 되었고, 그 중 홈스쿨링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15건(10.6%)이 연구되어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홈스쿨링 법제화에 관한 연구는 1993년 이후 50개 전 주에서 홈스쿨링의 합법화를 이루어낸 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연구되었다. 미국은 홈스쿨링 합법화를 통해 전국 단위의 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하였고(15개 주), 필수 교과목의 의무적 이수(35개 주), 교과과정을 기록·보관(14개 주) 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교재 및 교육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육권인·백일우, 2018) 필요에 따라 홈스쿨링과 학교교육과의 병행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민간 학원과 지역사회 대학이 홈스쿨링으로는 교육하기 어려운 화학 및 생물학 실험, 스포츠 등의 교과과정을 대행해 주어 홈스쿨링의 질을 높이고 있다(김안국, 2013). 그러나 한국은 홈스쿨링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전무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홈스쿨링 전문교육과정이 극히 드물다(권근숙, 2002; 이민경, 2010; 유희진, 2015). 현재까지 홈스쿨링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12건(8.5%), 국어·예술·발레·영어 등의 개별 교과에 관한 연구 6건(4.2%)이 전부로 전체 연구 142건에 비하면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의 전문적인 홈스쿨링 교육과정을 구입하거나 번역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있지만 이들 외국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은 한국의 문화와 배경 및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유희진, 2015). 그러므로 홈스쿨링 관련 교과, 교재,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홈스쿨링 교육이념·철학에 관한 연구는 총 36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되었는데 교육이념·철학의 하위 영역으로는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가 22건(15.9%)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모두 기독교 교육 관련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현대 사회 공교육 제도가 가진 다양한 모순과 비성경적 교육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기독교 홈스쿨링의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기독교 교육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이 학교 교육 외에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교육 형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의무교육제도에 있어서 홈스쿨링이 ‘취학의무 위반’이 아닌 ‘의무교육의 실현’으로서의 가치가 재해석되어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이 서로 보완·상생·협력하는 관계로 전환, 유기적인 발전을 이루

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요구되며 타종교와 관련된 홈스쿨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의 제도권 학교에서 실시되는 동성애, 낙태, 진화론 등의 비성경적 교육을 거부하고 기독교 교육이념과 철학을 교육에 실현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 홈스쿨링의 기독교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하며, 기독교 홈스쿨링의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세분화 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종교 관련 연구는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만 있으므로 카톨릭이나 불교 등 타종교와 관련된 홈스쿨링 연구도 이루어져 홈스쿨링 연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가정환경에 대한 물적 구성과 그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홈스쿨링 환경구성의 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학교시설과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활용은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홈스쿨링이 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스쿨러들만이 갖는 가정환경의 구성과 배치 및 시설 등에 관한 공통된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가정환경 구성의 실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지난 20년간 홈스쿨링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홈스쿨링 전문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홈스쿨링 관련 기관의 대상, 유형과 특성, 운영방식, 이념과 철학,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홈스쿨링 관련 개념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김민채·김영환, 2017) 그 한계를 파악하여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홈스쿨링 종사하는 관련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홈스쿨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문헌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홈스쿨링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양적 연구 환경이 구축된 만큼 양적연구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홈스쿨링의 일반화된 법칙을 정립할 수 있는 현장중심적인 양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이나 내러티브 연구방법 등을 통해 양적 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홈스쿨링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한다. 국내 홈스쿨링은 그 전문교육과정의 개발이 미비하여 외국의 전문적인 홈스쿨링 교육과정을 구입·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임의로 구성된 전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와 배경,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효과를 검증하여(유희진, 2015) 홈스쿨링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곱째, 홈스쿨링 부모들이 홈스쿨링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홈스쿨링 부모 교육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홈

스쿨링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교육적 영향력을 갖는 일차적 존재이며, 인성교육의 중요한 환경요인이며(최혜영, 2001), 자녀의 문제행동에 가장 밀접한 상호 인과성을 가질 뿐 아니라(이상균·정현주, 2013), 자녀들의 교사이자, 상담가·촉진자·친구가 된다. 홈스쿨링은 부모의 역할과 교육방식, 사회·경제·교육적 배경에 따라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김안국, 2013) 홈스쿨링 부모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홈스쿨링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 법률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홈스쿨링의 법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홈스쿨링이 법제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홈스쿨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료의 부족은 홈스쿨링 연구에 근본적인 제한점이 된다. 2007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공포’가 대안학교 관련 연구의 양적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김민채·김영환, 2017) 홈스쿨링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조사에 의해 홈스쿨링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근숙 (2002).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현황과 실천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Gwon, G. S. (2002). *A Study on Homeschooling Trends and Practice Cases in Korea*. Masters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Korea.]
- 김동국 (2013). **현대 공교육 문제의 대안으로서의 기독교 홈스쿨링 초등교육과정 설계**. 석사 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Kim, D. G. (2013). *Designing Christian Homeschooling Elementary Curriculum as an Alternative to Modern Public Education Issues*.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김민채 외 (2017). 국내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 관련연구 동향분석: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혁신연구**, 27(2), 251-273.
- [Kim, M. C. et al. (2017). Trend Analysis on Alternative Education and Alternative Shool-related Studies in Korea: From 1997 to 2005. *Education Innovation Research*, 27(2), 251-273.]
- 김민환 외 (2000). 미국 홈스쿨링의 성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10(1), 257-280.
- [Kim, M. H. et al. (2000). A Study on the Growth and Characteristics of American Homeschooling.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10(1), 257-280.]
- 김병안 (2000). **홈스쿨링 도입과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Kim, B. A. (2000). *A Study on Introduction of Homeschooling and Internet Usage*.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김성기 (201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대안교육법학회**, 29(3), 1-21.
- [Kim, S. G. (2017). Prevention of Discontinuation of Learning and Measures to Improve Alternative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Alternative Education Law Society*, 29(3), 1-21.]
- 김성희 (2000). 홈스쿨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가야대학교 논문집**, 9, 131-151.
- [Kim, S. H. (2000). A Study on Homeschooling Curriculum. *Gaya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9, 131-151.]
- 김안국 (2013). 미국의 홈스쿨링 현황과 함의. **직업과 인력개발**, 16(4), 196-211.
- [Kim, A. G (2013). Homeschooling Status and Im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b an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16(4), 196-211.]
- 김영화 (2001).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효용성 및 시대적 적합성에 대한 일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1(2), 53-75.
- [Kim, Y. H. (2001). A Study on the Idea of Public Education and the Utility of its Function and its Relevance of the era. *Sociology of Education*, 11(2), 53-75.]
- 김재웅 (2009). 미국 홈스쿨링 운동의 사회적 배경 및 요인. **비교교육연구**, 19(4), 53-75.
- [Kim, J. W. (2009). Social Background and Factors of Homeschooling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19(4), 53-75.]
- 김재웅 (2016). 공교육제도의 목표에 비추어 본 홈스쿨링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평생학습사회**, 12(4), 1-263.
- [Kim, J. W.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Homeschooling in View of the Objectives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Lifelong Learning Society*, 12(4), 1-263.]
- 김정진 (2017). **어머니의 교사역할 불안과 가족응집력의 관계-일반학교와 홈스쿨링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Kim, J. J.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xiety for Teaching Role and Family Bonding-Focusing on Comparison of Regular School and Homeschooling*.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김진숙 (2004). **홈스쿨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홈스쿨링 실태와 인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Kim, J. S. (2004). *Status and Awareness of Parents and Children in Homeschooling Families*.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천기·김양자 (2003). 공교육이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서구교육이론의 한국적 타당성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3(1), 77-107.
- [Kim, C. G and Kim, Y. J. (2003). A Study on Issues of Public Education and Feasibility of Introducing Western Education Theories as Alternatives in Korean Education Environment. *Sociology of Education*, 13(1), 77-107.]
- 김초아 (2017). **발레전공 중·고등 학생들의 홈스쿨링 사례 실제조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Kim, C. A. (2017). *Homeschooling Case Study o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Majoring in Ballet*.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김현숙 (2017). **한국 지역교회의 홈스쿨링 지원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Kim, H. S. (2017). *A Study on Homeschooling Support Plan of Korean Local Churches*.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김희자 (1998). 기독교 학교의 본질과 목적. **기독교교육연구**, 9(1), 7-31.
- [Kim, H. J. (1998). The Nature and Purpose of Christian Schools.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9(1), 7-31.]
- 문지혜 (2008). **홈스쿨링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Moon, J. H. (2008). *Survey of Parent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Homeschooling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yeonggi, Korea.]
- 박은숙 (2017). **한국 홈스쿨링의 실제와 교육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Park, E. S. (2017). *Practical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of Korean Homeschooling*.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박진숙 (2008). 기독교 가정을 위한 홈스쿨링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연구**, 19(1), 174-199.
- [Park, J. S. (2008). A Study on Homeschooling for Christian Families.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19(1), 174-199.]
- 백종면 (2016). 대안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2000-2016).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0(4), 117-140.
- [Baek, J. M. (2016).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Alternative Education(2000-2016).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20(4), 117-140.]
- 서춘래 (2003).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 **교육종합연구**, 1, 47-65.
- [Seo, C. R. (2003). Role of Public Education in Solving Private Education Problems. *Comprehensive Education Research*, 1, 47-65.]
- 송태은 (2019). **생태체계 이론에 근거한 유아 그림책 특징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Song, T. Y. (2019). *The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Picture Book Based on Ecological Theory*.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신은경 (2017). **의무교육제도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홈스쿨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Shin, E. G. (2017). *A Study on Securing Diversity in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 Terms of Constitution-Focusing on Homeschooling*. Master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안선희 (2010).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An, E. H. (2009). *Evaluation Research on the Policy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우민정 (2011). 유아 성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3), 81-97.
- [Woo, M. J. (201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reschooler Sex Education-Focusing on Domestic Thesis. *Preschooler Education Research*, 31(3), 81-97.]
- 유희진 (2015). **한국형 기독교 유아 홈스쿨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Yu, H. J.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Christian Homeschooling Curriculum for Preschoolers*. Docto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유희진·정희영 (2015). 기독교 유아 홈스쿨링 교육과정 분석연구-밥 존스, 알파오메가, 크리스 천리 버티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4, 307-337.
- [Yu, H. J. and Jeong, H. Y. (2015). An Analysis Study on Christian Preschool Homeschooling Curriculum-Focusing on Bob Jones, Alpha Omega, and Christian Liber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4, 307-337.]
- 육권인·백일우 (2017).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7(4), 97-127.
- [Yuk, G. I. and Baek, I. W. (2017). Comparative Study on Homeschooling Legislation in the US and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27(4), 97-127.]
- 육권인·백일우 (2018).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교육과정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8(1), 51-87.
- [Yuk, G. I. and Baek, I. W. (2018). Comparative Study on Homeschooling Curriculum in the US and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28(1), 51-87.]
- 육권인 (2019). **교육민영화에 기반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비교연구: 홈스쿨링 제도화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Yuk, G. I. (2019). *A Comparative Study of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ased on Education Privatization: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meschooling*.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윤의정 (2017). **대입전략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고교 자퇴생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Yoon, E. J. (2017). *Awareness of Learning among High School Dropouts Who Selected Homeschooling for Entering Colleg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민경 (2010). 홈스쿨링 청소년들의 유형과 학습경험 의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6(3), 155-179.
- [Lee, M. G. (2010). *Analysis of the Types of Homeschooling Youths and the Significance of Their Learning Experience*. Korean Education Research, 16(3), 155-179.]
- 이민영 (2019). **초등학생 선교사 자녀를 위한 성경이야기를 통한 홈스쿨링 한국어 교재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대학교.
- [Lee, M. Y. (2019). *Development of Korean Textbook using Bible Stories for Homeschool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the Missionarie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상균·정현주 (2013).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양육 행동간의 종단적 관계 및 잠재유형 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 1-29.
- [Lee, S. G. and Jeong, H. J. (2013).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Violence Experiences and Parenting Behaviors and Analysis of Potential Types: Focusing on the Need for Parent Education Programs. *School Social Welfare*, 24, 1-29.]
- 이혜영 (2000). 한국의 홈스쿨링 운동의 현황과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6(1), 109-134.
- [Lee, H. Y. (2000).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Homeschooling Movement in Korea. *Lifelong Education Research*, 6(1), 109-134.]
- 정일환·이명옥 (2006). 미국 홈스쿨링 제도와 과정분석과 시사점. **한국비교교육학회**, 14(4), 85-112.
- [Jeong I. H. and Lee, M. O. (2006). US Homeschooling System, Process Analysis and Implications. *Korean Society for Comparative Education*, 14(4), 85-112.]
- 정효진 (2015).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Jeong, H. J. (2015). *A Study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정희영 (2010). 우리나라 기독교 생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신앙과 학문**, 15(4), 139-158.
- [Jeong, H. Y. (2010).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Ecology in Korea. *Faith and Learning*, 15(4), 139-158.]
- 정희영 외 (2012). 유아 인성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2(5), 277-296.
- [Jeong, H. Y. et al. (2012).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Preschooler Character Education. *Preschooler Education Research*, 32(5), 277-296.]
- 정희영·정운 (2015). 핵심역량 관련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연구**, 32(3), 357-386.
- [Jeong, H. Y. and Jeong, Y. (2015). Research Trends on Education Related to Core Competency-Focusing on School Education. *Korean Teacher Research*, 32(3), 357-386.]
- 주영달 (2017). 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9(2), 161-187.
- [Ju, Y. D. (2017). Constitutional Issues in Homeschooling.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9(2), 161-187.]
- 주은희·박선희 (2009).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아동학회지**, 30(6), 237-248.
- [Ju, E. H. and Park, S. H. (2009). Alternative Education and Homeschool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6), 237-248.]
- 채선희 (1996).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재정립을 위한 개념적 접근:질적 양적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5), 281-297.
- [Chae, S. H. (1996). A Synthesis of Quali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owards A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Scientific Method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46(5), 281-297.]
- 최정재 (2008).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교육시스템과 홈스쿨링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24(1), 169-185.
- [Choi, J. J.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Education System and Homeschooling in the Ubiquitous Era. *Educational Engineering Research*, 24(1), 169-185.]
- 최정재 (2009). **홈스쿨링 지원을 위한 U-mentoring 교육 시스템 모형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Choi, J. J. (2009). *A Study on U-mentoring Education System Model for Homeschooling*

- Support*.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최혜영 (2001). 학교생활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역할. **윤리연구**, 48, 85-102.
- [Choi, H. Y. (2001).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and the Role of Parents in School Life. *Ethics Research*, 48, 85-102.]
- 한수경 (2017).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일반고 교사들의 대응전략 분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 [Han, S. S. (2017). *study on the general high school teachers' responsive strategies for the admission*.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황정숙 (2007). 유아 창의성 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창의력교육연구**, 7(2), 19-35.
- [Hwang, J. S. (2007).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Preschooler Creativity Education. *Creativity Education Research*, 7(2), 19-35.]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19. 6. 17.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5. (검색일 2019.11.18.)
- [“Internet penetration rate and computer retention rat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6.17).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5(2019.11.18.)]
- 교육부 2018. 8. 29. “2018년 교육기본 통계 결과발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eblog&logNo=221348264831&referrerCode=0&searchKeyword=>. (검색일 2019.4.16.)
- [“Announcement of 2018 Basic Statistics Results fo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8.8.29.). Retrieved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eblog&logNo=221348264831&referrerCode=0&searchKeyword=>(2019.4.16.)]
- 교육인적자원부 2004. 8. 27.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시안)” <http://kedu.re.kr/?act=board.read&code=281010&id=6>. (검색일 2019.11.17.)
- [“Improvement Plan for University Admission System after 2008 for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Cya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4.8.27.). Retrieved from <http://kedu.re.kr/?act=board.read&code=281010&id=6>(2019.11.17.)]
- 국민일보 2014. 12. 12. “성경적 홈스쿨링 대안교육으로 뜬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76899%20&code=23111318&cp=nv>. (검색일 2019.4.11.)

[“Biblical Homeschooling Rises as Alternative Education.”, Kookmin Daily (2014.12.12.).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76899%20&code=23111318&cp=nv>(2019.4.11.)]

국회입법조사처 2016.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의 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57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31233581&code=940202. (검색일 2019.11.18.)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Child Abuse Cases in Korea, Issue No. 57 as an Indicator.”,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2016).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31233581&code=940202(2019.11.18.)]

동아일보 2005. 11. 3. “홈스쿨링도 학력 인정...학교교육에 불만-불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51103/8244004/1>. (검색일 2019.10.3.)

[“Homeschooling Recognized as Educational Background... Discontent-Distrust towards School Education.”, Dong-A Daily (2005. 11. 3.). Retrieved fr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51103/8244004/1>(2019.10.3.)]

CBS 노컷뉴스 2016. 6. 17. “아동학대범 물리는 ‘홈스쿨링’부모들...제도정비 시급.”

<https://www.nocutnews.co.kr/news/4609356>. (검색일 2019.4.26.)

[“Homeschooling’ Parents being Accused of Child Abuse...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Maintenance.”, CBS No Cut News (2016.6.17.). Retrieved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4609356>(2019.4.26.)]

크리스천 투데이 2007. 9. 19. “국내 최초 홈스쿨 전문서점 ‘DCTY BOOKS’”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187683>. (검색일 2019.11.19)

[“The nation’s first Homeschool expert book store ‘DCTY BOOKS’, Christian Today (2007. 9.19.). Retrieved from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187683>(2019.11.19.)]

한국경제 2006. 12. 8. “[‘홈스쿨링’ 이것이 궁금하다] 대학도 특별전형 門 열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6120857711>. (검색일 2019.10.30.)

- [“Homeschooling’ this is curious. The university also opens screening system of admissions.”, The Korea Economic Daily (2006.12.8),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6120857711\(2019.10.30.\)](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6120857711(2019.10.30.))]
- 한국일보 1999. 9. 6. “홈스쿨링 학교안가고 집에서 공부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909060069773534>. (검색일 2019.10.3.)
- [“Homeschooling, Studying at Home, Not in School?”, Hankook Ilbo (1999.9.6.).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909060069773534\(2019.10.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909060069773534(2019.10.3.))]
- 아임 홈스쿨러 <http://www.imh.kr/>
- [I’m homeschooler <http://www.imh.kr/>]
- 연합뉴스 2019. 5. 4.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학대 행위자 70%이상이 부모”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3066600017>. (검색일 2019.11.19.)
- [“Child abuse increases year after year… Parents occupy more than 70 percent of Abuse actors”, Yonhap news (2019.5.4.),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3066600017\(2019.11.19.\)](https://www.yna.co.kr/view/AKR20190503066600017(2019.11.19.))]
- 일요신문 2015. 12. 21. “인천서 학대당한 초등생, 2년간 감금당해...계모 “홈스쿨링 하려 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6610. (검색일 2019.11.18.)
- [“Incheon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was abused, have been in captivity for 2 years… Stepmother“ I was going to homeschoo”, “Sunday Newspaper (2015.12.21), Retrieved from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6610\(2019.11.18.\)](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6610(2019.11.18.))]
- 한국 기독교홈스쿨 협회 <http://khomeschool.com/>
- [Korea Christian Homeschool Association <http://khomeschool.com/>]
- 김춘진 (2012). **미인가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및 현장단체 간담회**: 2012 간담회 자료집. 김춘진 의원실.
- [Kim C. J. (2012). *Conference of Expe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for Legislation for Unapproved Alternative Schools and Homeschooling: 2012 Conference Resource*, Kim, C. J.’s Office.]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

Analysis on Homeschooling Research Trends in Korea

김 현 숙 (총신대학교)

정 희 영 (총신대학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홈스쿨링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홈스쿨링의 연구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표된 총 8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시기, 발표기관 및 종교, 대상, 방법,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2005년 이후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이다. 종교 관련 연구는 기독교 관련 홈스쿨링 연구만 23편(28%) 이루어졌고 타 종교관련 연구는 없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은 총신대이며, 학회는 한국비교교육학회이다. 대상으로는 인적대상이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중 부모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연구주제는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첫째, 의무교육의 범위와 교육형태에 대한 정립을 통해 학교교육과 홈스쿨링이 서로 보완·상생·협력하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홈스쿨링의 교육적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의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홈스쿨링 환경구성의 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홈스쿨링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하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홈스쿨링, 교육, 연구동향.

기독교교육을 위한 성서 스토리텔링 공간 기획 연구 - 미국 켄터키의 ‘아크 인카운터’ 사례를 중심으로 - *

A Bible Storytelling Spatial Planning Study for Christian Education - Focused on 'Ark Encounter' Case in US Kentucky -

김태룡 (Tae-Ryong Kim)*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insist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patial contents for Bible education and proposing storytelling strategies for the education. When it comes to Christian education, the validity of storytelling already has extensive consensus from academic circles and learning environments. However, the studies on education methodology using storytelling were conducted based on narrow viewpoint and there is no study on spatial contents.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strengths of spatial contents, it is necessary to use it in education. Therefore, after analyzing 'Ark Encounter' - a space under the theme Noah's Ark - from the viewpoint of storytelling, spatial storytelling measures for Bible education were deriv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that voluntary goal setting should be promoted through effective arrangement of Bible stories, sense of achievement should be obtained by encouraging cognitive understanding when it comes to movement lines, establishing a Bible worl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ality, and inducing educators to be immersed in Bible characters.

Key words : Bible storytelling, Bible spatial contents, Christian education, Bible education, Ark encounter, Christian cultural contents

* 2019년 12월 25일 접수, 2020년 01월 15일 최종수정, 01월 2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 36회 기독교학문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10. 26.)에서 발표한 ‘기독교 교육을 위한 성서 스토리텔링 공간 기획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Konkuk University) 상허교양대학 강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ryongworld@hanmail.net

1. 서론

문자가 없던 시절의 인류는 자신들의 역사 및 생존을 위한 지식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야기가 인간이 기억하기에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인류의 원초적인 기억저장장치로 기능해왔으며(최혜실, 2011: 18-22), 이러한 이야기의 기능적 측면은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동화를 통해 전달한다. 인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 이야기에서 그 교훈을 찾는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역시 이야기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는다. 그 이야기들은 ‘성경’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엮여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과거의 것이 아닌 늘 현재적인 것이 된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서사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 성경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 보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지시키는 단계가 선행되기 마련이다. 한국 교회는 오래 동안 성경의 이야기를 다음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왔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 및 교재를 활용하는 방식부터 이미지, 인형극, 연극, 영상물 등 문화예술통한 교육 또한 이루어져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도입되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성경 교육과 관련한 담론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필자 역시 교회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는 것은 다음세대들에 대한 성경교육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교회문화의 수준이 일반 대중문화에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다음세대의 시선을 다시 성경으로 돌리기란 요원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체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기존에 수행되던 교육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그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이 반영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지해야할 점은 그들의 문화적 욕구가 항상 선한 것만은 아니며, 교회문화가 반드시 대중문화를 모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이자 기독교문화콘텐츠 개발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기독교 문화의 개발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신국원, 2002: 17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성경교육 다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기존과 차별화되는 성경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한 ‘아크 인카운터(Ark

Encounter)’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6년 7월 개장한 아크 인카운터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이야기를 주제로 갖는 성서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바 아크 인카운터는 성경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를 지향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와 전시를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¹ 아크 인카운터는 노아의 이야기를 비롯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테마파크라는 공간적 매체를 통하여 방문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로 하여금 노아의 상황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성경 이야기로의 강한 몰입을 이끌어낸다. 이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성경교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 인카운터는 ‘공간 스토리텔링’이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교육하고 있는 사례의 전범으로 제시될 수 있다.

아크 인카운터가 성경 이야기를 공간에 입히고 전개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공간을 활용하여 성경을 교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도 몇몇 성경교육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성막을 구현해놓은 괴산 국제성막훈련원,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막을 비롯하여 구약의 성물 및 예수의 생애관 등을 전시하고 있는 세계성막복음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성경을 교육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선행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분석의 도구로 활용될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아크 인카운터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하여 추후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을 위한 기획방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II. 성경교육 방법으로서의 공간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원래 디지털적 성격을 전제하는 용어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야기 창작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유제상, 2017: 77). 스토리텔링 개념이 국내에 정착한 이래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계 역시 교육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야기화 하여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교육방법’에 주목하였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해왔다. 스토리텔링을

1) LA중앙일보 2012. 1. 31. 미주판 28면 “켄터키주 초대형 테마파크 ‘아크 인카운터’”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47155 (검색일 2019.9.30.)

활용한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적·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정체성 형성을 돕는다. 둘째, 인간 내면의 치유와 통합을 유도하여 전인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특별한 훈계나 설명이 필요 없이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각기 다른 개인·인종·문화와 관련하여 다양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매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백은미, 2009: 399-421).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교육의 현장 역시 스토리텔링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왔다. 특히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교육에서 스토리텔링 활용의 필연성을 확인시켜 준다(김영래, 2017: 160).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기독교교육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다. 선행 연구들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기독교교육에 있어 스토리텔링 도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이며(백은미, 2009; 전영미, 2011; 김영래, 2013; 안진옥, 2015) 다른 한 부류는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 연구(최승희, 2010; 채진영, 2012; 이양숙, 2013; 유은영, 2014; 정희정, 2014; 김도훈, 2015; 유광진, 2015; 최영현, 2016; 김영래, 2017; 양금희, 2018)이다.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활용의 필요성은 학계 내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폭 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에 비하여 활용 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용방안 연구는 설교를 포함한 구술적인 방식과 교재 등을 통한 텍스트적 표현 방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파워포인트나 프레즐 등의 디지털미디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존재하긴 하나 구술적 방식의 보조적 차원에서 다루지고 있다. 셋째, 선행연구자들 간 공유되는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광의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로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밝히자면 본고에서 지향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매체환경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향유에 주목하는 형식’(박기수, 2015: 15)으로, 콘텐츠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성’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성경 스토리텔링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성경교육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공간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리는 과거의 경험으로서의 스토리텔링과, 해당 공간에 진입한 향유자가 스토리텔링을 상기는 동시에 자신의 체험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최혜실, 2008: 685-704).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의 일차적 목적은 공간에 삽입된 이야기에 방문자들을 몰입·참여시켜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김태룡·김기덕, 2019: 99).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이야기의 특성을 지닌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 요소를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며(안승범·최혜실, 2012: 210), 이

러한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해당 공간은 방문자로 하여금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온 몸의 감각을 통해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간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은 참여자의 흥미와 이야기로의 몰입, 체험적 활동을 유발시켜 성경의 내용 및 기독교적 가치관을 인지시키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서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아크 인카운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경 교육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아크 인카운터가 제공하고 있는 고도의 '몰입감'에 주목할 것이다. 다소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평가이긴 하나, 아크 인카운터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공간에 입혀진 성경 이야기에 효과적으로 몰입시키고 그것을 통해 이야기를 각인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때문에 인간의 몰입 및 자기목적적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논의들을 제시한 바 있는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와 로제 카이와(Roger Cailliois)의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몰입형 공간 스토리텔링'에 대한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의 몰입 경험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어 인간의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상태를 플로우(Flow) 경험이라고 명명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2004: 87). 이는 '최적 경험'이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는 '몰입'으로 번역된다. 몰입 상태의 인간은 행동과 인식이 통합되어 지속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이 때 인간은 한정된 자극에만 집중하게 되며 그 외의 요소들은 '외부 세계'로 분류하여 인지하지 않게 된다(Csikszentmihalyi, 1975/2003: 93-98). 때문에 공간에 입장한 방문자들에게 몰입의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은, 공간에 삽입된 이야기를 각인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몰입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몰입의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Csikszentmihalyi, 1997/2006: 45-48).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목표는 해당 활동으로 인한 외적인 보상의 획득이 아닌, 그 활동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칙센트미하이는 이와 관련하여 '자기목적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행위자가 해당 활동을 다른 보상이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때 행위자는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내적인 보상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적인 보상이란 참여감, 즐거움, 자발적 통제감 등의 획득이다(Csikszentmihalyi, 1990/2004: 132-135). 따라서 공간에 입장한 방문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간을 장악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경의 이야기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목표의 설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칙센트미하이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때 피드백의 종류는 활동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예시에는 체스를 두며 형세의 유

불리를 확인 하는 것, 등산가가 등반 중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Csikszentmihalyi, 1997/2006: 45-46). 결국 종류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성취감을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근거하여 스토리텔링을 구성한다면, 공간에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방문자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과적인 이해를 통한 성취감의 획득이 가능한 동선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칙센트미하이이는 자기목적적 활동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로제 카이와의 이론을 소개한 바 있다. 물론 칙센트미하이가 카이와의 이론을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긴 했으나 카이와의 놀이 유형론이 자기목적적 활동에 대한 규정 및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Csikszentmihalyi, 1975/2003: 73-86). 로제 카이와는 인간의 ‘놀이’와 관련하여 근원적이고도 유의미한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규칙을 바탕으로 한 경쟁 형태의 놀이를 ‘아곤(Agon)’,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행과 우연을 기대하는 확률게임을 ‘알레아(Aléa)’, 흉내와 모방을 통한 놀이를 ‘미미크리(Mimicry)’, 스틸이나 현기증의 등의 유발을 통해 인지 기관의 혼란을 즐기는 놀이를 ‘일링크스(Ilinx)’로 구분하였다(Caillois, 1958/1994: 36-39). 일정한 이야기를 테마로 갖는 공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활동 형태가 복합적으로 발현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형태의 놀이 활동의 기저에는 미미크리가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테마공간의 연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공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모방하여 일탈감과 비일상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희진·안태기, 2016: 61-62). 미미크리는 현실을 은폐하고 제2의 현실을 모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가공의 인물이 되어 그것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이 때 활동의 당사자는 자신을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로 믿고 일시적으로 다른 인격을 가장한다. 이러한 미미크리는 일종의 상상이며 창작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Caillois, 1958/1994: 46-52). 따라서 미미크리가 중심에 자리 잡은 채 기타 활동인 아곤, 알레아, 일링크스가 적절히 배치된다는 것은, 공간 내의 모든 콘텐츠가 일정한 테마 내지는 이야기 속 세계관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미미크리는 방문자의 공간몰입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작동하며, 나머지 요소들은 이러한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로 인해 방문자는 공간 안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일상과 스스로를 유리시키고 현재 속한 시공간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분석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첫째, 아크 인카운터가 성경 이야기 속 세계를 구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야기 속에 내포된 요소들을 선별하고 그것을 재창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착해야 한다. 둘째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방문자들을 이야기 속 인물에 자신을 이입시키고 있는가이다. 이는 참여적 방법을 통하여 아크 인카운터 내에 구축된 세계에 입장한 방문객들이 어떠한 물리적·감정적 행위를 갖게 되는지를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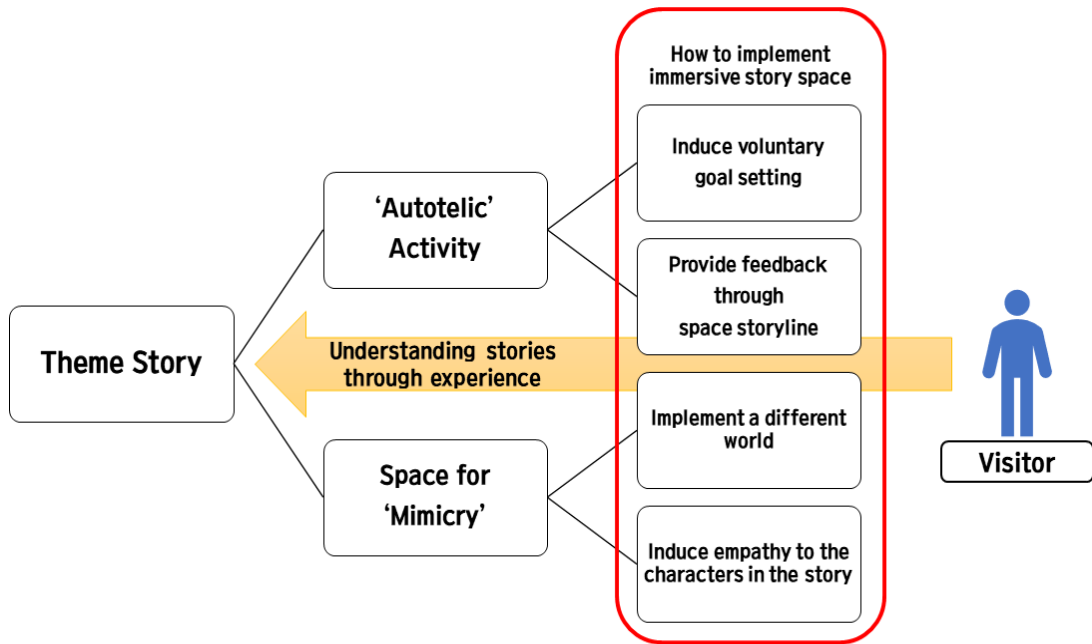


Figure 1. Immersive spatial storytelling model for education.

Figure 1은 방문자에게 이야기로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간 스토리텔링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메인테마가 되는 이야기(Theme Story)는 '자기목적적 경험화(Autotelic Activity)'와 '미미크리를 위한 공간화(Space for Mimicry)'의 과정을 통하여 총 4가지의 몰입공간 구현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 첫째는 '자발적 목표설정 유도(Induce voluntary goal setting)', 둘째는 '피드백이 제공되는 동선 구축(Provide feedback through space storyline)', 셋째는 '현실과 유리된 세계의 구현(Implement a different world)', 넷째는 이야기 속 인물로의 자기이입 유도(Induce empathy to the characters in the story)'이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스토리텔링 장치를 방문자(Visitor)가 경험하게 된다면 메인테마가 되는 이야기 즉 성경의 이야기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모델에 착안하여 다음의 장에서는 아크 인카운터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기목적적 경험으로 체험시키고, 미미크리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Ⅲ. 아크 인카운터에 나타나는 몰입형 스토리텔링 구조 분석

1. 이야기의 자기목적적 경험화를 통한 몰입감의 형성

앞서도 거론하였지만, 방문자들을 공간에 삽입된 이야기로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간을 장악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활동의 목표가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자기목적적 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에 담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유도하는 것은 교육 목적의 공간 구성에 있어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발적인 목표 설정의 유도와 그에 따른 몰입적 체험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동되기 전 사전단계에서의 과정이 중요하다. 물론 스토리텔링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도 목표의 설정은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보다 효과적인 몰입을 위해서는 사전단계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목표설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크 인카운터는 본격적인 스토리텔링에 진입하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성경 이야기의 요소들을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자발적 목표 설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노아 이야기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모험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질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공간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해당 공간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체험적 욕구를 스스로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크 인카운터의 위치적·내용적 중심은 단연 방주라고 할 수 있다. 방주 내부에는 아크 인카운터가 방문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아크 인카운터의 스토리텔링은 방주 내·외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의도는 동일하나 기능적 측면에서 방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자가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방주 외부에 위치한 콘텐츠



Figure 2. Ark encounter map. Source: Google maps.

들과 경관은 방주에 입장하기 전 방문자들에게 공간의 의도에 대한 힌트로 기능하며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목표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2의 왼쪽 사진은 아rk 인카운터의 외부출입구를 포함한 전체지도이다. 원으로 표시된 곳이 매표소 및 주차장을 포함한 외부출입구의 위치이며, 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은 방주가 있는 지점이다. 두 지점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5분 정도의 거리이다. 방문자들은 외부출입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방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산골짜기의 굽이진 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자연 속에 위치한 거대한 방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대홍수의 종료 후 방주가 아라랏 산에 정박하였다는 성경의 내용을 연상시키며 방문자 스스로가 아라랏 산으로 진입하고 있는 심상을 갖도록 유도한다. Figure 2의 오른쪽 사진은 공원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버스에서 하차한 방문자들은 연못과 방주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형태의 공원을 마주하게 된다. 방주의 좌우에 위치한 마을은 식음료 및 기념품의 판매와 소규모 형태의 공연이 진행되는 곳이다. 좌우의 마을은 방주에서 하선한 노아의 가족들이 정착하여 촌락을 구성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방주의 뒤편에 위치한 소규모의 동물원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기능한다. 본 동물원의 이름은 '아라랏산 동물원'으로, 아rk 인카운터가 위치한 장소를 성경적 장소의 이미지와 중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연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동물원에는 당나귀, 사슴, 캥거루 등 중소형의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촌락의 심상적 기능과 동일하게, 이 동물들 역시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탑승하였다가 홍수 종료 후 하선하여 정착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콘텐츠는 공원의 한 가운데 위치한 방주일 것이다. 방주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창세기 6장 15절)”에 기인하여 제작되었다. 여기에서 1규빗은 왕실 규빗 기준인 약 52cm로 환산되었으며



Figure 2. Ark encounter map. Source: Google maps.

그 결과 길이 155.4m, 높이 15.5m, 폭 25.9m 크기의 모형 방주가 탄생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자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논의에 따르면, 랜드마크는 공간의 정체성을 입히는 역할을 한다(Lynch, 1960/2003: 74). 아크 인카운터의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방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인 장소성을 형성한다. 또한 방주를 떠받치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 연못은 방주가 단순 축조물이 아닌 선박이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방주가 형성하는 강력한 이미지는 아라랏산과 촌락, 동물원 등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생경한 장소감을 연출하게 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개념을 빌어 표현하자면, 방문자는 방주를 목도함과 동시에 그곳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장소이며 모든 장소의 바깥에 위치한 공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Foucault, 2012/2015: 47).

이렇듯 아크 인카운터는 방주, 아라랏산, 방주에 탑승한 동물 등 노아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이질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형성은 방문자로 하여금 해당 공간에 대한 모험심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먼 공간에서부터 서서히 노아의 세계로 진입하며 순차적으로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입장과정 역시 이러한 동기부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전단계의 스토리텔링은 방문자가 방주의 내부 역시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해당 공간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체험적 욕구를 스스로 갖게 만든다. 아크 인카운터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서도 방문자들이 방주 내부에 담겨진 핵심적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의 몰입에 있어 피드백의 중요성 즉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교육공간의 스토리텔링에 적용한다면 이야기를 논리적이고 인과적으로 전개하여 방문자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취감을 제공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는 낮은 단계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채 상위단계로 진입한다. 이 때 하위단계에서 획득한 지식이 상위단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효하게 작용한다면 방문자 스스로가 자기목적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자신이 거쳐 온 단계들을 시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공간이라면 몰입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가 물리적으로 다른 높이에 위치하여 각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고 상위로 진입하는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크 인카운터의 방주 내부 동선은 바로 이러한 이점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전개한다. 때문에 방문자들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취감을 제공받게 된다.

Figure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주의 내부 구조는 그라운드 레벨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총 4층을 이루고 있다. 동선 상으로는 지상 1층으로 입장하여 3층까지 상승한 후 그라운드 레벨로 하강하여 퇴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본 구조물은 중앙통로로 연결된 나선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상승 이동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때 방문자는 방주 내의 스토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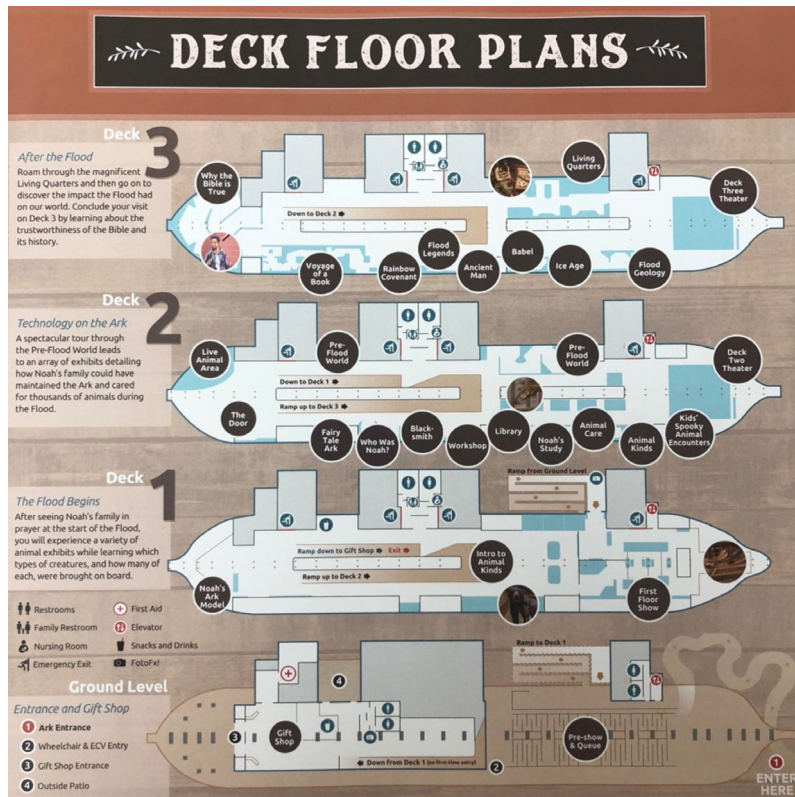


Figure 4. Noah's ark inside map. Source: AIG, Journey through the Ark Encounter, 2017.

단계적으로 이해해 나아가야함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방주의 이야기는 층별로 테마를 가지며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구조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방주의 1층은 ‘홍수의 시작’, 2층은 ‘방주의 기술’, 3층은 ‘홍수 이 후’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총 5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방문객을 방주 공간에 몰입시키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방주 안에 입장하였음을 인식시키고 방주 탐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노아의 방주와 관련한 배경지식과 방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는 방주와 십자가의 의미적 중첩이 시도된다.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노아 시대 당시 방주에 탑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기독교적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단계에서는 대홍수에 대한 변증을 통하여 방문객들이 방주의 이야기를 설화로 취급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결말에 해당하는 5단계에서는 성서 박물관과 복음적 그래픽 노블의 전시를 통하여 방문객의 신앙적 결단을 요구한다. 이후 통로는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 상품

점으로 연결된다. 이야기의 정점을 확인한 후 하강하는 방문객들은 긴장의 완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상품점의 상품들을 바라보며 방주 내의 경험을 회상하고 각인하게 된다.

방주 내부의 스토리텔링은 방문자가 단계별로 성취감을 획득해 나갈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방주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 내지는 각 층의 과제를 해결하며 상위단계로 진입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 단계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아크 인카운터는 방문자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피드백을 통한 성취감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이야기에 효과적으로 몰입시키고 있다.

2. 미미크리의 구현을 통한 몰입감의 형성

로제 카이와의 말대로 미미크리는 놀이의 주체가 스스로 타인 또는 다른 존재가 되어 행동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이 때 놀이의 당사자는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 2의 현실을 전제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미크리의 구현을 위해서는 놀이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스스로를 다른 존재에 이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며, 그 후엔 특정한 인물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성된 제2의 현실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을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위치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크 인카운터는 성경적 세계관의 구현을 통하여 제 2의 현실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현실과의 단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크 인카운터는 이 과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Figure 2에서 확인했듯이 아크 인카운터는 도심이 아닌 자연 환경 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실공간과의 완전한 차단으로 이어진다. 방주 내부에서도 외부를 전혀 바라볼 수 없다. 이러한 시각적 차단은 방문자의 일상적인 관념을 차단하여 오로지 현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아크 인카운터의 미미크리 형성의 밑바탕으로 작용한다.

본 절에서는 방주 내부에 재현되고 있는 미미크리적 장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크 인카운터는 사전단계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아크 인카운터의 전체적인 테마가 ‘노아의 방주’임을 방문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킨다. 그로 인해 방문자들은 노아 혹은 노아에게 초대받은 인물에 자신을 이입시킬 정서적 준비를 시작한 채 방주에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아크 인카운터는 이러한 방문자들에게 실제 방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방주 내부의 경관을 전시한다. 그 중 주요한 사례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층 도입부에 위치한 ‘작은 동물 우리(Small animal cage)’이다. 방문자가 방주에 입장한 후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구역이자 아크 인카운터의 미미크리 구현에 대한 의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5. “Small animal cage”

이곳에는 호롱불을 형상화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 소형 목재 우리와 식량 보관용 항아리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이 공간은 노아가 방주에 탑승한 무수히 많은 동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류 등의 작은 짐승들을 작은 우리에 가두어 관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인하여 제작된 것이다. 우리 속에는 실제 동물들을 가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내부에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동물들의 울음소리나 발톱을 긁는 소리 등을 재생시키고 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주로 고음역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움직이는 소리는 빠른 템포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긴박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을 방문자들에 전달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스피커를 통해서는 거친 바람과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는 실내에 입장한 방문자들로 하여금 방주 외부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심상을 그리도록 유도하며 긴장을 고조시킨다. 본 연구보다 앞서 아크 인카운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대학의 엠마 프란시스 블룸필드(Emma Frances Bloomfield)는 이러한 소통방식에 대하여 방문자들의 공포를 유발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Bloomfield, 2017: 274-275). 그의 연구는 다소 비판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 내지는 미미크리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방식은 비일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자들의 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Figure 6. “Large animal cage” and “Noah’s study”

공간의 사실적 재현은 방주 곳곳에서 시도된다. 작은 동물 우리에서는 청각적인 시도를 통하여 방주에 탑승하였던 동물들의 존재를 상상하게 하였다면, Figure 6의 왼쪽 사진과 같이 방주의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는 중대형 크기의 우리 안에는 실제 동물과 매우 흡사한 외형을 지닌 밀랍 인형을 배치하여 공간의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각 동물모형이 위치한 우리 앞에는 해당 동물의 특징 및 습성이 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어 방주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들은 반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 공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Figure 6의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방주 내부에는 노아가족의 연구실, 작업실, 주방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의 생활 모습이 밀랍인형을 통하여 묘사되고 있다.

아rk 인카운터는 방문자들에게 방주 안에서의 삶을 시각적으로 체험시킬 뿐 아니라 공감각적인 체험의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다. Figure 7의 왼쪽 사진은 ‘아이들의 으스스한 동물과의 만남’ 구역으



Figure 7. ‘Kid’s spooky animal encounters’ and ‘Live animal area’. Source: www.instagram.com/arkencounter.

로, 방주에 탑승한 동물들의 야간 활동을 상상하여 구현된 콘텐츠이다. 이곳은 짧은 코스의 미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매우 어둡게 조성되어 있다. 입장한 방문자들은 조성된 길을 따라가며 동물들의 탈출 시도, 다툼 등 익살스러운 장면들을 감상하게 된다. 이 때 방문자들은 방주에 몰래 잠입한 사람이나 야간에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노아의 가족 중 누군가의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 오른쪽 사진은 '살아있는 동물 구역'으로 전문 사육사의 지도하에 도마뱀, 고슴도치 등 실제 소형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이는 노아의 방주가 일종의 동물원의 기능을 한 것에 착안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방주 안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말로 노아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며, 방문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창세기 시대의 사건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노아가 방주 안에서 겪었을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고도 입체적인 목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작은 동물 우리'나 '노아의 연구실'에서의 시각적 경험들, '살아있는 동물 구역' 등을 통한 주인공으로서의 활동은 방문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노아나 노아 가족의 일원 혹은 방주에 탑승한 누군가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방주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체험들은 미미크리적 행위로 전환되며, 이는 성경 속 인물의 당사자의 당시 감정과 생각을 유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성경 이야기에 대한 입체적 이해와 성경 말씀의 구체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로제 카이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크 인카운터는 이계적 공간, 즉 비일상성을 지닌 현실과는 다른 이질적 세계를 구축하고 다른 인격으로의 감정 이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미미크리의 구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나머지 요소인 알레아, 아곤, 일링크스의 요소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경 교육을 위한 공간에 모든 형태의 놀이요소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육은 참여자의 체험적 활동과 유희적 자극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다양하고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아크 인카운터에서는 미미크리 외의 다른 유형의 활동들이 의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방문자들의 기본적인 몰입은 어렵지 않게 이끌어 낼 수 있겠으나 몰입감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이는 재방문율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아크 인카운터는 체험 요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다. 만약 추후에 국내에서 성경 교육공간을 조성할 시 이점을 참조하여 미미크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 및 체험 기회의 제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 몰입의 관점에서 아크 인카운터가 방문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분석해보았다. 이에 성경교육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경 이야기요소들의 효과적 배치를 통하여 자발적인 목표설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본격적인 스토리텔링이 시작되기 전 준비단계에서 핵심주제가 되는 성경 이야기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제와 관련된 심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아크 인카운터의 경우 방주, 아라랏산, 방주 속 동물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교육대상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해당 프로그램의 의도 및 주제의식을 미리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공간에 대한 탐험적 욕구를 형성하여 자발적인 목표설정에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 동선 구축에 있어 인과적인 이해를 유도하여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다. 방주 내 동선의 경우 단계별로 이야기를 배치하여 순차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단계별 위치를 달리하며 하위단계에서부터 과제를 해결하고 상위단계로 진입하는 듯한 심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 교육 공간의 동선 역시 단계별 이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배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공간의 물리적인 구조까지도 여기에 부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과 유리된 성경 속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먼저 아크 인카운터의 사례와 같이 현실과의 연결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성경 속에 기록된 공간을 재현해야 할 텐데, 이 때 성경에 기반하되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의 개입이 요구된다. 여기서의 관건은 교육대상자들이 이를 실제와 같은 곳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실감을 연출해야 한다는 점인데, 각종 시·청각적 효과를 활용한 방주 내부의 ‘작은 동물 우리’가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이야기 속 인물로 교육대상자들이 자기이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셋째 방안과 연결된다. 현실감 있는 성경공간의 창출은 교육대상자들에게 성경 속 인물의 삶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유형의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자들이 성경 속 사건을 성경 속 인물의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구를 개진하며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몰입형 공간을 통한 성경교육은 충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 스토리텔링 공간의 창출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성경 체험의 확대로 이어진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로 텍스트를 통해 접하며, 간혹 영화나 뮤지컬을 통하여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 스토리텔링 공간은 총체적 감각을 통하여 성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성경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성경 속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성경의 왜곡이나 의미적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의 공간적 체험을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텍스트를 통한 은혜를 대체하거나 동일한 위상을 누려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공간적으로 체험한 후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숙한 성도라면 자발적으로 그리 할 것이고,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교사나 부모의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 성경교육 공간에서 겪었던 경험들과 성경의 기록이 연동된다면, 공간에서의 체험은 성경 원 텍스트에 대한 '부록'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문원은 데리다의 개념을 활용하여, 예수 영화가 원형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해주며 원전의 충만성을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문원, 2012: 168-169).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공간적 체험은 성경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전보다 풍부한 말씀 묵상과 구체적인 삶적 적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스토리텔링 방안들은 추후 성경교육을 위한 공간을 구축할 때에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며 희망한 것은, 본 논문이 반드시 아크 인카운터와 같은 대규모 공간 제작에만 기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작은 규모의 기독교 교육단체나 개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및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의도하였다. 그곳에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 관련 사역자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는 사실을 연구자 역시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도훈 (2015). **포스트모던 시대의 효과적인 설교 패러다임의 대한 연구: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Kim, D. H. (2015). *A Study on an New Preaching Paradigm for a Post-Modern Era: Storytelling Preaching*. Masters Dissert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Korea.]
- 김영래 (2013).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공감적 이야기 공유”를 통한 신앙교육의 모색. **신학과 세계**, 78. 435-463.
- [Kim, Y. R. (2013). Digital Storytelling and Christian Education Seeking faith education through “sharing sympathetic stories”. *Theology and the world*, 78, 435-463.]
- 김영래 (2017).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 연구. **신학과 세계**, 91. 159-186.
- [Kim, Y. R. (2017) Storytelling and Christian Education: A Study of Bible Education through Storytelling. *Theology and the world*, 91, 159-186.]
- 김태룡·김기덕 (2019). 성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공간콘텐츠 기획 전략: 미국 플로리다의 ‘홀리랜드 익스피리언스’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 93-118.
- [Kim, T. R and Kim, K. D. (2019) Spatial Contents Planning Strategies Applying Biblical Storytelling: Focused on ‘Holy Land Experience’ in Florida.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32, 93-118.]
- 김희진·안태기 (2016). **테마파크 이론과 실제**. 서울: 새로미.
- [Kim, H. J. and Ahn, T. G. (2016). *Theme Park Theory and Practice*. Seoul: Seromi.]
- 박기수 (2015).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 서울: 논형.
- [Park, K. S. (2015). *Culture Content Storytelling Structure and Strategy*. Seoul: Nonhyung.]
- 백은미 (2009).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스토리텔링 교육방법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5(1). 399-421.
- [Paik, E. M. (2009). Storytelling as an Educational method in Christian Communit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65(1), 399-421.]

신국원 (2002).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IVP.

[Shin, K. W. (2002). *Shin Kukwon's Culture Story*. Seoul: IVP.]

안승범·최혜실 (2012). '쁘띠 프랑스'의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외국문학연구**, 45, 205-228.

[Ahn, S. B. and Choi, H. S. (2012) A Study on Storytelling Strategies of 'Petit France'. *Foreign Literature Studies*, 45, 205-228.]

안진옥 (2015). **성경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슬람문화권 어린이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Ahn, J. O. (2105). *Children's Mission Strategies in Islamic Culture through Bible Storytelling*.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양금희 (2018). 성경 속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하기 방법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50(2), 329-357.

[Yang, G. H. (2018). Study on Bible Storytelling through Storytelling in the Bible.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0(2), 329-357.]

유광진 (2015). **성경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내러티브 본문 설교의 원리 및 실제**.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You, K. J. (2015) *Principle and reality of preaching narrative texts, using biblical storytelling*.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유은영 (2014). **성경 스토리텔링 사례 분석을 통한 선교 방안: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성경공부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You, E. Y. (2014). *Mission Strategies through Biblical Storytelling Case Analysis: Focusing on Bible Study Materials in Manila, Philippines*. Masters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유제상 (2017). 문화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이다. **새로운 문화콘텐츠학**, 77-10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You, J. S. (2107). Cultural Content is Storytelling. *New Cultural Contents*. Seoul: Communication Books.]

이문원 (2012). 예수 드라마의 극적 사실주의에 관한 미학적 고찰: <마태복음>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중심으로. **신앙과학문**, 17(2), 147-174

[Lee, M. W. (2012). A Study on Dramatic Realism of Jesus Drama: Focusing on Il Vangelo Secondo Matteo and The Passion of the Christ. *Faith & Scholarship*, 17(2), 147-174.]

- 이삼출 역 (2003). **몰입의 기술**. Mihali Csikszentmihalyi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서울: 더블어책.
- [Lee, S. C. (2003).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Seoul: Deobureo books. Trans. Mihali Csikszentmihalyi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이상길 역 (2015). **헤테로토피아**. Michel Foucault (2012). *Le Corps Utopique, Les Heterotopies*. 서울: 문학과지성사.
- [Lee, S. G. (2015). *Le Corps Utopique, Les Heterotopies*. Seoul: Moonji Publishing Company. Trans. Michel Foucault (2012). *Le Corps Utopique, Les Heterotopies*. Fecamp :Editions Lignes]
- 이상률 역 (1994). **놀이와 인간**. Roger Caillois (1958). *Les Jeux et les Hommes*. 서울: 문예출판사.
- [Lee, S. Y. (1994). *Les Jeux et les Hommes*. Seoul: Moonye. Roger Caillois (1958). *Les Jeux et les Hommes*. Paris: Gallimard]
- 이양숙 (2013). 어린이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 방안 연구 : Storytelling 설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Lee, Y. S. (2013). *A Study of Various Transfers of Children's Sermon: Focusing on Storytelling Sermons*. Masters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이희재 역 (2006). 몰입의 즐거움. Mihali Csikszentmihalyi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서울: 해냄.
- [Lee, H. J. (2006).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Seoul: Hainaim. Trans. Mihali Csikszentmihalyi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전영미 (201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종교교육적 활용. **기독교교육정보**, 28, 143-166.
- [Jeon, Y. M. (2011). Using Digital Storytelling in Religious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8, 143-166.]
- 정희정 (2014). 교회학교에서의 스토리텔링 활용: 학령 전 어린이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Jung, H. J. (2014). *Application of Storytelling for Preschoolers in Church School*. Masters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채진영 (2012).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기독교적 적용 가능성 탐색.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Chae, J. Y. (2012). *Exploring the Christian Educational Applicability of Digital Storytelling*.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최승희 (2010).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성경 스토리텔링의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Choi, S. H. (2010).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Bible Story-Telling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the Object of Missionary Work*. Masters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최영현 (2016). 스토리텔링과 프레지를 이용한 교양 성경 교수법 연구. **대학과 선교**, 31, 7-40.

[Choi, Y. H. (2016).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Liberal Arts Course Bible Using Storytelling and Prezi.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7-40.]

최인수 역 (2004). **플로우**. Mihali Csikszentmihalyi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서울: 한울림.

[Choi, I. S. (2004).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Seoul: Hanulim. Trans. Mihali Csikszentmihalyi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최혜실 (2008). 스토리텔링 이론 정립을 위한 시론: 공간 스토리텔링으로서의 테마파크 스토리텔링. **국어국문학**, 149, 685-704.

[Choi, H. S. (2008). An Essay to Establish Theory of Storytelling: Focusing on Theme Park Storytelling as Spatial Storytelling.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49, 685-704.]

최혜실 (2011).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파주: 한울 아카데미.

[Choi, H. S. (2011). *Storytelling The Science of Fascination*. Paju: Hanul Academy.]

한영호·정진우 역 (2003). **도시환경디자인**. Kevin Lynch (1960). The Image of the City. 서울: 광문각.

[Han, Y. H., Jung, J. W. (2003). The Image of the City. Seoul: Kwangmoongak. Trans. Kevin Lynch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AIG (2017). *Journey through the Ark Encounter*. Green Forest: Mater Books.

Emma Frances Bloomfield (2017). *Ark Encounter as Material Apocalyptic Rhetoric: Contemporary Creationist Strategies On Board Noah's Ark*.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2(5). 263-277.

LA중앙일보 2012. 1. 31. 미주판 28면 “켄터키주 초대형 테마파크 ‘아크 인카운터’”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47155 (검색일 2019. 9. 27.)

[“Kentucky’s mega theme park ‘Ark Encounter’”, Koreadaily (2012.1.31.). Retrieved from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47155 (2019.9.27.)]

기독교교육을 위한 성서 스토리텔링 공간 기획 연구 - 미국 켄터키의 '아크 인카운터' 사례를 중심으로 -

A Bible Storytelling Spatial Planning Study for Christian Education - Focused on 'Ark Encounter' Case in US Kentucky -

김태룡 (건국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성경교육을 위한 공간콘텐츠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교육에 있어 스토리텔링의 유효함은 이미 학계와 현장에 걸쳐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다소 협소한 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간콘텐츠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간콘텐츠가 지니는 장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테마로 한 공간인 '아크 인카운터'의 스토리텔링을 몰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성경교육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로 성경 이야기요소들의 효과적 배치를 통하여 자발적인 목표설정을 유도할 것, 동선 구축에 있어 인과적인 이해를 유도하여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의도할 것, 현실과 다른 성경 속 세계를 구현할 것, 교육대상자들이 성경 인물에 자기이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서 스토리텔링, 성서 공간콘텐츠, 기독교교육, 성경교육, 아크 인카운터, 기독교문화콘텐츠

예술과 복음: 반 고흐의 풍경화에 대한 연구*

Art and the Gospel: A study on Vincent van Gogh's Landscape Paintings

라영환 (Young Hwan R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works of Vincent van Gog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Van Gogh created over 2,000 paintings over the period of a decade from 1880 to 1890, a large number of which were landscapes. Van Gogh's landscape paintings are less well known to the public compared to that of the laborers, self-portraits and other portraits. The focus of Van Gogh's work from 1880, when Van Gogh first stepped down the painter's path, were the laborers and the landscape. One interesting fact about van Gogh's landscapes paintings are that the majority of his landscapes were not of sceneries that would be traditionally considered "beautiful". Rather, he painted things like bushes, tree roots, sand dunes, weeds and woody groves. Why did he choose to capture such landscapes on canvas? Van Gogh's landscape paintings should be viewed from the same perspective as Van Gogh's paintings of the poor. Just as Christ looked at the world through eyes of compassion, Van Gogh did the same with nature. This noteworthy characteristic of Van Gogh's landscape paintings is closely linked to his religious background of Dutch Reformed faith. As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the uniqueness of Van Gogh's landscape painting stands on the tradition of Dutch art in the 17th century. More fundamentally, it is to be found in the Christian Gospel, which was the foundation of Dutch art in the 17th century, and Van Gogh's own religious background.

Key words: van Gogh, the landscape paintings, the gospel, Christian worldview, Dutch paintings

* 2020년 01월 28일 접수, 02월 15일 최종수정, 02월 18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신학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yhr1988@hanmail.net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관점에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 - 1890)의 풍경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¹ 반 고흐는 1880년부터 그가 사망하던 1890년까지 10년간 2,0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그 가운데 반 이상이 풍경화였다. 반 고흐는 1880년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이 살던 지역의 풍경을 지속적으로 그렸다. 파리에 거주할 때에도 도시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던 인상주의자들과 달리 도시의 정원이나 파리 외곽의 전원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1884년 3월 13일 안톤 라파르드(Anthon van Rappard)에게 보낸 편지에서 겨울에 그린 자신의 정원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이 정원이 나를 꿈꾸게 한다고 말했다(van Gogh, 2000c: 399). 그의 말처럼 자연은 반 고흐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반 고흐의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작품들의 양에도 불구하고 그의 풍경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Heinich, 2006:76-81).² 반 고흐의 풍경화를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는 랄프 스키(Ralph Skea)이다. 랄프 스키는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들을 주목하면서 풍경화에 대한 반 고흐의 관심은 범신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 고흐의] 신앙심은 여전히 깊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의 바탕인 범신론에 가까운 사상을 가졌을 것이다(Skes, 2014:29).” 반 고흐의 종교적인 감성이 그를 범신론적인 풍경화를 그리게 했다는 랄프 스키의 주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준데르트(Zundert)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개혁파 목사였다(Neif도, 2011:23). 반 고흐의 삶에 있어서 그의 신앙적인 배경이 되는 네덜란드 개혁파 신앙은³ 그가 화가의 길을 걷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영환, 2020:51-74; 서성록, 2013:7-13; 안재경, 2014:31-74).⁴ 만약 랄프 스키의 주장대로 반 고흐의 풍경화에 나타난 범신론적인 특징들이 그의 신앙심과 관련되었다면 프로테스탄티즘과 범신론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둘 사이

1) 빈센트 반 고흐는 빈센트라 부르는 것이 유럽의 전통에 맞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 여러 명의 빈센트가 있어서 본 논문에는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화가 빈센트 반 고흐만 반 고흐가 칭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이름(Christian name or given name)을 사용한다. 빈센트 반 고흐를 빈센트라 하지 않고 반 고흐라고 부르는 것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작품에 빈센트라 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빈센트의 ~라”하지 않고 “반 고흐의 ~”라고 부르는 전통에도 부합한다.

2) 나탈리 에니히(Nathalie Heinich)는 반 고흐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반 고흐의 작품보다는 그의 비극적인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작품이 아닌 인간 반 고흐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반 고흐의 작품 속에 담긴 의미들이 덜 드러남을 지적하였다.

3)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한다.

4) 라영환은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에 관한 연구”에서 반 고흐의 작품을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과 연결해 해석하였다. 서성록 역시 “감자 먹는 사람들 연구”에서 반 고흐의 작품을 그의 신앙적인 배경이 되었던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안재경은 반 고흐가 광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을 반 고흐가 화가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은 또한 기독교 복음의 발현이었다고 보았다.

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담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랄프 스키는 그의 글 어디에서도 반 고흐의 풍경화가 어떤 면에서 범신론과 연결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겠지만 반 고흐의 풍경화는 범신론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배경이었던 프로테스탄티즘과 연결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반 고흐의 풍경화는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 1600-1682)의 고전주의 풍경화나, 테오도르 루소(Étienne Pierre Théodore Rousseau, 1812-1867),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와 같은 바르비종 유파(Barbizon School)의 풍경화와도 달랐다. 심지어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모네(Claude Monet, 1840-1926)나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1848-1894)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과도 달랐다. 나아가 반 고흐의 풍경화는 아를에서 함께 작품 활동을 한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의 풍경화와도 달랐다. 반 고흐의 풍경화는 확실히 이들과 구별된 반 고흐만의 특징들이 있었다. 반 고흐의 풍경화에는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클로드 로랭은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에 주목했다. 클로드 로랭 이후 화가들은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고자 하였다(Gombrich, 2003:397). 반 고흐의 풍경화는 루소와 밀레의 풍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평온함이나 아름다움이 덜 드러난다. 나아가 반 고흐의 풍경화에는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파리의 풍경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 고흐의 풍경화의 특징은 색채나 기법이 아닌 소재에 있었다. 그는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을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는 덩불, 나무뿌리, 모래언덕, 잡초, 숲속의 잡목과 같은 것들을 화폭에 담았다.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들은 대부분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그가 이렇게 무엇인가 결핍된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풍경들을 화폭에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 반 고흐의 풍경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그의 신앙적인 배경이 되었던 네덜란드 개혁파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⁵ 본 연구에서 밝혀지겠지만 반 고흐의 풍경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5) 반 고흐의 할아버지 빈센트(Vincent van Gogh, 1789-1874)는 라이든 대학(Leiden University)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라틴어 성적이 뛰어나 졸업식 때 상을 받기도 하였다. 할아버지 빈센트는 브레다(Breda) 지역에서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에게는 11명의 자녀(6남 5녀)가 있었는데 반 고흐의 아버지 도루스(Theodorus van Gogh, 1822-1885)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었다. 도루스가 사역했던 곳은 북부 브라반트(North Brabant) 지역의 준데르트(Zundert), 에텐(Etten) 그리고 누에넨(Nunen)과 같은 작은 촌락 지역이었다. 도루스는 비록 빈센트와 같이 유창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다. 반 고흐의 가계(家系)에 대해서는 Thames & Hudson에서 출판한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를 참고했다. 반 고흐의 편지 모음집 서문에는 테오의 아내였던(Theo van Gogh, 1857-1891) 요한나 반 고흐-봉허(Johanna van Gogh-Bonger, 1862-1925)가 쓴 '반 고흐에 대한 기억들(Memories of Vincent Van Gogh)'이 있다. 반 고흐의 족보에 관한 내용은 요한나의 기억을 근거로 하였다. Vincent van Gogh,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London: Thames & Hudson, 1999), Xv-Lii.

2. 반 고흐와 17세기 네덜란드 그림

1869년 여름 반 고흐는 16세의 나이로 헤이그(The Hague)에 있는 그림 전문점 구필(Goupil & Cie)에 수습사원으로 취직했다. 숙부 빈센트(Vincent)가 구필의 공동소유자였다(Naifh, 2011:67). 반 고흐와 테오는 숙부 빈센트를 ‘센트 삼촌(Uncle Cent)’이라고 불렀다. 센트는 헤이그에 화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1858년 파리에 근거를 둔 구필과 합병을 하였다.⁶ 182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구필은 판화와 복제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곳으로, 날로 번창하여 런던, 브뤼셀, 베를린, 헤이그, 뉴욕에 지점이 있었고, 파리에만 지점이 세 곳이나 있었다. 초기에는 판화와 복제 그림을 취급하였다가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그림을 사고파는 화랑으로 발전했다(Walther, 2015:19-20). 비록 창고에서 액자들을 배송하기 위해 포장하는 일과 그림을 매장에 진열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지만 반 고흐는 구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Meedendorp: 2015:27). 어릴적부터 책을 가까이했던 그는 미술 서적을 통해 그림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다.⁷ 구필 헤이그 지점에서 일하는 동안 반 고흐는 테오�필 토레-뷔르제르(Théophile Thoré-Bürger:1807-1869의) 『네덜란드의 미술관들(Les Musées de la Hollande)』을 즐겨 읽었다(Van Gogh, 2000a:18). 뷔르제르는 프랑스 예술 비평가이며 저널리스트로 1848년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는 혁명을 지지하는 『진정한 공화국(La Vraie République)』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였지만 폐간당하고, 망명길에 오른다. 네덜란드에서 지내는 동안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미술 작품이 강조하는 일상성에 매료된다. 뷔르제르는 17세기 네덜란드 예술에 반영된 민주적인 특징들이 가톨릭과 군주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반영한다고 믿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작품에 대한 뷔르제르의 해석이 매우 좋았다(Van Gogh, 2000a:16-18).⁸ 반 고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우리츠후이스(Mauritshuis) 미술관을 방문하여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6) Naifh, Steven. Van Gogh: The Life, 67. 지분은 구필이 40%, 숙부 센트가 30%, 그리고 다른 파트너인 레옹 부소가 30%를 소유했다. cf. Meedendorp, Teio. The Vincent Van Gogh Atlas, 27.

7) 당시 화상은 단지 그림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 그림을 수집하기도 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그림과 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다뤘다. 반 고흐와 테오는 둘 다 화상으로 인정받았고 그림에 상당한 안목이 있었다. 반 고흐는 화가가 되기 전부터 자주 전시회를 다니며 그림을 보았고, 미술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편지를 읽어 보면 반 고흐는 렘브란트(Rembrandt)와 터너(William Turner), 컨스터블 같은 화가뿐만 아니라 루소, 코로(Jean-Baptist-Camille Corot), 밀레, 도비니(Charles-Francois Daubigny), 디아즈(Virgile Diaz de la Pena)와 같은 바르비종파 화가들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본다. 반 고흐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보우턴(George Boughton)의 그림을 인용한 사실에서 우리는 반 고흐에게 그림이 얼마나 익숙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특별히 밀레는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했는데 이것은 훗날 반 고흐의 화풍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반 고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렸다. 어린 시절에도 데생을 즐겼고, 램스게이트와 런던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보리나주에서 사역할 때도 틈만 나면 붓을 들었다. 반 고흐가 훗날 화가가 된 것은 어쩌면 이러한 경험이 합쳐진 결과일 수도 있다 (Van Gogh, 2000a:1-91).

8) 반 고흐가 보기에 예술에 대한 뷔르제르의 견해는 항상 옳았다. 그는 테오가 구필 화랑의 헤이그 지점에 취직했을 때 뷔르제르의 『네덜란드의 미술관들』을 탐독할 것을 권하였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풍경화와 풍속화의 등장이었다.⁹ 17세기에 종교개혁 진영과 가톨릭 진영에서 제작된 그림들을 비교해 보면 화풍과 소재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플랑드르 화가들은 종교적인 이미지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네덜란드 화가들과 달리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생애에 대한 주제들을 극적으로 과장되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그림들은 보는 이들에게 종교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종교화와 신화화 그리고 역사화를 그리는 것이 화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림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또 이러한 작업을 후원할 후원자들도 역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화가들은 후원인의 주문으로 그림을 그렸던 이전 시대와 달리 직접 자신들이 제작한 그림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야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 화가들은 ‘일상성’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Prak, 2007:240).

화가들은 자신들 주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상성의 강조는 네덜란드 예술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화가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헨드릭 아베르캄프(Hendrick Avercamp, 1585-1634), 파울루스 포터(Paulus Potter, 1625-1654), 이삭 반 오스타데(Isack van Ostade, 1621-1649), 코넬리스 베하 (Cornelis Bega, 1631-1664), 피터르 데 호크(Pieter de Hooch, 1629-1684) 그리고 헨드릭 테르 부루헨(Hendrick ter Brugghen, 1588-1629)등과 같은 화가들은 일상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주로 제작하였다. 이 시기 화가들이 주로 묘사한 일상이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들이 바라본 일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상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중세 가톨릭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들에게 세속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다. 세상은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니라 파송 받은 곳이었다. 그들은 세속적 직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명하고자 했다. 직업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이러한 이해는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에 반영이 되었다(Finny, 1999:301-318).

풍경화의 발달 역시 네덜란드 미술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유럽에서 풍경화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7세기 중반이었다. 16세기 이전까지 풍경화는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 인

9)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들과 레헨트(Regent)들은 과거 미술 작품의 주요 구매자였던 교회와 귀족을 제치고 그 위치를 대신했다. 새로운 회화의 구매자들은 당시까지 그림의 주류를 이루었던 종교화나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서사적인 그림이 아닌 자신들의 집에 장식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작은 그림들을 선호하였다. 그것은 미술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화가들을 찾아와 그림을 주문했지만, 전통적인 후원자였던 교회와 귀족이 사라지자 화가들은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그림들을 제작하여 직접 거리로 들고 나갔다. 변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야 했던 네덜란드 화가들은 풍경화와 풍속화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개발했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구매자와 화가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났다. 구매자들은 이전과 다른 그림이 필요했고 화가들은 그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적인 화풍이 형성된 것이다(Prak, 2007: 236-237).

정받지 못했다. 그 이전까지 풍경화는 역사적 그림이나 신화와 문학을 소재로 한 그림에 비해 열등하게 여겨졌다. 이때까지 화가들에게 자연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나 사람의 배경일 뿐이었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네덜란드 화가들은 자연의 배경이 아닌 자연 자체를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가톨릭이 지배적이었던 지역과 달리 풍경화가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당시 제작된 그림들 가운데 대략 3분의 1이 풍경화일 정도로 많은 작품이 제작되었다(Prak, 2005:240).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풍경화가 꽃을 피웠던 것은 네덜란드 개혁과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화가들은 이야기의 배경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서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능하면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연을 이상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린 것은 중세의 미학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들이 바라본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곳이었다. 반 루이스달(Jacob van Ruisdael, 1628-1682)의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 풍경>과 같은 그림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왼편을 보면 폐허처럼 보이는 농가가 있다. 그 농가 앞을 보면 계곡 사이로 농부가 양을 몰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다. 화면 중앙에 나무 세 그루가 서 있다. 두 그루의 나무는 어둡게 그리고 오른쪽 끝의 부러진 나무는 밝게 채색되어 있다. 빛이 온전한 나무가 아닌 부러진 나무를 비추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그는 이러한 색의 대비를 통해서 온전한 나무뿐만 아니라 부러진 나무조차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1. Jacob van Ruisdael, <Three Great Trees in a Mountainous with a River>, 1665-1670, Oil on Canvas, 138.1 x 173.1cm, Norton Simon Museum, Pasadena, California

서성록은 무엇인가 결핍된 자연을 묘사하는 네덜란드의 화풍은 조화와 비례, 질서와 완전함을 추구하는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플랑드르 미술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으로 보았다(서성록, 2014:18-21). 로크마커(H. R. Rookmaaker) 역시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풍경화들은 벨기에에서 그려진 풍경화와 구별된 네덜란드만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징은 종교개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ookmaaker, 1994:19-23).

반 루이스달의 또 다른 작품인 <폐허가 된 성과 교회가 있는 풍경>을 보자. 반 루이스달의 풍경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늘이다. 그는 하늘을 화면의 2/3를 차지하게 그렸다. 근경(近景)의 회색 구름과 그 위로 보이는 원경(遠景)의 파란 하늘은 현실과 영원의 대비를 보여준다. 하늘 아래로는 폐허가 된 성과 교회 그리고 왼편 하단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다. 서성록은 폐허가 된 성과 교회는 “삶과 죽음 영원성과 필멸성, 생명과 사망과 같은 사실”들을 상징한다(서성록, 2016:27). 이 작품에서도 반 루이스달은 폐허가 된 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가 이렇게 폐허가 된 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부서진 나무와 같이 쓰러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총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에게 향한다는 종교개혁가들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Figure 2 Jacob van Ruisdael, <An Extensive Landscape with a Ruined Castle and a village Church>, 1665-1670, Oil on Canvas, 109 x 146cm, National Gallery, London

3. 반 고흐의 풍경화

반 고흐는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노동하는 사람들과 자연의 풍경을 집중적으로 그렸다. 반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화폭에 담은 것은 화가로서의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다(라영환, 2019:51-74; 서성록, 2013:7-13). 예수께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광부와 직조공 그리고 농부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화폭에 담음으로써 예술로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반 고흐에게 그림은 낮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미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반 고흐의 풍경화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자연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들을 보면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무엇인가 결핍된 자연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본다. 반 고흐가 1887년에 그린 <나무와 덩굴>을 보자. 이 작품은 반 고흐가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그린 것이다. 그가 화폭에 담은 나무들과 그 주위에 있는 덩굴은 숲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움과 숭고함과는 거리가 있다. 숲을 지나가다가 특별하지도 않은 흔한 잡목들과 그 곁에 자라나는 덩굴을 보고 발길을 멈추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이 반 고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Figure 3. Van Gogh, <Trees and Undergrowth>, 1888, Oil on Canvas, 46.2 x 55.2 cm, Van Gogh Museum, Amster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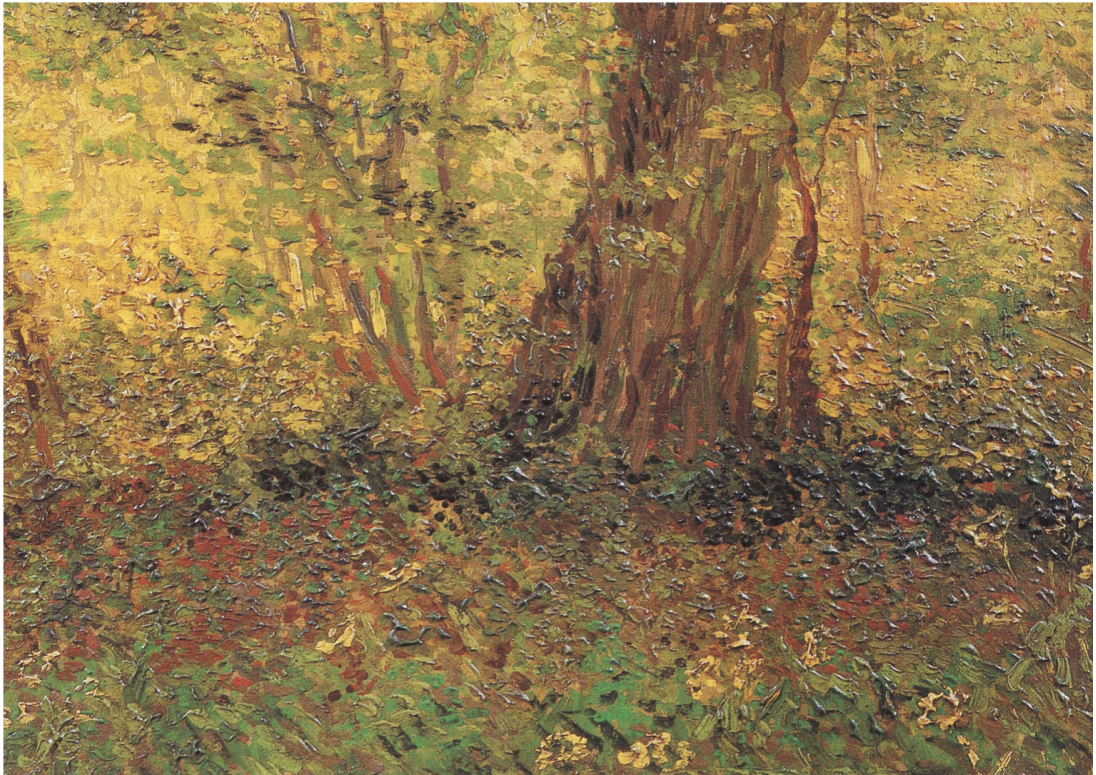


Figure 4. Van Gogh, <Undergrowth>, 1887, Oil on Canvas, 43.6 x 32.8 cm, Centraal Museum, Utrecht

1882년에 그린 <모래언덕>과 1890년에 그린 <나무뿌리>도 마찬가지다. 풍경화를 그린 많은 화가가 있지만, 반 고흐와 같이 모래언덕이나 나무뿌리 같은 소재를 화폭에 담은 화가는 많지 않았다. 반 고흐가 모래언덕이나 나무뿌리와 같은 초라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음으로써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나는 가장 가난한 오두막, 가장 더러운 구석에서 유화나 소묘를 발견해, 그리고 내 마음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런 것에 이끌려(Van Gogh, 2000a: 416).” 반 고흐는 누군가의 눈길을 끌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이미지에 매료되었다.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 것없는 이미지를 소재로 삼은 것은 낮은 자를 품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공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것처럼 반 고흐도 공허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다.

1887년 7월 21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 고흐는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야(Van Gogh, 2000a: 415).”라고 말한다. 그가 조금은 부족한 듯한 풍경에 매료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풍경에서 늙는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지는 편지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보잘



Figure 5. Van Gogh, <Dunes>, 1882, Oil an Canvas, 36 x 58.5 cm, Private Collection

것없는 사람, 괴팍스러운 사람, 불쾌한 사람일 거야.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없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언젠가 내 마음을 통해 그런 괴팍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어. 그것이 내 야망이야. 하지만 원한이 아니라 사랑에 그리고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평온함에 근거하는 거야(Van Gogh, 2000a: 416).” 그의 말처럼 반 고흐가 초라한 풍경에 매료된 것은 초라한 풍경 속에서 인생의 아고니를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반 고흐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단지 화가 자신의 진가만은 아니었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아직도 다른 노동자들과 장인들과는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 참 딱한 사람들이다.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려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Van Gogh, 2000a: 2016).” 1880년 9월 24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 고흐가 한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이 단지 자신의 야망이 아닌 사랑, 작은 자들에 관한 관심이었음을 본다.

반 고흐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보다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루소는 자연에서 관찰한 세밀한 디테일을 화폭에 담았다. 그는 햇빛에 반사된 나뭇잎을 짙고 어두운 숲과 대비시키며 실사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¹⁰ 하지만 루소와 같은 바르비종파 화가들이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반 고흐가 보기에 너무 객관적이었다. 반 고흐는 쿠



Figure 6. Van Gogh, <Tree Roots>, 1890, Oil on Canvas, 50 x 100cm, Van Gogh's Museum, Amsterdam

르베(Gustave Courbet)로 대표되는 사실주의도 싫어했다(Van Gogh, 2000b: 399). 반 고흐가 보기에 삽질하는 사람들을 삽질하는 사람처럼 그리면 사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반 고흐는 레르미트(Leon-Augustin Lhermitte)와 밀레를 좋아했다. 그것은 “밀레나 레르미트는 [역가 첨가: 그들과 달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무미건조하게 분석적으로 관찰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느낌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었다(Van Gogh, 2000c: 412). 반 고흐의 풍경화에서 서정성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대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반 고흐의 풍경화는 자연을 이상화했던 낭만주의 풍경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반 고흐의 풍경화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러한 경외나 보이지 않는다. 확실히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는 다른 화가들과 구분된 반 고흐만의 감성이 묻어 있다. 반 고흐는 아름다움보다는 무엇인가 부족한 풍경에 눈길을 주었다. 반 고흐의 <세 그루의 나무와 붉은 하늘>은 반 루이스달의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 풍경>처럼 부러진 나무를 화폭에 담았다. 반 고흐는 석양을 배경으로 여러 그루의 소나무들이 서 있다. 화면에 보이는 소나

10) 루소의 그림은 보스턴 미술관(Boston Museum of Fine Art)에 전시된 작품들을 참고하였다. 2015년 소마 미술관에서 보스턴 미술관에 전시된 밀레와 바르비종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당시 발간한 도록 『모더니즘의 탄생 (Millet, Barbizon and Fontainebleau)』에는 루소, 코로 등과 같은 바르비종 유파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서순주, 2015:1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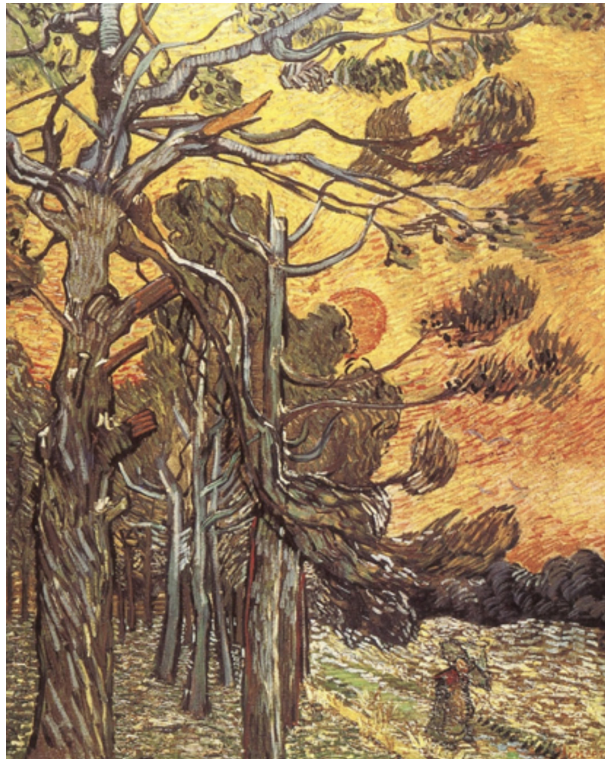


Figure 7. Van Gogh, <Pine Trees against a Red Sky with Setting Sun>, 1889, Oil on Canvas, 93 x 73 cm,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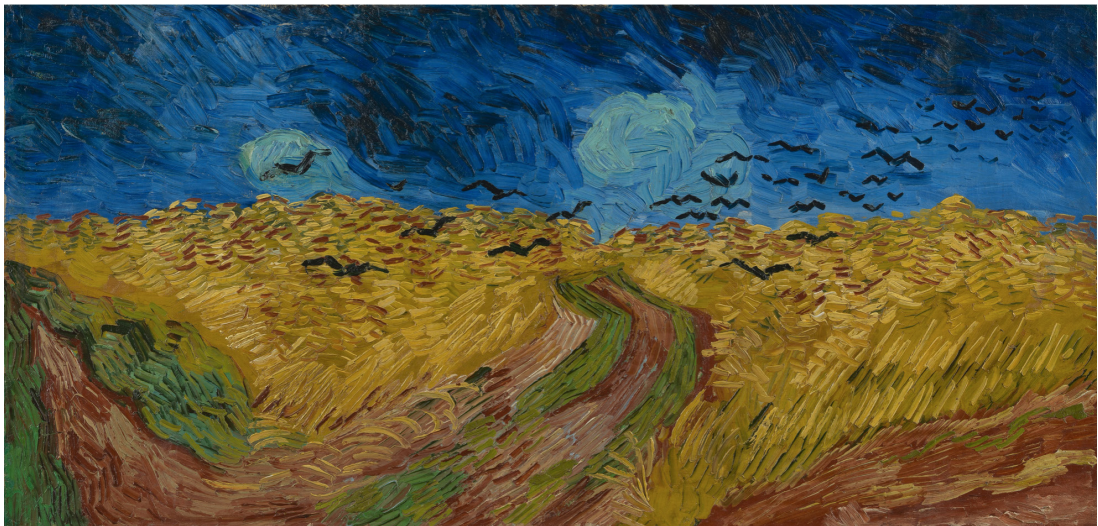


Figure 8. Van Gogh, <Wheatfield with Crows>, 1890, Oil on Canvas, 50.2 x 1030cm, Van Gogh's Museum, Amsterdam

무는 보는 이에게 경외감을 주거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인다. 화면 왼편 전면에서 있는 나무도 오랜 세월 풍파에 시달린 듯 가지들이 부러지거나 처져있다. 반 고흐는 상처받고 누군가의 눈길을 끌기에는 부족하게 보이는 소나무들에서 반 루이스달의 그림이 연상된다.

반 고흐의 <까마귀 나는 밀밭>을 보자.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동시에 동시에 그린 의도를 놓여 여러 논란이 벌어지는 작품이다.¹¹ 그림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그림 자체만 보자면 짙고 어둡이 깔린 하늘과 하늘을 나는 까마귀 그리고 그 아래에 펼쳐진 밀밭은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가 그림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마을과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들판이다. 밀밭의 크기나 느낌으로 보자면 그가 그린 다른 밀밭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반 고흐 자신과 마을 주민이 늘 걸어 다니던 흔한 밀밭과 그 사이에 난 길이 그의 붓끝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¹²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들은 대부분 특별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조금은 부족한 것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반 고흐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Figure 9. 반 고흐의 밀밭이 배경이 되는 풍경, 오베르

11) 곧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어두운 하늘과 까마귀를 그리고 그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은 끝이 막혀 있다. 비경가들 가운데 일 부는 이 작품을 두고 반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그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설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그림에 표현된 길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꺾여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가 그린 마지막 작품도 아니다(라영환, 2015a:127-135).

12) 1890년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오베르(Auvers)에서 70일을 지내는 동안 반 고흐는 70여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이때 그가 그린 그림이 대부분 풍경화였다. 이 시기 반 고흐가 그린 인물화는 12점뿐이었다. 오베르에서 반 고흐가 그린 풍경들은 대부분 오베 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가집, 덩불, 밀밭, 건조 들판과 골목길 같은 것들이었다. 이 시기 그린 그림들 대부분이 습작이라 몇몇 작품들을 빼고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그림의 소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반 고흐가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1880년부터 지속적으로 그의 시선을 끌었던 부족한 풍경들이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Riner Maria Rilke, 1875-1926)는 반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였다(Rilke, 1985:20). 그의 주장과 같이 반 고흐의 풍경화는 대상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시선을 담아내고 있다. 반 고흐에 의해서 그렇게 초라한 대상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조명된 것이다.

4. 맺는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반 고흐의 풍경화를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의 풍경화가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의 전통과 맞닿아 있음을 밝혔다. 17세기 네덜란드 풍경 화가들은 반 루이스달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초라한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반 루이스달이 묘사한 자연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반 루이스달은 부서진 채 쓰러져 있는 나무를 주목하였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부서진 나무와 같이 쓰러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총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에게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반 고흐의 풍경화가 초라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은 바로 이러한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 고흐는 본격적으로 전업 화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부터 줄 곳 노동하는 사람들과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반 고흐가 그린 인물화의 주인공들은 주로 광부와 직조공 그리고 농부들과 같은 소시민이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반 고흐의 관심은 그의 풍경화에서도 나타난다. 반 고흐는 그가 노동하는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풍경화를 그릴 때 무엇인가 부족한 경치를 화폭에 담았다.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이름 없는 풀, 덩굴, 나무 밑동, 풀뿌리,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초라한 잡목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잡목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계달의 장막처럼 검은 피부도 사랑하는 이의 눈에는 성전의 휘장보다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다. 반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 릴케의 말처럼 그의 풍경화는 대상을 바라보는 이의 시선을 담고 있다. 반 고흐의 작품에 나오는 이러한 특징은 우리에게 반 고흐에게 있어서 그림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었음을 가르쳐 준다. 선(善)은 거창하지 않은 작은 섬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확장된다. 반 고흐에게 있어서 작은 섬김은 그림이었다.

이번 연구를 기초로 반 고흐의 작품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확산하였으면 한다. 반

고흐의 작품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최근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지만, 반 고흐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반 고흐의 개별 작품들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그의 서신들 그리고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과 서적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광기와 자살에 대한 재해석도 요청이 된다. 광기와 자살은 반 고흐의 삶과 예술을 기독교적으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명을 따라 살았던 반 고흐의 삶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반 고흐에 대한 이러한 시도들은 예술과 소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크리스천 미술가들에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일과 소명을 연결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라영환 (2015a). **반 고흐, 삶을 그리다**. 서울: 가이드포스트.

[Ra. Y. H. (2015a). *Van Gogh, Drawing the Life*. Seoul: Guidepost]

라영환 (2015b).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통해서 바라본 고흐의 소명. **신앙과 학문**, 20(2), 69-90.

[Ra. Y .H. (2015b). Van Gogh's Calling in light of <Still-life with Open Bible>, **Faith & Scholarship**, 20(2), 69-90.]

라영환 (2015c).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정신. **신앙과 학문**, 20(4), 69-85.

[Ra. Y. H. (2015c). The life and Art of Van Gogh: The Spirit of Prostantism in the Works of van Gogh, *Faith & Scholarship*, 20(4), 69-85.]

라영환 (2019).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4(4), 51-74.

[Ra, Y. H. (2019). A Study on the Art of Vincent van Gogh and His Calling. *Faith & Scholarship*, 24(4), 51-74.]

서성록 (2013).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연구. **예술과 미디어**, 12(3), 7-13.

[Seo. S. R. (2013). A Study of Van Gogh's Potato Eaters. *Art and Media*, 12(3), 7-13.]

서성록 (2014). 이상적 아름다움과 손상된 아름다움. **월드뷰** 27(11), 18-21.

[Seo, S. R. (2014), The Ideal Beauty and The Broken Beauty. *Worldview*, 27(11), 18-21.]

서성록 (2016).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 종교개혁의 열매. **월드뷰** 29(9), 22-29.

[Seo, S. R. (2014), The Seventeenth Century Dutch Landscape Paintings, the fruit of the Reformation. *Worldview*, 29(9), 22-29.]

서순주 (2015).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서울: 에이엔에이.

[Seo, S. J. (2015), *Millet, Barbizon & Fontainebleau*. Seoul: A&A]

심양섭 (2011). 빈센트 반 고흐 미술의 기독교적 의미. **신앙과 학문**, 16(3), 147-172.

[Shim. Y. S. (2011). The Christian Meaning of the Art of van Gogh. *Faith & Scholarship*, 16(3), 147-172.]

안재경 (2014). **고흐의 하나님**. 서울: 홍성사.

[Ahn. J. K. (2011). *Van Gogh's God*. Seoul: Hongsungsa.]

<번역서>

이세진 역 (2006). **반 고흐 효과: 무명화가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Heinrich, Nathalie (1998). *La gloire de Van Gogh: essai d'anthropologie de l'admiration*. 서울: 아트북스.

[Heinrich, Nathalie (1998). *La gloire de Van Gogh: essai d'anthropologie de l'admiration*. Paris: Les Derniers Publications.]

백승길, 이종승 역 (2003). **서양미술사**. Gombrich (1995). E. H. The Story of Art. 서울: 예경.

[Gombrich, E. H. (1995). *The Story of Art*. London: Phaidon]

공경희 역(2014). **반 고흐의 정원**. Skea, Ralph (2010). *Van Gogh's Garden*. 서울: 디자인 하우스.

[Skea, Ralph (2010). *Van Gogh's Garden*. London: Thames & Hudson.]

<해외문헌>

Corby Finny, P. (Ed). (1999). *Seeing beyond the world: Visual Art and the Calvinistic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Gogh, Vincent (2000a).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1*. London: Thames & Hudson.

Gogh, Vincent (2000b).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2*. London: Thames & Hudson.

Gogh, Vincent (2000c).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3*. London: Thames & Hudson.

Meedendorp, Thei. (2015). *The Vincent van Gogh Atlas*. Amsterdam: Van Gogh Museum.

Neifeh, Steven. & Smith, Gregory W. *Van Gogh: The Life*. New York: Random House, 2011.

Rookmaaker, H. R. (1994).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Leicester: Apollos.

Prak, M. (2007).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ner, Maria Rilke. *Letters on Cézene*. New York: Fromm International Publishing, 1985.

Walter, F. Ingo (2015). *Van Gogh. Köln*: Taschen.

예술과 복음: 반 고흐의 풍경화에 대한 연구

Art and the Gospel: A study on Vincent van Gogh's Landscape Paintings

라영환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관점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살펴보는 데 있다. 반 고흐는 1880년부터 그가 사망하던 1890년까지 10년간 2,0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풍경화였다. 반 고흐의 풍경화는 노동하는 사람들과 자화상 그리고 초상화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반 고흐가 화가의 길로 들어선 이후 자연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그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반 고흐가 그린 풍경화들은 대부분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무엇인가 부족한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을 것들이라는 점이다. 그는 덩불, 나무뿌리, 모래 언덕, 잡초, 숲속의 잡목과 같은 것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가 이렇게 무엇인가 결핍된 풍경들을 화폭에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 반 고흐의 풍경화는 반 고흐가 가난한 사람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것처럼 반 고흐도 긍휼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다. 반 고흐의 풍경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그의 신앙적인 배경이 되었던 네덜란드 개혁파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반 고흐의 풍경화에 나타나는 독특성은 미술사적으로 보자면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전통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저변에 깔린 그리 반 고흐의 신앙적 배경이었던 기독교 복음에서 찾아야 한다.

Key words : 반 고흐, 풍경화, 복음, 기독교 세계관,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 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School Community Recognized b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김종훈 (Jonghun Kim)**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community that teacher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recogniz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eight teachers who have worked or had worked at various type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s a results, for the teachers, the ‘community’ meant a field that shared common values and educational philosophy, a place where conflict and problems (must be) solved, and a natural product as time goes by. Also, findings include that a sense of community is tremendously shaken when the identity of teachers is threatened by the name of the community, when a colleague or a student, who are the supportive base of life, left a school, and when the school’s narrative is not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article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o build a healthy community for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Key words :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community, school community, meaning-making

* 2020년 01월 15일 접수, 03월 01일 최종수정, 03월 17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14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학술대회(2019년 11월 30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성신여자대학교(Sungshin Women’s University) 교육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2, ilovetem@sungshin.ac.kr

I. 들어가며

최근 교육학 연구 및 실천 분야에서 ‘교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교사학습 공동체(teacher learning community), 전문적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등 교사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여러 개념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것은 이러한 관심을 잘 반영한다.

사실, 지난 1980년대까지 교사의 실천 행위는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전통적으로 교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교사양성기관(주로 교·사대)이 전공 교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면, 이를 습득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기술·합리성 모형’(technical-rationality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사의 역할은 주로 ‘지식 전달자’(knowledge deliverer)에 국한되었다. 이후 Schön(1983)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천 행위에 대한 성찰(reflection), 이를 통한 교사의 학습(teacher learning)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교사의 실천은 개인을 단위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로, 교사 전문성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다. 교사를 하나의 개인으로, 가르침(teaching)을 개인 단위의 실천으로 이해하려는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관점에서 교사의 삶과 실천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듯, 교사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며(Darling-Hammond & Richardson, 2009), 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성장과 전문성 계발이 학교교육을 긍정적으로 개선(김주영·장재홍·박인우, 2018; 박승렬, 2015)한다는 것이 교사교육에 대한 최근의 입장이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각 학교마다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는 하나, 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보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공동체를 통해 교사의 가르침과 삶을 이해하려는 입장 또한 다르지 않다. 더욱이, 기독교라는 신앙의 바탕, 교육에 관한 공통의 관심사, 대안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체에 대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관심은 여타의 학교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기독교 대안학교는 다양한 구성원들(학교 리더십,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을 충실히 구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대략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5년 주기로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황을 조사해 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 따르면, 1차 조사가 진행된 2006년에는 59개, 2차 조사인 2011년에는 121개, 그리고 3차 조사가 이루어진 2016년을 기준으로 265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운영 중에 있다(박상진·이종철, 2019). 이와 같이 지난 20여년에 걸쳐 기독교 대안학교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관련 연구 또한 근래 들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박상진, 2010),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한 연구(강영택, 2010; 이은실·강영택, 2011; 함영주, 2015 등),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에 관한 연구(박상진 외, 2019)나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 연구(박상진 외, 2015) 등이 있다.

한편, 교육학 연구 분야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김선요, 2013; 이정미, 2015).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갖는 의미와 특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김선요, 2013)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조직·운영 중인 교사 공동체(teacher community)에 대한 연구(이정미, 2015)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교사들이 인식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독교 대안학교, 즉 학교의 핵심 구성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학교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로서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 공동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하는 일은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학교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개념을 갖지도, 고정된 의미를 갖지도 않는다는 점이다(김종훈, 2018). 공동체는 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에 따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또한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과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는 변하고, 발전하며, 새롭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가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특정한 의미를 형성하는 일, 즉 의미형성(meaning-making)은 교사 개인이 학교를 통해 경험한 바,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구성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자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한 개인이 특정한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학습’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형성은 학습과 동일한 개념이다(Hein, 1999). 또한, 학습의 과정으로서, 교사가 특정 대상에 관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다양한 경험과 그를 둘러싼 상황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Dewey & Bentley, 1949/1991). 그러므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는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아이들을 가르치며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경험,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 등에 기초를 두고 자신과 공동체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의 역동적인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글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덟 명의 교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삼아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교사의 의미형성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의미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경험한 삶의 다양한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개인이 형성한 의미는 다시 ‘공동체’와 관련된 교사의 삶과 실천 행위에 방향성을 부여(김종훈, 2017, 2018; Turner, 2015)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독교 대안학교 속에서 살아가는 교사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탐색할만한 가치가 있다. 질적인 접근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미형성을 살펴보려는 이 연구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기독교 대안학교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학교 공동체와 관련하여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만들어 온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 연구에 참여할 교사들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도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연구의 주제와 방향에 적합하면서도, 기독교 대안학교의 유형에 따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또한, 가급적 교육 경력과 연령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독교 대안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면담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학교를 사직한 전직 교사 2인(아래 Table 1에 former로 표기)도 연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이야기에다 귀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온 전·현직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전원이 남성이었기에, 여교사의 입장에서 기술되는 기독교 대안학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는 이 글에 담아낼 수 없었다. 이는 참여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이렇게 선정된 8인의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정보는 아래 Table 1에 기술된 바와 같다. 교직 경력, 소속 학교급, 전·현직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유목적적 선별법(purposive sampling, Maxwell, 1996)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Participants

details participants	sex/age	teaching career (years)	grade to teach (in 2019) *	current/former **
A	M / 33	3	M 1	current
B	M/ 32	2	M 1	current
C	M / 39	10	M 1-3	current
D	M / 33	6	M & H	current
E	M / 43	8	E 1	current
F	M / 40	12	H 1	current
G	M / 34	4	E 4-6	former
H	M / 36	8	H 3	former

* E: elementary school, M: middle school, H: high school

** 'former' refers to a teacher who left school as of 2019.

2. 자료 수집 방법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는 면담(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로 온라인(홈페이지)과 학교별 홍보 책자 등을 기초로, 학교 설립의 주체·목적·시기, 교육 목적, 학교 교육과정 및 특색 활동, 구성원과 최근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각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질문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여 교사들과의 면담에 임하였다. 질문은 주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가진 공동체에 대한 인식,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 자신: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나 신앙의 여정, 학교에 합류하게 된 계기, 현재 맡고 있는 학년이나 업무 등
- 학교 근무: 근무 기간, 보람, 어려움, 학교의 핵심 가치나 비전, 그에 대한 개인의 생각 등
- 학교 리더십(이사장, 교장, 교감 등)과의 관계: 리더십의 교육철학, 관계, 함께 하는 시간이나 기회, 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기대하는 바,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등

- 동료 교사와의 관계: 일상적인 관계, 업무 측면, 수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수업협의, 팀티칭 등),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 본이 되는 동료 또는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 사례 등

Seidman(2006: 31)에 따르면, 면담의 목적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거나, 미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함이 아니며, 다른 이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이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질문을 매개로 연구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에 관한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연구자는 그들의 답에 따라 면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수행된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Patton, 1990)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8인에 대한 면담은 총 2회(2019년 7월과 8월)로 나누어, 한 명의 교사별로 1시간에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이를 전사(transcription)하여 분석을 위한 원자료(raw data)로 삼았다.

3. 자료의 분석과 해석

수집된 자료는 면담이 종료된 이후, 즉시 분석되기 시작했다. 면담 자료와 함께,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자의 현장 노트(field notes)와 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속해 있는 학교(교육)와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교육과정 문서, 학교 홍보 자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활동 자료 등)가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자는 이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언급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은 지속적인 비교와 검토의 과정, 원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기술적 범주(descriptive category)는 보다 포괄적인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해석적 범주(interpretive category)로 다시 정리되었다(Miles & Huberman, 1994). 개념이 기술적 범주로, 다시 기술적 범주가 해석적 범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모든 유의미한 자료들이 범주에 반영되는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원자료에 대한 검토를 반복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해석적 범주는 다음 III, IV장에 기술된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여 그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공립학교와 기독교 대안학교 근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력 교사 1인과 질적 연구 분야의 전문가 1인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조

언과 의견을 받아 최종적인 수정 작업을 거쳤다.

III.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가 형성해 온 ‘학교 공동체’의 의미

1. 가치와 철학이 공유되는 장(場)

면담에 참여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있어 학교라는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가치와 철학이 공유되는 장’이었다. 학교마다 추구하는 교육철학, 우선시하는 가치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학교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을 통해 본인이 속한 공동체가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치의 공유라고 생각해요. ...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중략)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바꾸어버리는 거죠.” (F 교사)

“일단 ○○학교에서 들려주는 얘기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침에 대해 저희가 연수를 한 학기 동안 종일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A 교사)

“... 공통된 가치가 있었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이 사람들이랑 잘 맞는구나.’ 그런 게 있었죠. (중략)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꿈을 함께 꾸자.’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F 교사)

실제로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저마다 독특한 교육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다. 우리가 어떤 특정 학교를 떠올릴 때, 동시에 그 학교를 특징짓는 어떤 이미지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기독교 대안학교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의 설립 초기부터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아닌 이상,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치와 철학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온 것이라기보다, 학교의 설립자나 리더십에 의해 이미 형성되었거나, 그래서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의 철학과 방향성

에 동의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학교의 철학과 방향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동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학교 철학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학교 철학에 공감한다는 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같이 공유하려 했던 것 같아요.” (G 교사)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연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학교에 있었지만, 기독교적 철학이나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 교사 선생님들에게 참 배울 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배울 점인 것 같아요.” (A 교사)

그러나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아무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교사가 학교의 철학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거기에는 나름의 타협과 절충의 과정이 필요했다.

교사들이 학교에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기존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명 의식이 뒤섞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과 소명 의식은 실질적으로 현재 속한 학교에 발을 딛게 된 이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학교에 오게 되지만, 학교는 이미 나름의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타협과 절충(주로, 교사 입장에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교사는 공동체의 일부로,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저도 (이 학교에) 5년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라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고 ... 사명, 소명이 ○○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서 ... 이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B 교사)

요컨대,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유된 가치와 철학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가 인식하는 공동체성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와 철학이 교사 개인의 소명과 신념이 만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2. 갈등과 차이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공간

여타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대안학교 역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교사로 한정해 보더라도, 학교에 오게 된 이유와 과정, 교육에 대한 관점, 가르치는 스타일,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등이 저마다 다르다. C 교사의 말대로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기독교 대안학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같이 빛을 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될 때, 거기에는 차이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와 갈등은 다른 여타의 구성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상호작용해야 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각각 학년마다 선생님이 다르니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라는 그 낯선 분위기에서 그런 관계 왜 그걸 따라 해야 해? 내가 저 선생님이랑 다른데... 내가 그걸 따라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내 성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것들로.” (G 교사)

그러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은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오히려 교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다지는 데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함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에게 자기 성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공통된 가치가 있었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 사람들이랑 잘 맞는구나.’ 그런 게 있었죠. 거기에서는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나누고. 그래도 그곳이 토론의 장은 아니니까. 일로 만나는 것 외에도 많이 만났거든요.” (F 교사)

“그것(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러면서 ... 아,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과제인 거 같아요.” (F 교사)

이러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교사들은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굉장히 친밀하게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도 싸워야 하고,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싸운다고 해서 제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서 저는 공동체가 나뉘 형성되어가고 있다.” (F 교사)

“갈등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나. 요즘은 그게 화두예요. ... 저희의 가치관의 확인은 면담으로 충분히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다룰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냥 그것이 아이들에게서 어떠한 이야기가 될 때 저희가 이렇게 자세를 취했던 거 같아요. ...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D 교사)

많은 대화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좁혀가려는 노력은 리더십과 교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리더십과 교사 집단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종종 발생한다. H 교사가 속한 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자신들을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 리더십이 교사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A 교사는 선배 교사 혹은 학교의 리더십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할수록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보았다.

“만남이 좀 잦아요. 가볍게 만나는 시간이 좀 있어서. 들어주시는 분위기가 가장 크지 않나. 보통 업무, 그러니까 직장이면 그렇게 상사가 들어주시는 시간이 작잖아요. 만나는 시간도 서로 바쁘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볍게 대하면서 그러는 게 그걸 애초에 갈등 상황을 막지 않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다면 따로 면담을 하시지 않나.” (A 교사)

갈등과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다. 다만 공동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가는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성을 빚어가기도 한다.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처한 여러 여건*을 고려해볼 때, 기독교 대안학교 공동체에는 많은 갈등 요소들이 내재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룰 것인지가 학교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든다. 여러 갈등 상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신앙’을 기

* 탈종교화 현상,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 공교육의 강화(박상진·이종철, 2019: 115-124), 재정과 관련된 어려움(박상진 외, 2017) 등

초로, ‘교육’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세워진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겼다. 이렇듯 기독교 대안학교는 갈등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또 해결해 가야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3. 오랜 시간이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산물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학교는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면담 참여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이러한 장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장치는 크게 교사 개인에 대한 접근 방법(아래 A 교사의 면담)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아래 B 교사의 면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먼저 ○○학교는 신입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많이 연구하셨고, 그리고 많이 변해오는 과정에서 신입교사 선생님도 어떻게 우리 학교에, 공동체에 같이 속해질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연수 듣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A 교사)

“힘든 일들 예를 들어서 도보여행이라던가, 지리산 종주여행이라던가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부터 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모여서 함께 피드백해주는 시간도 자주 갖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서로가 알려주고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중략)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게 되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 꼭 피드백을 해요. 이번 여행 때 우리가 어땠더라. 이번 여행지 선정이나 예상 집행,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영역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땠고, 다음번에는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행을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해요.” (B 교사)

각 학교는 이러한 개인 혹은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장치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때로는 공식적인 방법보다 비공식적이고 우연한 기회를 통해 공동체성이 형성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우선 “사람한테는 시간이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들 안에서 다져지고 교사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는 G 교사의 말처럼, 공동체의 형성은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함께 하고. 저희는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커피 한 잔도 같이 마시고 뭐 있을 때 다 모이고, 이런 교무실의 문화가 좋은 거죠.” (C 교사)

“저는 학교 초창기 때부터 있었으니깐. 그분들이 저를 아니깐. 그 신뢰를 쌓는 기간들이 이제 더 많죠.” (E 교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성은 모종의 의도된 방법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편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이 … 간단하게 사교 모임처럼 책 읽기를 하거든요. 책 읽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마무리, 짧게나마 학기 중에 어려웠던 것들 얘기 나누고. 그런 게 공식적으로 좋았고. 비공식적으로는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과 가볍게 스포츠를 즐겨요. 배드민턴 하거든요. 그런 것 하면서 ‘취미생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그런 취미를 같이 함께하면서도 연장이 되니깐.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공동체에서 같이 흡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A 교사)

“함께 했던 교사들과 “의도치 않게 공동체가 만들어졌었죠. 보이지 않는 공동체였죠. 그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좋은 교육하면 서로 위로도 얻고.” (F 교사)

공동체성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것이라는 교사들의 말은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려고 하거나, 학교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획일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냥 모이는 것, 어떻게든. 좋은 사람들끼리 조금씩, 조금씩 모이는 것. 그게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지만, 어디 가면 있더라. 가면 또 반겨주더라.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중략)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 한 교사의 생각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IV. 교사들이 형성해 온 공동체의 의미를 위협하는 요인

앞 장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면담 과정에

서 교사들은 학교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이 형성해 온 공동체의 의미를 무너트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학교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내용이었다. 이에 이하 내용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형성해 온 공동체의 의미를 위협하는 요인을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교사의 존재와 자아정체성에 대한 침해

교사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근무하며 교사로서 가장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 대부분은 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을 때, 그럼으로써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제가 더 제 꼴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G 교사)

“○○(학교)에서 오래 있었던 이유는 … 수업의 자율권이 많이 보장이 돼요. … 선생님들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F 교사)

특별히 교사의 정체성은 가르치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교사에게 있어 가르침은 정체성이 형성되고, 확인되는 일이자, 자아가 반영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 역시 가르침을 통해 교사로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학년을 맡았는데, ○학년은 국어가 선택 과정이고, 그래서 교과서는 폼으로 놓고 제가 교과서 새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꿈에 그리던 수업을 거기서 다 해본 것 같아요. …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컸어요.” (F 교사)

“이제 아이들 어떤 교육적 보람으로는 학교에서 충분히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절제를 해야 할 필요 없고. 또 아이들과 충분히 그렇게 이제 교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뭐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로서의 이제 보람됨은 쑥 높아지죠.” (E 교사)

그러나 학교라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이 교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발생할 때, 경우에 따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사가 ‘나 자신’이기를 포기하도록 요청받을 때,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교사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그 정체성에 위협을 받게 되면 개인이 인식하는 공동체성도 함께 위협을 받음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사의 정체성은 가르침의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있어 가르침이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에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교사는 그것을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저의 수업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제 교사로서 생각하기로는 수업은 교사의 재량이고,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재량껏 자신의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학교의 가치관도 물론 존중하고 하는데, 제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라는 교사에 의문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D 교사)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사 개인이 자신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것은 교사에게 있어 학교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일부 교사는 실행에 옮길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학교를 옮기고, 우리(교사)가 학교의 주체적인 입장으로 근무...” (F 교사)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학교를 옮길만한 큰 사건.” (D 교사)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 교사는 양보할 수 없는 자신만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다. 교사에게 있어 그것은 ‘수업에 대한 자율과 권한’인 경우가 많았다. 학교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 선을 넘을 때, 교사로서의 존재와 정체성은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성도 역시 흔들리고 만다.

2. 구성원의 이탈로 인한 공동체의 균열

교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교 공동체에 소속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교사로서의 삶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인해 이 기반이 흔들릴 때,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교사가 학교를 공동체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의 핵심에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교사가 학교를 공동체로 인식할 때,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 예컨대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동체’를 좁게 정의할 때, 심지어는 학교 리더십을 제외한 일반적인 교사들만을 지칭하기도 했다.

다음 C 교사의 말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교사 공동체를 통해 극복된 사례를 잘 보여준다.

“가장 큰 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학원처럼 생각하는 것이 좀 있었다. 이게 자기 뜻이 아니면 빼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대개 너무 그 해가 너무 강했었고. (중략) 그러면서 많이 지쳤던 것 같고 나와서 공교육에서 기독교 학교를 바라보고 우리 학교를 바라보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저희 교사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했던,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죠.” (C 교사)

이렇듯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교사, 그리고 그들과 맺은 관계는 교사에게 있어 공동체 안에서 교사로 살아가는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지지기반으로서 동료와의 관계에 원치 않는 단절이 생기면, 교사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잃게 되고 만다. 지지기반으로서 동료를 잃는 것은 결국 나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F 교사가 겪은 사례는 이와 같은 지점을 잘 보여준다.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분이예요. 진짜 굼직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가시게 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 나를 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내 학교라 생각하고 헌신적인 분들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던 분이 나가시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죠. (중략) 힘들게 짐을 짊어지고 일을 한다는 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수습해가는 일인데, ‘좋은 동료를 잃고 수습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F 교사)

안타깝게도 이 교사에게 있어, 의지했던 동료가 학교를 떠나게 된 일은 리더십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에 대해 불신하고 실망하게 된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 Bohl, 1995; Woods, 1993)이었다. 삶의 지지기반으로서 동료 교사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결정적 사건을 통해 교사는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한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의 특성상, 정을 주고받았던 아이가 학교를 떠나는 일 역시 교사로서의 삶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아, 정말 교사는 이렇게 그런 자신의 소명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가. 학생들에게 좀 감사했어요.”라고 이야기한 A 교사의 말처럼, 교사들은 대부분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로 오게 되었고, 교사로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던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은 교사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잖은 상실감과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들, 학교에 대해 오해를 갖고 이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나, 이것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오해가 비롯되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사실 그 때가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D 교사)

교사의 삶은 학교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 구성원들과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다.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 애정을 담아 가르치는 아이들,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는 학부모와의 좋은 관계 형성이 교사로서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교사의 공동체(성)는 흔들릴 위험에 처한다.

3. 공동체 내러티브의 단절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요인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 본 두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희생을 요구받게 될 때, 그리고 교사로서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관계에 원치 않는 단절이 생겼을 때, 교사 개인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과 달리 학교라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공동체성이 지속되기 위해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만들어 온 이야기(내러티브, Clandinin & Connelly, 2000; Connelly & Clandinin, 1988)가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학교가 만들어 온 이야기를 다음

*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이란 질적 연구의 한 갈래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바꿀 만큼 중요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건을 의미함(김영천, 2015: 188).

세대에 전수하는 일은 일반적인 학교와 비교하여 교사와 학생이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특성상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해외 공동체들이나 비슷하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 보면서 많은 자극도 받고 하는데 도전도 받고 하는데…” (B 교사)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게 아쉬운 점인 거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연차를 쌓고 그대로 이동하고 그것들로 가지고 순환을 하다 보니 대개 많은 아이디어도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더라.’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 좀 줘봐 어떻게 해봐 선생님들끼리 연락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그냥 그 학교만을 위한 선생님인 게 많아요. (중략) ○○(학교 이름)같은 경우도 지금 설립할 때부터 남아계신 선생님이 없으세요. 그건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어떻게 운영했었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G 교사)

면담에 참여한 저경력 교사들은 선배 교사로부터 학교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학교의 문화, 학교가 일구어 온 역사를 전해 듣는 과정을 통해 학교 공동체 안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그들 자신에게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경력이 쌓여 선배 교사의 위치에 가게 되었을 때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A 교사의 말은 학교의 이야기가 전수되는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보여준다.

한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 온 이야기를 전수하는 과정에는 ‘학교 리더십의 이양’이 포함되기도 한다. 설립자 혹은 오랜 기간 리더로서 학교를 이끌어 온 사람이 가진 생각과 철학은 학교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리더십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학교의 공동체성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일은 학교 공동체의 존속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장)이 연세가 많으세요. 건강도 좋다고 할 수 없고, 설립자이기도 하시고 공동체의 대표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이 안 계신 뒤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이후를 위해서 더 잘 쌓아놔야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우리 스스로들을 단단하게 쌓아놓고 더 열어놓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일단은 언젠가 올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젯거리라기보다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B 교사)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를 수 있지 않을까.” (C 교사)

어떤 학교의 역사가 20년 되었다고 해서, 이 학교 ‘공동체’가 반드시 20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바뀌고, 새로운 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 그 동안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만들어 온 이야기(공동체성, 문화, 축적된 철학과 가치 등)는 사라질 수도 있다. 학교 공동체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저절로 이어져 내려가지 않는다. 개인 차원의 틀을 넘어서서 학교라는 공동체 차원에서 생각할 때,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학교의 이야기,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유지되고 전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V. 논의 및 제언

공동체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고정된 하나의 개념을 갖지 않는다.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는 다르며, 하나의 학교 내에서도 시간과 역사가 축적됨에 따라, 그것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따라,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 의미는 변하고, 더해가며,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한편으로 교사들이 학교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형성해 온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있어 ‘학교 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요컨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있어 학교 공동체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장이었으며,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공간이자,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산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학교를 통해 형성해 온 공동체성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를 침해할 때, 구성원(대표적으로, 동료 교사나 학생)이 공동체로부터 이탈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형성해 온 고유의 이야기가 단절됨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고 보았다.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의 구체적 면면은 다를 수 있으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공동체의 의미와 이에 대한 위협 요인을 탐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독교 대안학교가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대안학교, 특히 학교의 리더십(이사회, 교장, 교감 등)은 교사들이 공동체와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회는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동료 교사들과의 비

공식적·비형식적인 관계를 통해 부여되는 것이었다. Turner(2015)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은 그가 형성한 의미를 토대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학교라는 공동체에 관하여 좋은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시되는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교사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즉,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에게 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동료 교사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교사 B 면담 중에서)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는 “학교 안에서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고, 학생 때문에 힘들고, 리더십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교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서로 다 용납하고 함께 그런 공동체”(C 교사)다.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루어 온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토대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의미를 형성해 간다.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좋은 인식을 획득하게 될 때 이렇게 형성한 의미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안학교 공동체는 그 학교가 형성해 온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여러 위협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탐색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개인의 노력보다도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면담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학교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잦은 회의와 긴 시간을 요하는 숙의(熟議) 과정이 이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성찰하고 공유할수록,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을수록 업무에서 오는 만족감과 보람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업무 피로도 또한 높아지거나 사적인 삶(가정생활 등)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예로써,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성과 대안성을 추구할수록 학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되나, 이것이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존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때, 학교 운영의 방향성에 있어서 선택의 딜레마를 겪고 있음이 여러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발견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작은 학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것이 학교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운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절감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공동체 차원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일을 통해 접근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연구는 여덟 명의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나,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양상을 보다 깊

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자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이미 소진될 대로 소진된 사람들”(H 교사)에게 공동체에 대해 좋은 의미를 만들어가도록 권면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제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회의감을 갖기도 하였다.

“한창 다 사르고 재가 나왔는데 거기에다 또 불 때는 건 쉽지 않죠. 오히려 판을 바꿔줘야겠죠. 판을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을 담아주고, 그들도 그렇게 대우해줘서 ‘refresh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께도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H 교사)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갖게 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의 이미지 중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떠날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교사들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으로 인해 학교에 등을 돌리기도 했고, 또 다른 교사들은 자신의 꿈(대안교육과 관계가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을 이루기 위해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대안학교가 가진 불안정한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여전히 학교에 몸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동료 교사와 만들어 온 끈끈한 관계,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면담을 마치며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서 학교 공동체에 바라는 바’에 관하여 한 교사가 했던 말은 이 글이 끝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담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간다는 건, 거기서 선생님을 한다는 건 다른 거 보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돈이나 여유나, 삶의 질이나. 이런 건 아니라 사명이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명, 거기서 오는 좋은 피드백,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뭔가 주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서 역할이 교사, 가르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 학교에서 뭔가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월급 안 되고, 일의 양(을 줄이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한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를 정말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G 교사)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 동료 교사와 맺은 관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학교를 ‘공동

체’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체성을 이루는 요소들이 흔들리거나 위협을 받게 될 때, 교사들의 공동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기독교 교육, 대안교육, 학교에 관하여 저마다 다른 이해, 가치, 철학,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힘은 결국 소명 의식, 동료애,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교사들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택(2010).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15(1), 31-58.
- [Kang, Y.-T. (2010).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outcome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Faith & Scholarship*, 15(1), 31-58.]
- 김선요(2013).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미인가 기독교 대안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0, 127-151.
- [Kim, S.-Y. (2013). A study of law and legislation system for supporting alternative education focusing on unauthorized community of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SWU, 20, 127-151.]
- 김영천(2015).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2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Kim, Y. (201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I: Methods* (2nd Ed.). Paju: Academy Press.]
- 김주영·장재홍·박인우(2018).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교사협력정도, 수업개선활동, 교사 효능감, 교직만족도 비교 분석. **교사교육연구**, 57(1), 1-15.
- [Kim, J.-Y., Jang, J.-H., & Park, I.-W. (2018). Co-operation, activities to improve classes,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satisfaction based on participation in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Teacher Education Research*, 57(1), 1-15.]
- 김종훈(2017). 교사들이 형성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 탐색. **교육과정연구**, 35(4), 281-301.
- [Kim, J. (2017). A narrative inquiry into teachers' meaning-making of 'curriculum reconstruc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4), 281-301.]
- 김종훈(2018). 교사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의미: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연계와 협력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6(3), 29-47.
- [Kim, J. (2018). The meaning of community as formed by teachers: A case study of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in a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3), 29-47.]
- 박상진(2010). 기독교대안학교 유형화 연구. **장신논단**, 37, 153-187.
- [Park, S. J. (2010). A study on type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37, 153-187.]

- 박상진·김창환·김재웅·강영택(2015). **기독교학교의 미래 전망** (기독교학교교육연구신서 13).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Park, S. J., Kim, C. H., Kim, J. W., & Kang Y. T. (2015). *Future prospective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Christian schooling research series 13).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 박상진·이길재·최용준·강영택(2019).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기독교학교교육연구신서 15).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Park, S. J., Lee, G., Choi, Y. J., & Kang, Y. T. (2019). *Education finance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Christian schooling research series 15).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 박상진·이종철(2019). **당신이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5년마다 알아보는 기독교대안학교의 현황**(제3차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 서울: 부크크.
- [Park, S. J., & Lee, J. C. (2019). *All tha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Statu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every 5 years*(The 3rd survey o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Seoul: BOOKK.]
- 박승렬(2015). 교사 학습공동체에서의 숙의가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617-644.
- [Park, S.-R. (2015). Implication of the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deliberation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617-644.]
- 이은실·강영택(2011). 기독교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6, 418-515.
- [Rhee, E. S., & Kang, Y.-T. (2011). A qualitative study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graduates on their perceptions of the educational performance.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6, 418-515.]
- 이정미(2015). 기독교대안학교 교사공동체의 집단적 수업성찰 사례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7, 231-263.
- [Lee, J. (2015). Case study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collective reflection on their teaching.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231-263.]
- 함영주(2015). 기독교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딜레마 내러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7, 459-483.

- [Ham, Y.-J. (2015). A qualitative research of educational achievements among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graduates. *Theology and Praxis*, 47, 459-483.]
- Bohl, N. (1995). Professionally administered critical incident debriefings for police officers. In M. I. Kurke, & E. M. Scrivner (Eds.), *Police psychology into the 21st century* (pp. 169-188). Washington, DC: APA Publishers.
- Clandinin, J., & Connelly,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CA: Jossey-Bass.
- Connelly, M., & Clandinin, J. (198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s*. NY: Teachers College Press.
- Darling-Hammond, L., & Richardson, N. (2009). Teacher learning: What matters?. *How Teachers Learn*, 66(5), 46-53.
- Dewey, J., & Bentley, A. (1949/1991). *Knowing and the known*. Boston, MA: The Beacon Press.
- Hein, G. E. (1999). Is meaning making constructivism? Is constructivism meaning making?. *The Exhibitionist*, 18(2), 15-18.
- MacIntyer, A. (1981). *After virtue*.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xwell, J.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chön, D.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3rd ed.). 박혜준·이승연 역(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Turner, E. O. (2015). Districts'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 Making sense of race, class, and immigration in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contex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2(1), 4-39.
- Woods, P. (1993). *Critical events in teaching and learning*. London, UK: Falmer Press.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 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School Community Recognized b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김 종 훈 (성신여자대학교)

논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공동체로서 학교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덟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 교사들에게 있어 기독교 대안 학교라는 ‘공동체’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장,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간, 시간이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삶의 지지기반인 동료 교사와 아이가 학교를 떠나는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공동체로서 학교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 구성원들이 형성해 온 공동체의 의미가 무너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의미형성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lternative Life of Christians in the Consumption Society

이상민 (Sang-Min Lee)**

ABSTRACT

The modern society is commonly defined as ‘consumption society’, but sometimes considered as ‘excessive consumption society’ as well. In the modern consumption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consumption, the consumption becomes the individual's purpose and the main factor which constitutes the individual's lifestyle. From this perspective, we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consumption society at first. Then we will indicate the consumer's sentiment and its problems derived from ‘excessive consumption ideology’ in ‘excessive consumption society’, and also determine the features that the consumption culture of the Korean society reveals. Next, we will examine the way of escaping from the eco-crisis which is caused by the excessive consumption as an alternative to consumption society, and the necessity of the ‘de-growth’ and the pursuit of the ‘de-growth society’. Finally, we will diagnose the situation of the Christians in the modern consumption societ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alternative life that the Christians should adopt. This alternative life that the Christians should choose must be shown as the concrete action of behaviors such as self-control of one's desire, a willingness to be inconvenienced and the love of neighbors in order to obey God's command. Especially, it should be revealed as behavior that one does not submit to the consumption desire of the world while everything is not subordinate to one's profit at the same time.

Key words : Consumption Society, Eco-crisis, De-growth, De-growth Society, Alternative Life

* 2020년 01월 02일 접수, 03월 14일 최종수정, 03월 19일 게재확정

** 서울국제고등학교(Seoul Global High School) 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3길 40, 7890jt@gmail.com

I. 서론

‘소비 사회’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처음 사용되지만, 1950~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다. 미국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John Galbraith)는 『풍요한 사회 *The Affluent Society*』(1958)에서 ‘소비 사회’(the consumer society)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미국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Walt Rostow)는 『경제 성장의 제단계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1960)에서 ‘고도 대중 소비 시대’(the high mass consumption ag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미국 심리학자 조지 카토나(George Katona)는 “대중 소비 사회 *The Mass Consumption Society*”(1964)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하지만 ‘소비 사회’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소비 사회, 그 신화와 구조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1970)를 펴내면서, 현대사회를 ‘소비 사회’로 지칭하면서부터이다.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 자크 엘뤼(Jacques Ellul)은 우리 사회에 대해 내려지는 여러 정의들을 분석한 후, 결국 이 정의들이 기술을 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이 정의들 가운데 보드리야르의 ‘소비 사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 표현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설명하는 핵심어가 아니며, 우리 사회는 소비에 의해서 만듦이나 노동이나 생산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밝힌다. 이와 같이, 엘뤼는 ‘소비 사회’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데는 아주 불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소비’ 속에서 기술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광고 기술은 소비를 유발하고, 기술에 힘입어 가능한 대량생산은 소비를 부추기며, 기술적인 물품이 소비할 대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 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Ellul, 2004b: 19). 그럼에도 엘뤼는 보드리야르가 『소비 사회, 그 신화와 구조』에서 인간을 물질화하고 인간을 물질 환경에 얹어매는 기술이 사실상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 속에서의 활동으로 집중시키면서, 모든 것의 현실성을 잃게 하며 모든 것을 ‘사소한 소비 기호’(le signe-de-rien-à-consommer)로 변형시킨다고 간주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인정한다(Ellul, 2004b: 85).

프랑스 철학자 질 리포베츠키(Gilles Lipovetsky)도 ‘소비 사회’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의 경제 질서와 일상생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문이나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을 인정한다. 즉, 1990년대 초에 위기에 빠진 풍요로운 민주국가들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소비 욕구의 상실, 유명 브랜드에 대한 무관심, 가격에 대한 관심의 증가, 충동구매의 감소이다. 그 때문에, 소비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고 인간 욕구의 상품화가 실패한 상태로서의 ‘소비 사회의 종말’이 언급되기도 하고, ‘대중 소비 사회’라는 이상적 유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기도 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비자본주의의 뒤를 잇는 네트워크 사회와 정보자본주의 사회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의 태도 변화와 가치 변화로 나타난 것은, 물질적 행복, 돈, 신체적 안전을 강조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삶의 질, 자아 표현, 정신생활, 삶의 의미를 우선시하는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Lipovetsky, 2006: 23-24).

그렇지만 리포베츠키는 이제 소비 행위는 사물과 타인과 자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표현한다고 하면서, 욕구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팽창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집단이나 개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밝힌다. 즉, 이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가 등장하여 거대한 쇼핑센터를 활보하고,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며, 저지방 제품 혹은 유기농 제품을 찾고, 고급 상품을 요구하며, 인터넷에서 서핑하며, 휴대전화로 음악을 내려 받는다. ‘대중 소비 시대’는 자연스럽게 모습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주기의 역사적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오늘날 산업과 서비스는 선택 논리 및 제품과 가격의 차별화 전략을 시행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도 차별화와 세분화 전략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변화는 생활양식을 보다 더 상업화시킬 따름이고, 광적인 소비 욕구를 더욱 증가시킬 따름이며, “늘 더 많이, 늘 더 새롭게”라는 논리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따름이다. 결국, 오늘날 태동하는 새로운 사회는 ‘탈(脫)소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탈(脫)소비 사회’가 아니라, ‘과소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과소비 사회’라는 것이다(Lipovetsky, 2006: 24-26).

이처럼 ‘과소비 사회’로 규정되기도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적으로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비 품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소비 형태가 선진국의 소비 형태와 비슷하게 닮았다는 것이다. 넷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 시대’란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많고 다양하여,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시대를 의미한다(남은영, 2011: 10). 이 같은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새로운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뿐 아니라, 소비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새로운 생활양식을 통해 집단별, 계층별 소비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소비 방식을 이루어 나가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생활양식을 만들어내며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제 높은 소비 수준은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되기까지 한다(강효민, 2013: 46).

이와 같이, 한편으로 현대사회는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소비 사회’로 흔히 규정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늘 더 많이 소비하는 광적인 소비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소비 행위가 일상화된 ‘과소비 사회’가 등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오늘날 태동하는 새로운 사회는 ‘과소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과소비 사회’라는 것이다. 물론 ‘소비 사회’ 혹은 ‘과소비 사회’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

도 있다. 또한 ‘소비 사회’ 혹은 ‘과소비 사회’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의 경제 질서와 일상생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소비문화가 자리 잡은 현대 소비 사회에서, 소비는 이제 개인의 삶의 목적이 되고 생활양식을 이루는 핵심 요인이 된다. 결국, 자아의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지위 및 자신과 남을 구별하는 사회적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소비는 또 다른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부터, 본고에서는 현대 소비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고, ‘과소비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과소비 사회’에서의 개인의 소비심리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소비문화가 드러내는 특징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대안적 제안으로서, 과도한 소비를 통해 초래된 환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탈성장’의 필요성 및 ‘탈성장 사회’의 추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소비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소비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대안적 삶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¹

II. 소비 사회에 대한 분석

1. ‘소비 사회’의 특징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를 풍요로운 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 사회’로 지칭하면서, 현대인이 물건의 기능보다는 ‘기호’(le signe)를 소비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 팽배해있는 ‘차이’를 표시하는 ‘기호’로서의 사물, 곧 ‘기호’로서의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물의 구입과 선택 같은 사물 앞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드리야르는 소비를 사회 내에서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계급 제도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그는 사물은 소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호’가 되어야 하고, 이 ‘기호’는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힌다.² 따라서 현대인은 가장 사소한 일상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기호’의 침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보드리야르는 소비가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Baudrillard, 1970: 111-112, 129).³

1) 현대 소비 사회 및 소비주의에 대해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강성영. “소비 사회의 인간 이해 : ‘광고’를 통해 본 욕구와 한계의 변증법”, 신학사상, 138집 (2007 가을) ; 박종균. 『소비사회·대중문화·기독교』, 서울: 한들, 1997 ; 이장형. “대량소비 문화와 물질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 사회윤리, Vol.10 No.-[2005] ; 임성빈 외.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조용훈. “아동의 소비주의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연구”, 기독교 사회윤리, Vol.16 No.-[2008] ; 조용훈.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기독교 사회윤리, Vol.27 No.-[2013].

보드리야르에 따르면(Baudrillard, 1970: 309-312), 사물 곧,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뿐만 아니라 ‘기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사물의 소비는 유용성, 곧 사용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상징 가치’인 ‘기호 가치’로 규정된다. 즉, 사용 가치는 소비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기호 가치’가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 계층이 분화되기보다, 오히려 소비 방식에 의해 계층이 분화된다. 왜냐하면 사물은 어떤 ‘차이’를 표시하는 ‘기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덧 씌어져 있는 ‘기호’이다. 이러한 ‘기호’로서의 사물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의 사용 가치가 더는 아니라 사물의 ‘기호 가치’이다.⁴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은 경쟁하려는 경향, 즉 타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경향은 인간 본성 중 사라지지 않는 특성임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 사회의

2) 하지만 이미 상품의 기호적 의미나 차이가 상식으로 정착되고, 소비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전처럼 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기호적 의미와 차이를 강조한 ‘소비 사회론’도 2000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즉, 내가 아무리 명품이나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입하여 갖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르든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동차, 옷, 가방, 가구 구입과 같은 소비가 담당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1980년대 ‘소비 사회론’은, 이처럼 나와 다른 사람이 공통된 이미지와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세상이 개인화, 개성화,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미지와 상징성의 공유는 점차 어려워진다. 따라서 오늘날 ‘소비 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소비자 내면의 보완’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의 기호적 의미나 차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 이미지와 상징성을 공유하는 사회적 특성을 전제로 하므로, 소비는 개인이 하는 행위이지만 다분히 사회적 행위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지금 ‘소비 사회’는 점차 개인적 행위로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1990년대부터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컴퓨터 본체와 같은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프로그램, 디자인, 금융상품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산과 소비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만화, 게임, 캐릭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설계방식, 조직체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금융상품 등의 소프트웨어 상품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면에서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제는 하드웨어 상품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소비 사회론’에서 벗어나, 더 개인적이고 내면을 중시하는 소비 대상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상품을 좀 더 고려한 ‘소비 사회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규상, 2012: 181-184).

3) 보드리야르에 따르면(Baudrillard, 1970: 311-312), ‘소비 사회’가 더는 신화를 만들어 내지 않은 것은 ‘소비 사회’가 ‘소비 사회’ 자체의 신화가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 사회는 관념 속에서 ‘소비 사회’로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비’가 하나의 신화가 되거나 신화의 차원에 속한다는 것은 ‘소비’라는 관념이 ‘소비’의 유일한 객관적 현실로 나타남을 드러낸다. 또한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풍요와 소비가 현대인의 새로운 부족적인 신화나 현대사회의 도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현대인이 물건의 기능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은, 현대 소비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넘어서 ‘제품 명(名)’이나 ‘서비스 명(名)’, 즉 ‘브랜드(기호)’를 소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현대 소비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도구적 가치’를 넘어서 ‘상징적 가치’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의 대상을 제품의 ‘이용적 가치’보다는 브랜드 고유의 ‘상징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두원, 2007: 134). 리포베허스키에 따르면(Lipovetsky, 2006: 51-55), 오늘날 새로운 부유층 성인에게서만큼이나 젊은이들에게서 유명 브랜드를 찾는 성향이 나타나고 그들이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은, 고급 상표에 이끌리는 성향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누림으로써 평범한 것과 멀어짐을 느끼려는 자아도취적인 쾌락에서이다. 다시 말해, 엘리트주의적 쾌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은 신(新)개인주의의 주관적 논리에 의해 재구성된다. 그 논리는 타인의 갑탄 대상이 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유명 브랜드에 대한 열광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이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우월하게 비교되며 대중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은밀한 감정을 즐기려는 자아도취적 욕망에서 비롯된다.

경제는 이런 동력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사회적 삶의 주요 원동력은 타인보다 물질적으로 더 우월함을 보여주려는 과시를 위한 경쟁이라고 지적한다. 부의 본질적 목적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확실히 ‘구별’되고 ‘차이’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동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표식을 과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과시성 소비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주장한다(Veblen, 1899: 26-27).

베블런에 따르면(Veblen, 1899: 58-59, 67),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이러한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잉여 생산의 일부는 사회 구성원이 삶에서 느끼는 구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생산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생산 증가나 잉여 생산은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고 차별화하기 위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과시하려는 욕망에 의해 촉진된다. 그런데, 이 욕망은 과시를 위한 소비와 일반적인 사치를 활성화한다. 과시성 소비의 원리는 여러 계층(계급)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각각의 계층은 더 우월한 계층을 모방하고자 애쓴다. 모든 계층은 욕망에 이끌리고 사회 계층의 사다리에서 바로 그 위의 계층과 경쟁하고자 한다. 반면, 그 위의 계층은 그들보다 아래 계층이나 혹은 훨씬 높은 상위 계층과는 아예 비교할 생각조차 않는다. 이와 같이, 더 우월한 계층에 대한 모방은 사회 구조에서 계층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유한 계층’⁵⁾에 의해 인간들을 과소비의 급류 속으로 이끌어간다. 가치들은 이 ‘유한 계층’의 잣대로 재어지고, ‘유한 계층’의 생활 수준은 모든 사회의 명예의 규칙으로 자리 잡는다. 이 가치들에 대한 존중, 이 규칙들에 대한 준수는 모든 하위 계층에게 어느 정도 강요된다. 상위 계층은 구속력을 띤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회 구조의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계층까지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각 계층의 구성원은 바로 위 계층의 삶의 방식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처럼 받아들이고, 이 이상을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프랑스 환경전문가 에르베 켐프(Hervé Kempf)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및 최고 부유층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면서,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계층의 소비를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상승하기를 열망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고 부유층은 빈곤층과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반면, 이 최고 부유층을 부러워하는 일반 부유층은 그들만의 공동생활 공간에서 최고 부유층을 모방하기도 한다(Kempf, 2007: 67-72). 켐프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블런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비가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사회적으로 다른 계층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소비 이데올로기’라는 형태

5) ‘유한 계층’(the leisure class). 베블런이 『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유한 계급’이라는 표현으로 흔히 쓰인다. ‘유한 계급’은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이자생활자나 자본가 계급 등은 육체노동이나 생산노동에 관여하기를 기피하면서, 자신의 재력으로 유향생활, 곧 문화적·비생산적 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로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Kempf, 2007: 78-79).

더 나아가, 켐프는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화 때문에⁶, 전 세계의 소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산층도 뉴욕과 파리 같은 세계 중심 도시의 소수 지배집단이 세워놓은 예의범절의 기준을 모방하려 든다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 중산층은 소위 신흥 국가의 중산층을 가리키기도 하고, 국내에서 자신들의 상징적 지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부유한 나라에서 모방해야 할 모델을 찾는 중산층을 가리키기도 한다(Kempf, 2007: 85). 켐프에 따르면(Kempf, 2009: 32, 55-56), 이러한 모방과 사고방식이 전례 없는 심리 조작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텔레비전 방송과 광고의 영향이다. 신흥국가나 혹은 개발도상국의 소시민이나 중산층은 서구의 부유한 나라들이 누리는 번영의 이미지에 젖어 있고, 그들의 생각은 서구적 소비문화와 삶의 방식에 빠져 있다.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15억 정도의 소비자 계층은 매일 뭔가를 사라고 권하는 수십 개의 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광고의 홍수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사람들이 본인의 삶은 본인 자신에게 달려 있고 사회관계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라는 말을 끊임 없이 되풀이해 듣기 때문에, 우선 물질을 통해 만족을 느끼려는 경향이 더욱 조장되는 것이다.

현대 소비 사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드리야르의 주장처럼 현대인은 생산된 물건의 기능을 따지지 않고 상품을 통해 얻는 위세와 권위, 곧 ‘기호’를 소비한다. 다시 말해, 현대인은 결코 사물 자체를 소비하지 않으며,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서 소비 대상을 찾는다.

둘째, 소비 사회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 잉여와 사치를 추구하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킨다. 소비 사회에서 소비 대중은 상품의 소유와 소비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통한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강성영, 2007: 205-206). 그러므로 소비 사회에서 대부분의 소비는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계층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셋째, 베블런의 주장처럼 더 높고 우월한 계층에 대한 모방을 통한 계층 상승 욕구가 소비심리의 원동력이 된다. 타인과의 차별을 위해 타인보다 물질적으로 더 우월함을 보여주려는 과시성 소비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한다. 또한 켐프의 주장처럼 그러한 모방과 사고방식이 전례 없는 심리 조작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텔레비전 방송과 광고의 영향이다.

넷째, 소비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매체를 통해 소비 대중의 허구적 소비 욕구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소비 대중은 광고를 통해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또 다른 욕구를 가지

6) 켐프에 따르면(Kempf, 2013: 32), 1960년대부터 값싼 원자재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유한 나라들에 의해 시작된 경제 세계화를 통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부추기는 소비문화가 확산된다. 그런 세계화를 통해 경제 구조가 획일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공통된 기준 체계 속으로 융해되어 천편일률적이 되어버린다. 특히, 자동차, 텔레비전, 휴대전화, 전자 제품, 여행, 쇼핑센터, 패션, 음악 등과 같은 서구 생활양식이 전 세계의 규범이 된다. 또한 전 세계가 과시적 경쟁을 향해 달려드는 가운데서, 그 물건들은 지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고, 상류층에 속해 있다는 표식이 되며, 품격을 드러내는 새로운 코드가 된다.

게 된다. 그런데, 소비 대중은 특정한 재화의 소비를 통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오히려 결핍을 느끼고, 현실 세계에 대한 또 다른 불만족에 사로잡히게 된다(강성영, 2007: 203, 206).

다섯째, 소비 사회는 소비 양극화와 절대 빈곤을 통해 불평등과 사회적 재앙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인간의 무절제한 욕구의 추구에서 비롯된 환경적 재앙을 야기한다(강성영, 2007: 203-204).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중금속 배출로 인한 수질 오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토지의 사막화와 생물학적 종의 감소 같은 것이다.

2. '과소비 사회'에서의 소비심리

바우만은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소비심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우선, 소비 지상주의에 물든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은 소비가 좋은 삶을 위한 비법이고 삶에서 마주치는 온갖 문제의 주된 해결책임을 믿도록 강요당하고 그런 유혹을 받아온다. 또한 '과소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 활동의 수준이며, 어떤 소비 대상을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는 소비 대상을 '더 새롭고 향상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함인데, '더 새롭고 향상된 것'은 사회적 지위의 주된 척도로 사용되고 삶의 성공 경쟁에서의 점수로 사용된다. 바우만은 헨리 지루(Henry A. Girou)의 말을 인용하여, 현대 문화는 휴대전화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더불어 인터넷이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 삶의 모든 측면을 상업화하는 교육적인 힘을 지닌다고 하면서, 그런 힘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가 과거에 목격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대량 소비의 세계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기업이 목표하는 바라고 지적한다(Bauman, 2012: 56, 89-91).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소비심리의 배경에 대한 바우만의 설명과 대조적으로, 리포 베츠키는 '과소비 사회'의 기능과 '과소비 사회'가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과소비 사회'에서의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한다. 리포베츠키는 '과소비 사회'의 주요 현상을 파악하여 '과소비 사회'의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힐 뿐 아니라, '과소비 사회' 이후에 찾아올 다른 유형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전망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그는 현대사회가 '탈(脫)소비 사회'가 아닌 '과소비 사회'라는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소비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점점 부유해지

7)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소비 사회에서 소비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을 '자격 미달 소비자'로 규정하면서, 소비의 불평등 문제를 인간적 존엄의 부재와 인간성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즉, 못 가진 자들의 최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 미달 소비자'에게, 쇼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삶을 나타내는 불쾌하고 역겨운 흔적이며, 자신이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표시이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인간적 존엄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사실상 삶의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결국, 그것은 인간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다른 어떤 근거도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Bauman, 2013: 60-61).

고 있으나 상당수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즉, 그는 사람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심정적으로 피폐함에 빠지는 실상 등을 거론하면서, 걱정과 실망, 사회적·개인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특히, 리포베츠키는 대중 소비 사회를 세 가지 시기로 나누면서, 물품의 구매를 좌우하고 결정짓는 소비심리와 동기에 대해 분석한다. 리포베츠키에 따르면(Lipovetsky, 2006: 27-44), 1880년대 무렵부터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막을 내리는 대중 소비 사회 첫 번째 시기에 이어, 대중 소비 사회의 두 번째 시기는 1950년을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전후 30 여년에 걸쳐 형성된다. 그 두 번째 시기는 엄청난 경제 성장, 노동생산 수준의 향상, ‘포드주의’⁸⁾ 경제 시스템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풍요 사회’로 자리매김한다. 그 시기에는 소비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 구조가 변화되며, 내구재 구매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된다. 마침내, 1970년대 말 이후 세 번째 시기의 대중 소비 사회 시대가 선진국 사회에 등장한다. 베블런의 뒤를 이어 소비를 사회적 차별화의 논리로 해석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학자들은 소비가 사회적 명성, 사회적 인정, 사회적 지위, 사회계층에 대한 소속감과 반드시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소비 사회 두 번째 시기의 소비자는 구매를 통해 물품의 사용 가치를 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계층적 소속감을 느끼며 경쟁적인 계층 피라미드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소비는 사회적 성공을 드러내는 ‘기호’로서, 사회 계층의 상승과 소속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명예의 매개체로서 더 큰 가치가 계속 부여되고 위세를 떨치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 하지만 두 번째 시기에서도 물품의 사용 가치가 새로운 일관성을 띠게 되고, 안락함과 쾌락과 여가 생활의 기준이 대다수 사람의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목표로서 강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더는 사회적 식별이라는 모델만으로 부터 소비 유혹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즉, 더 편리하고 안락하며 자유롭고 쾌락적인 생활 방식에 이르는 것이 소비자의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고, 광고와 대중매체는 이상적인 개인의 행동과 여가생활을 고양시키면서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는 소비 행동을 부추긴다. 두 번째 시기는 이처럼 전통적인 과시적 소비와 개인적인 쾌락적 소비라는 두 가지 경향이 절충되어 공존한다. 그렇지만, 개인의 목표, 취향, 기준에 따른 소비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대중 소비 사회의 세 번째 시기인 ‘과소비 사회’가 등장한다. ‘과소비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구매 동기가 사회적 지위 과시보다 한참 앞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제 사람들은 과시를 위한 물품보다 더 나은 삶을 체험하게 하는 물품

8) ‘포드주의’(Fordism). 일관된 작업 과정으로 노동 과정을 개편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집약적 생산 시스템을 가리킨다.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신의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노동자 앞에 배치시켜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립하게 한다. 또한 포드는 부품의 상호교환성을 도입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표준을 만들면서,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제한된 노동 시간 내에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노동 과정 안에 남아 있는 자유 공간이 제거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가 보다 확고해진다. 이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막기 위해 상대적 고임금이 지불되고, 이에 따라 소비 양식이 재편됨으로써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결합된다.

을 선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타인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과 감각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 물론, 소비를 통한 사회적 지위의 과시라는 만족감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여러 다른 구매 동기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물품의 구매를 좌우하고 결정짓는 소비심리와 동기에 대한 리포베츠키의 분석과 대조적으로, 바우만은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은 충동적으로 구매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대인은 더는 매력적이지 않은 물건을 갖다 버린 자리에 더 매력적인 물건을 채워 넣을 때, 가장 살아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채 ‘새로운 문화’라 일컬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이는 현대 소비 사회의 첨병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이는 상품화되고 착취될 ‘또 하나의 시장’으로서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 젊은이가 어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된 이유는, 젊은이가 현재 소비자 수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장차 거기에 더 많이 기여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Bauman, 2012: 55-56).

리포베츠키에 따르면(Lipovetsky, 2006: 11-18), ‘과소비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우위를 점 유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경제의 총체적인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소비 이미지도 혁명적인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른바 ‘소비 인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가 탄생한다. 이 신종 소비자들은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과거의 계급 문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으며, 기 호나 구매 성향이 즉흥적이다. 사회적 지위와 품격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소비자로부터, 감정적 경험에 의존하고 안락함, 생활수준, 건강, 브랜드, 진품 여부, 커뮤니케이션 등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과소비자’의 시대로 옮겨간 것이다. ‘과소비자’는 단순히 물질적 탐욕을 품은 사람이라기보다, 정신적 안락함, 내적 조화, 내면의 행복을 요구하는 자이다. 따라서 ‘과소비자’에게는 상품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으나, 상당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살며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걱정과 실망, 사회적·개인적 불안감은 증폭된다. 결국, ‘과소비 사회’가 될수록 소위 역설적 행복의 문화가 자리 잡아간다. 그래도 어쨌든, ‘과소비자’는 언제든지 더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수많은 여가와 일탈과 변화를 맞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소비가 행복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아도 종종 실생활에 만족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준다. 물론, ‘과소비 사회’에서는 더 나은 삶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이 높이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소비 사회’는 통제 불가능하고 극단적이며 혼란스러운 거대한 체제이다. 여기에는 풍요와 극도의 빈곤, 그리고 저소비 현상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 사실과 현상 때문에, 리포베츠키는 ‘과소비 사회’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소비를 통한 만족감과 행복에 덜 집착하며 상품에 덜 의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분명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돕고 시민들을 잘 보살피며 시간과 서비스를 더 적절히 활용하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며 새로운 경험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소비문화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소비와 생활방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과소비 사회’를 대체할 믿을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현대의 ‘과소비 사회’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발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과소비 사회’도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때에는 생산과 거래방식뿐만 아니라 소비를 평가하고 행복을 결정짓는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Lipovetsky, 2006: 18-20).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은 소비가 좋은 삶을 위한 비법이고 삶에서 마주치는 온갖 문제의 주된 해결책임을 믿도록 강요당하고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것이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소비 심리’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즉, ‘과소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 활동의 수준이며, 어떤 소비 대상을 얼마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장형에 따르면(이장형, 2005: 115), 소비가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삶의 중심 및 목적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으며,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도 소비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구매력은 단순한 구매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소비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구매 동기가 사회적 지위 과시보다 앞서는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제 사람들은 과시를 위한 물품보다 더 나은 삶을 체험하게 하는 물품을 선호한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타인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보다, 다양한 경험과 감각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은 충동적으로 구매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들은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며 기호나 구매 성향이 즉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소비가 행복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아도, 종종 실생활에 만족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3. 한국 사회의 소비문화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 과학기술의 고도화, 개인소득의 향상으로 소비 영역이 급팽창함으로써 대중의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의 변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의 소비문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이른바 ‘3저 호황’을 통한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하게 상승하여 중산층의 저변 확산이 이뤄지면서, 이른바 중산층의 소비 행태나 생활양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대중 소비 시대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기 이전까지 한국의 소비문화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대중 소비 시대로 진입하며,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 의식이 지속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짧은 기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고도 성장과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기에 억눌린 그동안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과소비 열풍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⁹ 결국, 현대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대중 소비 시대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소비 유형의 변화를 보이면서 식품의 시대에서 의류의 시대 그리고 여가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비문화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적인 변화 및 전개 양상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필요가 생존과 편안함에서 다양함과 자극과 개성의 추구로 이동한 것이다(남은영, 2011: 9-11).¹⁰

뒤이어, 199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인 소비 주도 사회로의 변화에 가세한다. 즉, 소비의 양적 만족을 중시하는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대중 소비 단계에서, 성숙 소비 단계인 소비의 개성화, 차별화, 다양화를 통해 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단계로 서서히 변화한다. 구매력의 원천인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한국의 각 소비 주체가 타인과는 차별화된 소비 행동을 통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80년대에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히트 상품 대열에 오르나, 1990년대에는 차별화된 기능과 편의성 및 소비자들의 고급화와 개성화 취향에 부응하는 제품들이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비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들어 시장 개방 정책이 가속화되고, 가격 파괴를 내세운 창고 형 할인점의 등장으로 국내 유통 시장이 구조 개편을 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 행태가 전반적으로 고급화되면서, 국내외 소비 시장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이 대두되면서, 소비 주체들은 자신의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더 많은 가용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과거에는 그 비중이 높지 않았거나 찾아보기 어려웠던 각종 서비스 구매가 늘어나게 된다. 이때 소비 주체들은 늘어난 가용 시간을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가나 인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자본에 할애한다. 따라서 각종 레저 스포츠 활동, 교육, 교양, 오락, 정보,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늘고, 이와 대조적으로 지출 항목 중에서 의식주 등 필수 소비 항목의 비중은 계속 낮아진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대중 소비 단계를 거쳐 소비의 다양화, 차별

9) 1988-1990년 한차례의 과소비 열풍에 이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과소비 열풍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1989년은 국민소득이 5천 달러(\$ 5,185), 1996년은 국민소득 1만 달러(\$ 11,385)를 넘어선 해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고가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폭증하여 1996년 1년 동안 고급모피류, 승용차, 고급의류, 화장품, 골프채, 바닷가재 등 20대 주요 사치성 소비재 수입액이 20억 9,400만 달러로 1995년 대비 12.1%가 늘어나 무역수지적자가 152억 8,000만 달러에 이른다(정준, 1997).

10)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소비 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소비 행위나 소비 상품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소비한다는 것이다(박규상, 2012: 181).

화, 개성화를 지향하는 소비 성숙 단계로 들어서며, 소비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고급화 및 글로벌화가 이루어진다(남은영, 2011: 12-13).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의 소비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소비문화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난다. 한국 정부가 외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 부실 금융기관 퇴출과 기업의 구조 조정 및 정리 해고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로 기업 부도가 증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따라서 소득 감소 이상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실직 가능성의 증대,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그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 이는 곧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대적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져, 실속형 제품의 소비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형 할인점 판매가 소비 시장의 한 축을 이룬다. 요컨대,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의 양극화가 진행된다. 즉, 저소득 근로자층의 소비 위축 현상과 고소득 근로자층의 소비 회복 현상이 병존하는 소비 양극화 시대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감소한 것에 비해 소비 지출 점유율이 늘어나, ‘소득-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 소비문화의 특징이다(남은영, 2011: 14-15).

한국의 근현대 소비문화 변천사를 들여다보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집착이 한국의 소비자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소비문화 속에는 ‘메이커 병’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 욕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커 병’이란 하나의 소비 현상으로 제품의 질이나 실용성을 떠나, 먼저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문화의 단면이다. 근대기의 신문 광고에서 나타난 제약 광고로부터 현대사회의 TV 홈쇼핑의 구매 설득에 이르기까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소구점’¹¹⁾ 이 바로 브랜드의 명성이다. ‘정품’, ‘명품’, ‘특품’ 등으로 표현되는 브랜드 소구점들을 보면, 제품에 의한 브랜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반대 순서로 브랜드에 의한 제품의 평가가 되어버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브랜드 소비’ 현상의 이면에는 소비가 단지 물질 재화만이 아니라 재화 속에 각인된 사회적 의미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내재화되어 있다. 즉, 소비는 자신의 취향과 상황과 처지에 대한 성찰과 해석 행위일 뿐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가운데서 자아와 존재에 대한 총체적 반성 행위로서, 계급이나 집단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국 소비 사회에서 개인은 구체적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소비 행위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을 표현하는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명 브랜드의 소비 가치는 해당 소비자의 ‘신분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 소비 사회에서 소비는 사회적 신분과 계급의 차별화 기능을 수행하며, ‘브랜드’는 본질적으로 상징적 기호이자 소비 가치가 내재된 소비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두원, 2007: 136).

특히, 한국 소비 사회에서 고가 브랜드에 대한 집착과 숭배 현상 및 소위 ‘명품’에 대한 과시적 소비

11) ‘소구점’(訴求點). 광고가 시청자나 상품 수요자에게 호소하는 부분이나 측면을 가리킨다.

현상은 이렇게 나타난다. 즉, 한국 소비 사회에서 브랜드 소비 가운데, 고가의 수입 브랜드 제품을 일컫는 ‘명품’에 대한 과시적 소비는 이제 더는 낫설지 않은 한국 사회의 일상 풍경이 된다. 1970년대 엄격한 규제로 암시장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던 수입 사치품 시장은 1987~1988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 올림픽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1997~1998년 외환위기 때 잠깐 위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매년 크게 확대되어, 이제는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적어도 다수의 대중이 과거와 달리 자기를 위한 적극적 소비 행위에 대해 더는 주저하지 않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명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사치 행위가 지위 확인을 통해 명성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치 행위는 경제적 필요나 사회제도적 요구 등의 요인만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영역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를 통해 자기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한국 소비 사회에서 고가 브랜드에 대한 집착과 숭배 현상을 자기표현의 한 형태로 규정할 수도 있다(이황직, 2012: 4-6).

특히,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사치품에 중독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고가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사치품을 사들이는 유행 심리와 이를 조장하는 사회구조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의하면(김난도, 2007), 한국 부유층은 서구 상류층처럼 고급 예술에 대한 안목이나 집안 전통과 같은 문화적 취향보다는 명품 구매라는 소비 행위를 통해 중하층과 구별 지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는 부유층은 있으나 상류층은 없는 우리 역사의 단절에서 비롯되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재산만이 계층의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사치품 소비의 심리적 동인을 토대로 과시형, 질시형, 환상형, 동조형 등 4개의 유형이 제시된다.

Table 1 Four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Luxury Consumption

	Source of Anxiety 불안의 근원	Habitude of Mind 마음의 습성	Typological consumer 전형적 소비자
Ostentation Type 과시형	Loss of face, Identification with others	Sensitivity for class	Junior of traditional rich person, Venture capitalist Entertainer
Envy Type 질시형	Disregard	Orientation to equality	Middle class with strong inferiority
Fantasy Type 환상형	Shabbiness	Narcissism	Young person wishing transformation, Worker in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Sympathy Type 동조형	Alienation, Lag	Group consciousness	Youth vulnerable to self-consciousness, Class sensitive about fashion, Young woman

출처 : (김난도, 2007)에서 재구성

이장형에 따르면(이장형, 2005: 114), 지구촌화와 세계화는 소비문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역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가 재화를 공유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인 소비 주도 사회로의 변화에 가세함으로써, 한국의 소비문화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적인 변화 및 전개 양상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대중 소비 시대로 진입한다. 특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 행태가 전반적으로 고급화되면서 국내외 소비 시장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는 양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현대 소비 사회의 특징 및 ‘과소비 사회’에서의 소비심리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다양한 분석은 그러한 특징을 드러내는 한국의 소비문화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소비 사회에 대한 대안적 제시

1. 환경 문제와 소비

캠프는 오늘날 서구 사회가 향유하는 안락함과 풍요로 인해,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환경 위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파국에 대한 예측이 결국 현실화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오늘날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의 원인이, 물질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탐욕에 물든 소수 지배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 환경 위기는 이 소수 지배 체제가 결정하는 정책들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이 소수 지배 체제는 사회 전체에는 물론, 특히 중산층에게 소비문화를 부추기는 문화적 유혹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Kempf, 2007: 8-10).

캠프에 따르면(Kempf, 2007: 35-36), 이 환경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단순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자신들을 둘러싼 현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유층의 삶의 방식이다. 선진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환경 위기와 생물권의 동요가 드러나기 시작한 자연환경과 단절된 채 도시에서 생활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닫힌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동차에서 내려 냉방 설비가 갖추어진 사무실로 들어간다거나, 대형 매장에서 식료품을 산다거나, 자녀들을 자동차로 학교에 데려다준다거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기분 전환을 한다. 특히, 여론을 주도하는 지배 계층은 사회 환경과 생태 환경으로부터 더욱 단절되어 있는데, 그들은 승용차로만 이동을 하고, 공항이나 중심 업무 지구나 주거 지역 같은 냉방 설비가 된 장소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과 현실 때문에, 캠프는 이 환경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집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즉, 집단적인 연대를 통해 자신의 안락함과 풍요를 포기하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소비를 감

축함으로써, 이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물질적 소비를 줄여야 함을 역설한다. 부유한 계층의 관습이 사회 전체가 따르는 문화적 모델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수 지배 집단이 과시적 소비 경쟁을 삼가고 과시적 소비를 줄임으로써, 일반 계층의 행동 모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들의 소비문화를 사회 전체에 퍼뜨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지배 계층에 대해, 이 지배 계층이 만들어낸 과소비문화 모델을 바꾸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Kempf, 2007: 89-91).

점점 고갈되어가는 자연 자원 문제를 비롯해 생물다양성 문제, 이상기후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과 관련해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인류가 원자재, 에너지, 각종 제품을 ‘언제나 더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환경관리국의 나디아 뵈글랭(Nadia Boeglin)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뵈글랭은 현대인의 소비 양식이야말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소비의 핵심 쟁점이며, 환경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을 제한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한다(Boeglin et al., 2006: 9-10).

뵈글랭에 따르면(Boeglin et al., 2006: 8-16), 공업, 농업, 운송 등의 모든 활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내는 것만 궁극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이 활동들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무엇보다 우리가 구매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효과는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의 제조, 유통, 제거 같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실용성 없는 신기한 제품이나 포장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조부모 세대보다 열다섯 배나 더 많은 물건들을 가정에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나 미적 차원에서 혹은 작동 방식의 효과 면에서 낙후되거나 교체·수리할 수 없는 부품들 때문에, 우리는 집안의 각종 설비나 가구나 의류를 언제나 매우 신속하게 바꾼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지구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생활 쓰레기의 엄청난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쓰레기는 아무리 효과적으로 관리해도 자체적으로 공해를 발생시키므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품 포장 쓰레기를 예방하는 조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예방 조처는 환경을 위해 포장 용품에 사용된 재료와 물질의 유해성을 줄이는 것이며, 생산, 상품화, 유통, 제거 단계에서 포장 용품과 포장 쓰레기를 감축하는 것이다.

뵈글랭은 이와 같은 우리의 소비 방식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초래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운동이 오늘날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운동의 주역들이 무분별한 소비와 무절제한 낭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벨기에서 실시된 ‘쓰레기 방지 계획’에서는 쓰레기 내용물의 8퍼센트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벨기에는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해져서, ‘지속 가능한 소비 관측’이라는 틀에서 음

식 낭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들을 제시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이런 유형의 운동들은 재화를 재사용하고 재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운동들은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개념으로 귀착된다. 특히, ‘새로운 검소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발적 간소함’ 운동이 1980년대 미국에서 생겨난다. 오늘날 이 운동에 동조하는 미국 국민이 10~12퍼센트에 달한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정착된 이 운동은 유럽에서도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 운동의 주도자들은 적절히 소비하고 물질 사용을 절제하며 여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소비 시스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권장한다. ‘자발적 간소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함으로써 수입을 줄이고 있지만,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도 깊이 관여한다. 그들은 더욱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신들의 자유 시간과 여가를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 운동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는 데 있다. 또한 자발적 행동주의 단체들은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탈성장’을 권장하기도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하며, 자동차를 포기하고 유기농 제품을 우선시하며, 건축할 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낡은 것을 수리하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이런 생활양식은 이루어진다. 단지 지속하기만 하는 소비를 넘어서 진정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광고가 주는 유희와 유명 브랜드를 거부하라고 독려하는데, 예를 들어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제안하기도 한다 (Boeglin et al., 2006: 36-39).

이와 같이, 서구 사회의 안락함과 풍요 그리고 과도한 소비로 인해 지속되는 환경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적인 연대를 통해 안락함과 풍요를 포기하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소비를 감축함으로써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점점 고갈되어가는 자연 자원 문제를 비롯해 이상기후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이 문제의 주된 원인은 인류가 원자재, 에너지, 각종 제품을 ‘언제나 더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소비 양식이야말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소비의 핵심 쟁점이며, 환경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을 제한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 같은 무분별한 소비와 무절제한 낭비 같은 소비 방식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초래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운동이 오늘날 서구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된 대량 소비 사회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성장’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2. ‘탈성장 사회’의 추구

캠프는 아주 강한 경제적 팽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사회구조적인 급변을 통해 야기된 일종의 ‘성장의 피로’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면서, 갑작스런 경제의 팽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회구조적인 급변이라고 지적한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도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나서 새로운 균형을 찾지만, 성장의 충격이 급격한 만큼 더더욱 성장의 반작용은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는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예로서, 관습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다시 형성되는 것, 생활 리듬이 바뀌고 식생활이 변하는 것, 환경이 변하고 환경적 문제가 늘어나는 것을 든다. 특히, 그는 에너지와 자원의 가격 상승 및 제한된 에너지와 자원 때문에, 한정된 생태 공간에서의 소유와 소비에 근간을 둔 전통적인 성장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여, 결국 서양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시대가 ‘탈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탈성장’ 시대를 인정하고 그 해법을 찾을 때라고 권고한다(Kempf, 2013 : 43-62).

켄프에 따르면(Kempf, 2013: 43-44),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새로운 편리함을 맛본 일부 사람들에게 물질 소비와는 다른 욕구가 생겨나는데, 이는 특히 교육, 건강, 은퇴와 관련된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가는 최대한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투자를 희생하면서 전체 예산을 다른 식으로 편성한다. 특히, 서구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가 닥치면 수입 역량을 제한하므로, 신흥국은 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은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이는 ‘영광의 30년’¹² 동안 서구 국가에서 꽤 성공을 거둔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경제의 결실을 다른 식으로 분배해야 한다. 즉,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의 결실을 독점하는 권력 체계를 문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소득과 특혜가 줄어드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지도층이 있는 전체적인 국가나 재벌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왜곡된 국가에서 이를 실천에 옮기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 세계적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배적 담론은 두 가지 가설에 기반을 둔다. 첫째,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높아진 리듬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둘째, 신흥국 주민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설들 중 어떤 것도 들어맞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바우만은 영국 생태경제학자 팀 잭슨(Tim Jackson)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날의 성장 모델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성장이 여가, 건강, 교육과 같은 서비스보다 물질적 생산에서의 증가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은 이상 기후,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멸종 위기 및 식량 부족, 대규모 이주와 불가피한 전쟁을 겪게 된다. 따라서 권력자들이 열렬히 부추기고 지원하고 북돋우는 부채 주도 소비는 생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사회적 문제를 낳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Bauman, 2012: 96). 잭슨은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즉, ‘한계 설정하기’, ‘경제 모델 고치기’, ‘사회적 논리 변화 시키기’라는 세 가지 중요 항목으로 나누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2) ‘영광의 삼십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제1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다음 해인 1974년까지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선진국 대부분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으킨 기간을 가리킨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원 이용 및 배출 한도 설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개혁, 개발도상국의 생태적 이행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자본가들이 이윤을 분배하는데 있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이익을 그 지침으로서 사용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태거시경제학'¹³ 개발하기, 일자리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금융 및 재정 건전성 높이기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부가 사용하는 사회적 논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 시간 감소를 전제로 하는 노동 시간 정책, 구조적 불평등 없애기, 사회적 자본 강화하기, 소비문화 해체하기 등이 포함된다(전광철, 2013: 221-236).

프랑스 경제학자 세르쥬 라투슈(Serge Latouche)는 끝없는 경제 성장을 기초로 하는 세계화된 대량 소비 사회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끝없는 경제 성장이야말로 대량 소비 사회의 본질이지만, 지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물리적, 지질학적, 생물학적 조건상 더는 끝없는 경제 성장의 길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비록 그런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미 붕괴를 알리는 많은 전조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자연 파괴 같은 생물권의 재생 능력을 넘어서는 모든 활동을 조만간 중지하더라도, 21세기 말에 이르기 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2°C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해안 지역의 침수, 수천만 혹은 수억 규모의 환경 난민 발생, 심각한 식량 문제, 많은 인구의 식수 부족 등이 초래된다(Latouche, 2010: 31-33).¹⁴ 라투슈는 이런 전망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2008년에 나온 '로마 클럽'¹⁵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사회'(la société de croissance)

13) 책순에 따르면(전광철, 2013: 225), '생태거시경제학'은 엄격한 탄소 배출 기준과 자원 이용의 한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형태의 소비, 투자, 노동 고용과 생산성 증대 아래에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는 것을 뜻한다.

14)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탄산가스 배출의 증가 때문이다. 라투슈가 지적하듯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C 이상 상승하면, 해안 지역의 침수, 심각한 식량 문제, 식수 부족 등의 재앙이 일어난다. 특히, 현재의 탄소 배출 추세가 계속 되어 지구의 평균 온도가 4°C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 생태계는 끝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 세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한 내용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C 이상 상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에서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한다는 기후 변화 목표치를 공식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하지만 라투슈는 온실가스 배출을 조만간 모두 중지하더라도, 결국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C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조만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2°C 이상 상승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15) '로마 클럽'. 지구의 유한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유럽의 경영자, 과학자, 교육자 등 다방면의 지식인이 로마에 모여 회의를 가진 것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로마 클럽'의 활동은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등 인류의 위기에 대해 이를 해결할 길을 모색하여 경고와 조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도성장시대인 1972년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제로 성장'의 실현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는다. 라투슈는 '로마 클럽'의 최신 보고서의 출처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연구팀은 도식적인 모델을 구축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세기 이상의 동향에 대해 테스트했다고 하면서, '로마 클럽'의 연구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의존하는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고 타당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다(Latouche, 2010: 39-40).

의 토대를 문제 삼지 않는 모든 시나리오는 문명 붕괴에 이른다고 경고한다. 즉,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재생할 수 없는 자원 위기를 이유로 붕괴의 시기를 2030년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경오염 위기를 이유로 붕괴의 시기를 2040년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식량 위기를 이유로 붕괴의 시기를 2070년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믿을 만한 동시에 지속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는 절제된 삶을 사는 시나리오인데, 이는 ‘탈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권고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Latouche, 2010: 39-40).

그런 관점에서, 라투슈는 ‘성장 사회’를 비판하면서, 세계화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즉, 소비 사회가 추구하는 ‘만인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 사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대안은 바로 ‘소비 사회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성장에 대한 믿음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장과 경제에 대한 믿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나 아무 것을 한없이 증대시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일례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정치 조직이나 혹은 가족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결국, ‘탈성장’의 길은 ‘성장’이라는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경제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없애야 하고, ‘소비’라는 전례의식과 돈에 대한 숭배를 포기해야 한다. 특히, 그는 이러한 ‘탈성장’은 유일한 대안이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의 모태라고 하면서, ‘탈성장’은 인류가 겪는 일을 다양한 미래를 향해 다시 여는 것임을 강조한다(Latouche, 2010: 56, 59, 208).

특히, 라투슈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탈성장’은 수동적으로 겪는 ‘탈성장’과 다르다고 하면서, ‘탈성장 사회’의 시도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마이너스 성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즉, ‘자발적인 탈성장’은 우리가 과잉 소비로 비판의 위협을 받을 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도된 절제된 삶의 치료법에 비유되고, ‘수동적인 탈성장’은 굶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강요된 다이어트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성장 사회’를 최악으로 간주하면서, 단지 성장을 늦추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에서는 실업, 빈부 격차의 증대, 빈곤층의 구매력 저하가 생겨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보건의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복지 정책의 포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Latouche, 2010: 184).

라투슈에게 ‘탈성장’, 곧 ‘성장 사회’와의 결별은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탈성장’의 목적은 무제한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제한적인 성장의 동인은 환경과 인류에게 있어 끔찍한 결과를 수반하는 자본 소유자에 의한 이익 추구일 따름이다. 이런 무제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사회는 단지 생산 기계의 도구나 혹은 수단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인간은 인간 자신을 쓸모없게 만들고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계의 소모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Latouche, 2007: 20-21). 그 때문에, ‘탈성장’ 시도는 욕구의 자발적 제한을 기반으로 하는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투슈는 욕구의 자발적 제한을 기반으로 하는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즉, 물질적인 과소비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궁핍 속에 남겨 두고,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소비적인 풍요로움’은 모든 사람의 욕구 충족을 통해 행복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런 충족은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들의 필요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불공평하고 늘 불충분한 방식으로 분배된 소득에 의존한다. 따라서 ‘행복’을 연대적인 사회 속에서 ‘검소한 풍요로움’(l’abondance frugale)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탈성장’ 시도에 의해 제시된 ‘성장 사회’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탈성장 사회’는 ‘검소한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려고 자발적인 제한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Latouche, 2011: 14). 결국, 라투슈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생적 탈성장’(la décroissance conviviale)이다. ‘공생적 탈성장’이란 생물권에서의 물질 채취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런 감소로부터 복지 증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공생적 탈성장’이란 공해를 줄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낭비와 스트레스와 향정신성의약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Porquet, 2012: 285).

라투슈에 따르면(Latouche, 2010: 74-76, 137), ‘검소한 풍요로움’으로 특징지어지는 ‘탈성장 사회’야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명의 위기로부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자발적으로 선택된 검소한 생활에 기초한 사회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소비를 적게 하지만 소비의 질을 높이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자본의 축적이 아닌, 나눔의 윤리와 실천 속에서 사회의 행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악착같은 경쟁, 이기심, 무제한의 부의 축적 같은 시장 사회의 가치 및 자연에 대한 파괴적 사고방식을 대신하여, 이타심, 호혜, 공생, 나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물론 경제적 이윤에 대한 집착이 있는 대신,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무상 공여’(無償 供與)의 정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상 공여’의 정신은 ‘탈성장 사회’를 세우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 더 나아가, ‘탈성장’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재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폐기물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인데, 올바른 사회란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라는

16) 리포베츠키는 ‘검소한 풍요로움’으로 특징지어지는 ‘탈성장 사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공생적 탈성장’으로 방향이 설정된 사회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탈성장 사회’는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과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물질적 소비에서의 검소함과 절약을 삶의 총체적 체계로 내세울 수 없으며, 그것들을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성숙을 위한 보편적인 비결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치나 경박함이 없는 검소하고 합리적인 삶이 진정으로 인간이 열망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꿈꾸고 기쁨을 전환하며 타인의 시선을 끌고 다른 영역을 발견하며 일상적인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Lipovetsky, 2006: 392-393).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끝없는 경제 성장이야말로 대량 소비 사회의 본질이지만, 지구는 유한하기에 더는 끝없는 경제 성장의 길을 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끝없는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하는 세계화된 대량 소비 사회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그래서 세계화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은 ‘소비 사회로부터의 탈출’이며, 이를 위해 ‘탈성장’이 제시된다. ‘탈성장’ 곧 ‘성장 사회’와의 결별은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탈성장’의 목적은 욕구의 자발적 제한을 기반으로 하는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검소한 풍요로움’으로 특징지어지는 ‘탈성장 사회’야말로 문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자발적으로 선택된 검소한 생활에 기초한 사회는 나눔의 윤리와 실천 속에서 사회의 행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므로, 이타심, 호혜, 공생, 나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무상 공여’의 정신은 ‘탈성장 사회’를 세우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한 가치들과 ‘무상 공여’의 정신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과소비 열풍, 소득 불균형의 심화를 통한 소비 지출의 양극화 현상, 고가 브랜드와 ‘명품’에 대한 집착과 숭배 현상, 강한 소비 집착과 소비 욕구로 나타나는 사치 행위,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 현상 등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IV.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

1.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상황

미국 예수회 사제 존 캐버너(Jonh Kavanaugh)는 물신 숭배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생활 방식이 가져온 최악의 결과는 인격이 해체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과도된 욕망이 생겨나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그것이 내적으로 공허한 개인의 삶,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그 반대급부로 드러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상품화된 인격은 인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과 자기 반성적 사유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 그 결과, 개인은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애원하고 호소하는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기는커녕 그 필요를 보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려는 갈망은 고립된 개인주의의 강력한 힘과 결합하여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캐버너는 소비 사회를 하나의 삶의 형식, 곧 상품으로서의 삶의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소비 사회를 일종의 ‘복음’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심지어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종교가 세속화되자 구매와 소비는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매

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갈망이, 가장 새롭고, 가장 좋으며, 가장 값비싼 상품이면서 끊임없이 품질이 향상되는 상품에 투사된다는 것이다(Kavanaugh, 2006: 4, 13-14, 32, 55).

더 나아가, 캐버너는 소비주의적인 선전과 그에 따르는 물건에 대한 집착과 낭비벽은 지구 자원의 남용과 소진을 가속화시켜서, 세상의 모든 자원이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소비 사회에서 개인의 존재와 목적은 오직 개인이 무엇을 소유하는가라는 관점에서만 계량화되며, 개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획득하는가에 의해서만 측정될 따름이라고 지적한다. 즉, 소유가 개인의 본질을 규정하고, 소유물이 개인을 소유하며, 생산물이 개인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은’ 상품 혹은 ‘새롭게 개선된’ 상품만이 인간의 욕망에 주어진 유일한 위안이라고 하면서, 소비는 단지 경제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이자 중독이 되었음을 역설한다. 소비는 개인의 삶과 행동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고, 개인의 경험에도 속속들이 파고들었으며, 최종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소비 사회 및 소비 사회의 가치 체계는 사실상 하나의 종교로서, 그 자체의 철학에 의해 지탱되며 개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론임을 강조한다(Kavanaugh, 2006: 42-46).

그래서 캐버너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소비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뿐만 아니라 인간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소비에 기초한 경제 체제 및 소비주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밝힌다. 특히, 물신 숭배적 소비 사회에서는 인간이 생산과 경제 체제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만든 상품의 노예가 되며,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상품을 점점 숭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인간은 마치 인격체를 대체하는 것처럼 상품을 대할 뿐 아니라, 상품이 인간에게 의미와 목적과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상품을 그렇게 대하면서,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한 사물에 불과한 존재인 것처럼 서로를 대하게 된다(Kavanaugh, 2006: 34-35, 48, 70).

캐버너에 따르면(Kavanaugh, 2006: 71, 110-111), 고도 소비주의 사회, 즉 물신 숭배적 소비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 자라고 보고, 심지어 저주받은 자라고 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신 숭배적 소비 사회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요한계시록 18: 9-20), 영혼을 사고 파는 멸망 직전의 세상 같은 인류 문명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 늙고 버려진 이들, 소외되고 굶주린 이들, 헐벗고 간혀 있는 이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 및 그들이 옹호하는 정치경제 체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가난과 굴욕에 빠진 사람들을 냉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바로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결국, 친밀함의 부족, 공동체의 상실,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결여, 과도한 경쟁심의 유발, 연대 의식의

부재 등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축적하라고 부추겨지는데, 이는 인간이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 상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결핍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결국, 캐버너는 자아 해체적이고 관계 파괴적인 소비주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마다 독특한 인격적 실존을 지닌 사람들을 구속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힌다.

미국 여류 신학자 미셸 곤잘레스(Michelle A. Gonzlaez)는 과도한 소비와 물질주의로 나타나는 소비주의에는 사랑하고 베푸는 것 대신 차지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시된다고 하면서, 이처럼 소비주의의 중심에는 소유와 쾌락이 있기 때문에, 소비주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 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인간이 무엇을 구매하든 그것이 인간에게 결코 충분치 않고, 어떤 상품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인간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충족될 수 없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는 더 많은 구매 행위를 지향하는 시장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물질적인 것을 항상 공급해주므로 그런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서 나타나듯이(마태복음 6: 25-34),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빌립보서 4: 19). 만일 세상적인 것을 지나치게 염려한다면, 일시적인 물질에만 관심을 쏟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만 하면 옷과 음식 같은 물질이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관심을 물질에서 돌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만 생각하느라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 영성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Gonzlaez, 2011: 13-14, 32-33, 49).

곤잘레스에 따르면(Gonzlaez, 2011: 33-45),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요한복음 4: 10-14), 이 땅의 물질에 대한 강박증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디모데전서 6: 8-9). 또한 이 땅의 물질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욕구와 갈망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 다시 욕구와 갈망이 생겨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물질이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구매한다. 더구나 우리는 행복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과도함’으로 정의하는 소비문화에 넘어가고 있다. 결국, 물질로 인해 느끼는 만족감은 그 기한이 짧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참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길과 다른 대안을 보여준다. 즉, 진정한 영생,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만이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곤잘레스는 소비주의의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도 우리의 소비 습관과 소비 행태 때문에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 피조물로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지구를 돌보고 보살피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를 확대하고 지구의 자원을 남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 땅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돌보는 자들이라면(창세기 1: 28), 우리는 지구를 소유하는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파괴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의 자원이 마치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또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마구 소비하고 남용한다는 것이다(Gonzlaez, 2011: 51-53).

이와 같이, 소비는 개인의 삶과 행동과 경험 구석구석에 속속들이 파고들었으며, 최종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소비에 기초한 경제 체제 및 소비주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위협한다. 고도 소비주의 사회, 곧 물신 숭배적 소비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상품을 점점 숭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인간은 상품이 인간에게 의미와 목적과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다. 공동체의 상실, 과도한 경쟁심의 유발, 연대 의식의 부재 등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축적하라고 부추겨진다. 이는 인간이 삶에서 타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상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결핍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과도한 소비와 물질주의로 나타나는 소비주의에는 사랑하고 베푸는 것 대신 차지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시된다. 이처럼 소비주의의 중심에는 소유와 쾌락이 있기에, 소비주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 체계이다. 물질로 인해 느끼는 만족감은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참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진정한 영생,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만이 온다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난다.

2.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

소비 사회의 인간, 곧 ‘소비 인간’은 다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소비 인간’은 신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다. 또한 ‘소비 인간’은 지칠 줄 모르는 욕구를 통해 타자를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이다. 그리고 ‘소비 인간’은 상품 이외에 다른 관계와 절연하고 스스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소비 인간’은 더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신과 같이 되어 자신의 운명과 피조세계의 창조주로 군림하려고 한다. ‘소비 인간’은 한계를 넘어서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의 화신이다. 더욱이, ‘소비 인간’은 더 많은 것을 향유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갈망

해야 하는 운명적 굴레를 짊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타인 및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다. 또한 이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기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또한 이런 인간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 삶을 사는 존재이다(강성영, 2007: 210-211).

곤잘레스에 따르면(Gonzalez, 2011: 58),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본성에서 확인된다. 우리는 하나님, 동료 인간, 나머지 피조물과 맺는 관계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인간은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이다. 특히, 우리가 맺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과 일,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정의로운 일을 우리의 삶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한다.

캐버너에 따르면(Kavanaugh, 2006: 72, 96-100),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물질 숭배적 소비 사회에 저항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소비주의 문화와 충돌하는 길이며, 물질 숭배적 소비 사회 안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자유의 길이다.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르는 삶으로 제시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물리치거나 거절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마태복음 5: 42),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한다(마태복음 6: 1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마태복음 6: 24),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권고한다(마태복음 6: 25). 예수 그리스도가 밤낮 사십일을 금식한 이후에 악마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빵이 되게 해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이 시험을 물리친다(마태복음 4: 1-4).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시험의 극복은, 굶주림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육적 욕망과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마리아의 찬가가 암시하듯이(누가복음 1: 46-55),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십자가 순종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 인간쓰레기,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생산력이 낮은 사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기고 선포한 메시아 왕국은 고도 소비주의 사회에 맞서는 대안 사회이면서도, 일차원적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악마에게 경배하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대항하는 대안 사회이다.

캐버너는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 인격적이며 지속적

인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 타인과의 경쟁심을 버리는 것, 타인과의 연대 의식으로 결속되는 것을 이런 소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대안적인 삶으로서 제시한다. 즉, 물신 숭배적 소비주의 문화가 부추기고 강요하는 경쟁심과 개인주의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토론하며 찬양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 공동체는 섬김과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공동체이며, 격려하고 지원하는 공동체이다. 또한 이런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이고, 자유와 정의를 이루는 일을 지향하는 공동체이다.¹⁷ 캐버너는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소비 문화의 고립주의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물신 숭배적 소비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대안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이런 절제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헌신과 나눔, 이해와 신뢰, 용서와 치유, 공헌과 사랑, 고독 속에서의 회복, 공동체의 재발견, 겸소한 삶, 정의에 대한 헌신,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 등이다(Kavanaugh, 2006: 147-150).

캐버너는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규정한다. 첫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시간이다. 둘째, 믿음과 소망의 행위에 참여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넷째, 성서 안에서와 자신의 내적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다섯째, 우리가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맡기는 시간이다. 따라서 기도를 위한 침묵, 기도의 진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중심으로 삼는 태도와 같은 기도하는 모든 과정이야말로, 물신숭배적인 소비 사회에서 소비주의 문화에 철저하게 맞서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인격과 정체성을 되찾는 행위이고, 우리 삶의 소외와 상품화를 극복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캐버너는 기도야말로 사회적, 정치적 행위라고 하면서, 기도는 가장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힘을 만들어 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행위와 지속적인 사회적 헌신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한다(Kavanaugh, 2006: 150-155).

엘렐은 기도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쟁으로 간주하면서, 우리는 소비 사회가 우리의 삶에 부여한 의미

17) 성서적으로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진수는 '사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제자들에게 이어지면 제자들이 다시 세상 모든 이에게로 전이하는 사랑의 실천이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그 사랑의 실천은 '나눔', '배필기', '보살핌', '섬김' 등으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상은 바로 모든 이웃이다(김경동, 2010: 209).

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룰에 따르면(Ellul, 2007: 729-730), 소비 사회는 더 많이 소비하는 것만을 우리 일과 삶의 의미 및 우리 사회의 가치로 제시한다. 이런 관행과 이데올로기에 갇힌 기도는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 소비에 매인다. 이제 기도는 인간에게 더 많은 소비를 조장할 때에만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한 물건들을 확보하는 것인 ‘청원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건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느끼지만, 실제로 이 물건들은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소비 사회 안에서 생산된 잡다한 물건들을 가지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을 주는 대상이 된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필요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소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기도는 영적 소비 행위, 곧 하나님을 소비하려는 행위가 된다. 더욱이, 우리 각자는 소비의 필요성에 너무도 깊이 매여 있는 나머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와 같이, 기도는 소비와 연관되어 무엇인가를 습득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를 변질시키는 세상에서 비롯된 욕망과 충동에 맞서 우리 내면에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용훈에 따르면(조용훈, 2013: 388), 기독교는 창조와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태학적 책임을 강조한다. 동물에 대한 돌봄은 물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룰은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 질서를 깨트릴 때, 물과 공기를 더럽히고 숲을 파괴할 때, 개간된 땅을 황폐화시키고 동물의 수많은 종류를 사라지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여긴다(Ellul, 2004b: 228). 엘룰에 따르면(Ellul, 2004b: 229-230), 인간이 자신의 유익에 모든 것을 종속시킬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소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잃는다. 우리가 자연의 요소에 생명의 유일한 가능성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회복시켜야 한다면, 이는 우리의 소망의 길로 그것을 들어가게 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듯이, 하나님을 향해 사물들을 돌려놓아 사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추긴다. 이는 사물들에게 소망을 다시 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소비 욕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고, 인간의 운명이 생활 수준 향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에 대한 과대평가는 소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놓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사물들을 위한 미래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물신 숭배적 소비 사회에 저항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소비주의 문화와 충돌하는 길이며서도, 물신 숭배적 소비 사회 안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자유의 길이다.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르는 삶으로 제시된다.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 타인과

의 연대 의식으로 결속되는 것이 소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대안적인 삶으로 제시된다. 기도는 물신숭배적인 소비 사회에서 소비주의 문화에 철저하게 맞서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소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도는 영적 소비 행위, 곧 하나님을 소비하려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를 변질시키는 세상에서 비롯된 욕망과 충동에 맞서 우리 내면에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 질서를 깨트릴 때, 물과 공기를 더럽히고 숲을 파괴할 때, 땅을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동물을 사라지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을 황폐하게 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소비 욕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V. 결론

현대 소비 사회 안에서 인간은 더는 자율적 주체일 수 없는 존재, 즉 사물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로 전락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모방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에 좌우되는 소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현대 소비 사회 안에서 인간성과 주체적 의지가 결여된 인간은 아무리 소비를 거부하려고 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 딜레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인간은 소비를 하지 않고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비 자체는 죄악이 아니다. 문제는 과도한 소비이다. 과도한 소비를 통해 환경이 파괴되기 마련이고, 소비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과소비 사회’에서는 소비가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사회적으로 다른 계층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런 현상이 ‘과소비 이데올로기’라는 형태로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므로 ‘과소비 사회’에서는 물질적 만족은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물질적 만족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과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건을 구입할 때, 자신을 가장 열광시키는 감정을 느낀다. 또한 ‘과소비 사회’에서 소비의 즐거움은 삶의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채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휘둘리고 종속된다. 더욱이, ‘과소비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으나 상당수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부각된다. 특히,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심정적으로 피폐함에 빠지는 실상이 나타나면서, 걱정과 실망, 사회적·개인적 불안감이 증폭된다.

캐버너에 따르면(Kavanaugh, 2006: 179, 184-185), 소비주의 문화의 공허한 내적 삶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가식과 치장을 벗고 무제한적인 생산과 소비의 충동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라는 단

순한 현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식을 버리고 우리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인격적이며 언약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만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이 곧 소비에 대한 거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소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사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구체적인 실체도 지닐 수 없다. 결국,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전 지구적 환경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환경 위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 환경 위기의 원인은 소수 지배체제가 물질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점점 고갈되어가는 자연 자원,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의 원인은, 인류가 원자재, 에너지, 각종 제품을 언제나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지구는 유한하기 때문에, 끝없는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둔 대량 소비 사회는 이미 한계에 이른다. 소비 사회가 추구하는 ‘만인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 사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대안은 바로 ‘소비 사회로부터의 탈출’이다. 결국, 기존의 소비 메커니즘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올수록, 또한 대안 경제를 기반으로 삼아 고도 소비 사회에서 벗어날수록,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남들과 더불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으며, 가진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짧은 기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고도성장과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기에 억눌린 그동안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과소비 열풍이 사회문제가 된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의 소비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계층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의 양극화가 진행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소비문화 속에는 ‘메이커 병’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고급 브랜드에 대한 소비 욕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 소비 사회에서 고가 브랜드에 대한 집착과 숭배 현상 및 소위 고가의 수입 브랜드 제품을 일컫는 ‘명품’에 대한 과시적 소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소비 사회에서 소비는 사회적 신분과 계급의 차별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특징지어지는 한국 사회의 소비문화 가운데서 물질 숭배적 소비 사회에 저항하라는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르면서, 고도 소비주의 사회에 맞서는 대안 사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욕망의 절제, 불편의 감수,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이 대안적 삶은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에 종속시키지 않는 동시에, 세상의 소비 욕구에 굴복하지 않는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대안적 삶은 환경보호론자들이 강조하는 에너지 절약, 쓰레기 배출 감소, 내구성 제품의 이용, 자동차의 포기, 낡은 물건의 수리 사용 등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결국, 고도 소비주의 사회에 맞서 대안 사회를 제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은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비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그 대안적 삶은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타심, 호혜, 공생, 나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같은 가치들과 더불어 '무상 공여'의 정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조용훈에 따르면(조용훈, 2013: 393-394),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체로서 자신의 소비 행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회가 '윤리적 소비'¹⁸⁾와 윤리적 가치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 행위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는 '녹색 소비'를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며, 유기 농산품이나 지역생산품을 식재료로 교인들의 친교 식탁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회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네 가게나 인근 슈퍼마켓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 혹은 도농 교류를 통해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교회가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간접적 방법으로 '윤리적 소비'를 도울 수도 있다. 지역 교회는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지역 교회의 소비자 운동은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비용의 감소나 주주의 이익 극대화만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정무역 같은 사회 책임도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엘룰은 인간의 참된 자유는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다고 주장한다(고린도후서 3: 16-17).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굶주림', '지배', '하나님의 자리 차지'라는 세 가지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들을 극복하기 때문이다(Ellul, 1973: 59-65). 엘룰에 따르면(Ellul, 1974: 129-130, 153-154), 자유로운 인간은 탐욕이 없는 존재이고, 타인을 사물로서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만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인간은 대가 없이 거저 주는 '무상 공여'의 정신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18) 일반적으로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넘어서 도덕적 신념에 기초하여 동물의 복지, 미래 세대, 환경 문제, 지역공동체, 생산국 노동자의 인권과 같은 윤리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소비 행동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소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나 품질 사이의 경제 합리성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소비자의 책임성, 즉 오늘날 문제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 행동이다. '윤리적 소비'의 유형에는 소비 행동에서 환경파괴나 자원 고갈 같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소비'인 '녹색 소비', 지역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비 행위인 '지역 소비(로컬 소비)', 산업국 소비자와 저개발국 생산자나 노동자 사이에 공정한 무역 거래를 통해 저개발국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소비 운동인 '공정무역' 등이 있다(조용훈, 2013: 372-386).

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은 대가 없이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나타낸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통해, 좌절이 근본적으로 치유된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더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선전과 광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성영 (2007). 소비 사회의 인간 이해 : ‘광고’를 통해 본 욕구와 한계의 변증법. **신학사상**, 138집 (2007 가을), 203-222.
- [Kang, S. Y. (2007). Understanding Human Existence of Consumer Society - Looking at dialectics of desire and limitation through commercial advertisement. *Theological Thought*, Vol.138 (2007 autumn), 203-222.]
- 강효민 (2013). 소비 사회, Veblen의 『유한계급론』과 여가스포츠 소비의 계급화 구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7권 제2호, 45-58.
- [Kang, H. M. (2013).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Leisure Sport Consumption and Thorstein Veblen's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in Consumption Society.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37 No.-2 (2013), 45-58.]
- 김경동 (2010).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서울: 한들.
- [Kim, K. D. (2010). *Sociology on the Christian community mouvement*. Seoul: Handeul.]
- 김난도 (2007). **사치의 나라-럭셔리 코리아**, 서울:미래의 창.
- [Kim, N. D. (2007). *Country of Luxury-Luxurious Korea*. Seoul: Miraeuichang]
- 남은영 (2011). **한국 사회 변동과 중산층의 소비문화**. 서울: 나남.
- [Nam, E. Y. (2011). *Social Change and Consumption Culture of Middle Class in Korean Society*. Seoul: Nanam.]
- 박규상 (2012). **행복한 사람은 쇼핑을 하지 않는다**. 서울: 21세기북스.
- [Park, K. S. (2012). *Happy people don't do the shopping*. Seoul: Isipilsekibooks.]
- 이두원 (2007). 대중 소비 사회의 브랜드 소비가치 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 브랜드 기호의 구조, 의미, 화용적 차원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일반**, 제15권 3 (2007 가을), 134-154.
- [Lee, D. W. (2007). A Semiotic Explication of the Brand Value System in a Mass Consumption Society: A Syntactic, Semantic, Pragmatic Review on Brand Sig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15 No.-3 (2007 autumn), 134-154]
- 이장형(2005), 대량소비 문화와 물질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 사회윤리**, Vol.10 No.-[2005], 105-131.

-
- [Lee, J. H. (2005). Responsibility of Christianity for the Culture of Mass Consumption and the Materialism, *Christian Social Ethics*. Vol.10 No.-(2005), 105-131.]
- 이황직 (2012). 신성한 놀이로서의 브랜드 숭배 : 기술복지시대 패션 브랜드 소비의 의미 분석. **사회 이론**, 2012년 봄/여름호, 3-33.
- [Yi, H.-J. (2012). The Cult of the Luxury Brand as a Sacred Play. *Social Theory*, 2012 spring/summer, 3-33.]
- 전광철 역. (2013). **성장없는 번영**, Jackson T. (2009),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 for a Finite Planet. 서울: 착한책가게.
- [Jeon, K. C. (2009),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 for a Finite Planet. Seoul: Chaghanchaegkake. Trans. Jackson T. (2009),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 for a Finite Planet*. London: Tayor & Franci, Earthscan]
- 정준 (1997). **소비사회의 실상과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모색**. 한국소비자보호원.
- [Jeong, J. (1997). The Fact of the Consumption Society and the Pursuit of the Desirable Consumption Culture. Seoul: Korea Consumer Agency]
- 조용훈 (2013).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기독교 사회윤리**, Vol.27 No.-[2013], 369-398.
- [Jo. Y. H. (2013), A Study on Ethical Consum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Christian Social Ethics*. Vol.27 No.-(2013), 369-398.]
-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Édition Denoël.
- Bauman, Z. (2012). On Education : *Conversations with Riccardo Mazzeo*.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benefit us all*. Cambridge: Polity Press.
- Boeglin. N. et al. (2006). *Changer d'ère... : Pour construire une nouvelle relation à l'environnement*. Paris: Le pommier.
- Ellul J. (1973). *Éthique de la liberté, tome I*. Genève: Labor et Fides.
- _____. (1974). *Éthique de la liberté, tome II*. Genève: Labor et Fides.
- _____. (2004a). *L'espérance oubliée*. Paris: La Table Ronde.
- _____. (2004b). *Le système technicien*. Calmann-Lévy, Paris: Le Cherche Midi, 2004.

- _____. (2007). *L'impossible prière in Le défi et le nouveau : Œuvres théologiques 1948-1991*, Paris: La Table Ronde.
- Gonzalez M. (2011), *Shopp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 Kavanaugh, J. F. (2006).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New York: The ORBIS BOOKS.
- Kempf, H. (2007). *Comment les riches détruisent la planète*.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2009). *Pour sauver la planète, sortez du capitalisme*.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2013). *Fin de l'Occident, naissance du monde*. Paris: Éditions du Seuil.
- Latouche, S. (2007). *Petit traité de la décroissance sereine*. Paris: Mille et Une Nuits.
- _____. (2010). *Sortir de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Voix et voies de la décroissance*. Paris: Les liens qui libèrent.
- _____. (2011). *Vers une société d'abondance frugale : contresens et controverses sur la décroissance*, Paris: Mille et une nuits.
- Lipovetsky, G. (2006). *Le Bonheur paradoxal : essai sur la société d'hyperconsommation*, Paris: Gallimard.
- Porquet J.-L. (2012). *Jacques Ellul. L'homme qui avait (presque) tout prévu. Nucléaire, nanotechnologies, OGM, propagande, terrorisme...*. Paris: Le Cherche Midi.
- Veblen, T. (2007).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소비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lternative Life of Christians in the Consumption Society

이상민 (서울국제고등학교)

논문초록

현대사회는 흔히 '소비 사회'로 규정되지만, '과소비 사회'라고 진단되기도 한다.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소비는 개인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개인의 생활양식을 이루는 핵심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 현대 소비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고, '과소비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과소비 사회'에서의 개인의 소비심리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소비문화가 드러내는 특징을 밝힌다. 다음으로,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도한 소비를 통해 초래된 환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탈성장'의 필요성 및 '탈성장 사회'의 추구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대 소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소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대안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대안적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욕망의 절제, 불편의 감수,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 실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특히, 이 대안적 삶은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에 종속시키지 않는 동시에 세상의 소비 욕구에 굴복하지 않는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주제어: 소비 사회, 환경 위기, 탈성장, 탈성장 사회, 대안적 삶

‘잉여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 -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 *

Psychoanalytic Exploration of Surplus Desire and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 Focusing on the movie “Parasites” -

전성호 (SungHo Jeon)**

이현심 (HyunSim Lee)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창돈 (ChangDon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 of distorted surplus desire which is expressed by the drive, the work of the mind close to instinct without clear thoughts or aim, combined with the collapse of the ‘Big Other’ in the modern society, and to present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attempted a structural analysis to think of a film as a text. Jacques Lacan’s L scheme was applied to explore and structure i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our important points were found. First, the parasitic relationship of the three families based on the ideological belief of the narcissistic familialism in the social psychological situations in which the control function of the ‘Big Other’ does not work properly. Second, the perverted surplus desire problems, including the distorted fantastic gaze and the symbolic manipulation to satisfy the unfilled lack of mind. Third, even if it’s an unreal dream close to delusion, looking at it, the function of fantasy(=agalma) to charge the deficiency of mind to endure the tough reality. Fourth, the problem of in-depth psychology, that the death drive is never foreclosed by a lifestyle that relies on the distorted surplus desire produced by the narcissistic familial illusions, but always returns to the cause of destru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the subjectivization process of desire unto God through ‘the Cross Prayer Life’ as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to the problem of distorted surplus desire, the modern people’s undeniable self-portrait in the film.

Key words : Parasites, Surplus Desire, Big Other, The Cross Prayer Life, Subjectivization of Desire

* 2020년 02월 21일 접수, 03월 18일 최종수정, 03월 20일 게재확정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수료(Seoul Venture University),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sungho@gangnam.go.kr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Seoul Venture University),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sim7173@suv.ac.kr

**** (사)북한체제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이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62길 98, cdlee@kbs.co.kr

I. 서론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을 포함한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종말을 예고(豫告)하는 현 시대의 생활방식(lifestyle) 문제인데, 이를 다양한 장르(genre)의 영상과 언어를 통하여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번역(翻譯)을 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객에게 시원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욕망의 실현과 성취 장면의 동일시(同一視)를 통한 마음의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의 좌절과 삶의 파멸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수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욕망의 찌꺼기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살면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경고(警告)의 메시지를 영상미학적으로 제대로 담아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욕망의 본질로서의 관객(인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용어로서 흔히 탈근대 포스트모던 다문화주의를 말하고 있다(오미란, 2007). 탈근대란, 한마디로 전통이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억압되고 소외되었던 서양보다는 동양, 남성보다는 여성, 이성애자보다는 동성애자, 생명욕동보다는 죽음욕동, 중심보다는 주변, 표면적 의식보다는 이면적 무의식 등 탈(脫)구조 현상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사회적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모습을 정신분석학 용어로 표현하면, 대타자(大他者, Big Other)¹ 붕괴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사회적 배경 역시 대타자 붕괴상황이라고 분별된다.

본 소고(小考)의 목적은 욕망의 원시적(原始的) 형태인 욕동(慾動, drive)의 왜곡된 흐름 문제를 분석하고, 그 흐름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욕동은 한편으로는 삶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욕동은 생산성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이해되기도 하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缺乏)의 원인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욕동에 대한 이해가 상반되는 것은 욕동의 관계 지향적(relationship-oriented) 속성 때문이다. 욕동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

1) 대타자 또는 큰타자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Autre(Other)는 정신분석학에서 “개별 주체들이 경험하는 상징적 질서(the Symbolic Order) 또는 그러한 질서를 대리 표상하는 다른 주체”를 의미한다(하상복, 2006). 예컨대, 바둑게임에서 좌우 각각 19줄의 바둑판, 흑백 바둑돌 그리고 둘러싸이면 죽는다는 원리 등은 바둑게임의 근원적인 바탕 질서로서의 대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양육자)는 대타자로 여겨진다. 아기의 생존과 행복은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기의 대타자(그녀)의 대타자 그리고 그 대타자의 대타자 즉,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대타자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Jacques Lacan 정신분석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해답은 ‘기호형식의 저장소’로서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질서, 상징계(象徵界, symbolic)이다. 이는 ‘말하는 인간’이라는 특성을 중시하는 언어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인가를 향(向)해 흐르고 움직인다. 여기서 ‘향하고 관계하는 과정과 흐름’이 욕동의 진화(進化) 과정이다. 욕동 자체는 선택능력이 없고 계획도 없다. 다만, 쾌락과 향락(享樂, jouissance)의 기쁨을 추구할 뿐이다. 쾌락과 향락은 모두 기쁨이라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쾌락은 현실적 제약(制約) 안(within)에서 추구되는 기쁨이고, 향락은 현실적 제약과 금지를 위반(違反)해서라도 추구되는 기쁨이라는 면에서 구별된다(박찬부, 2011).

본 연구는 인간의 욕동(drive)이 현대사회의 대타자 붕괴상황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잉여욕망의 문제를 영화 ‘기생충’의 핵심 주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행위는 대타자의 억압이 미쳐 포섭하지 못한 잉여욕망이 교환되면서 끊임 없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택영, 2003).

이 영화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생활방식 문제점을 세 가족을 통해 보여준다. 이 영화에 나타난 세 가족 중에서, 특히 ‘기우’의 가족은 자신의 가족행복을 위해 기생충 같은 생활방식도 마다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생충 같은 생활방식은 제대로 정화(淨化)되지 않은 욕망의 문제가 ‘나르시시즘(Narcissism) 가족주의’로 드러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허만섭(2020)은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본 영화 <기생충>에서 현대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적 폭력과 아비투스(Habitus)² 개념으로 분석하였고 둘째, 손성우(2019)의 ‘영화 <기생충>의 욕망의 자리와 환상의 윤리’는 정신분석학적 연구로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쟁과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공생의 조건으로 환상의 윤리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이다운(2019)은 ‘영화 <기생충> 연구 : 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 공존의 불가능성’에서 계급적 패배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서로 함께 살 수 없다는 비판적 분석과 관객들의 성찰 촉구 수준에서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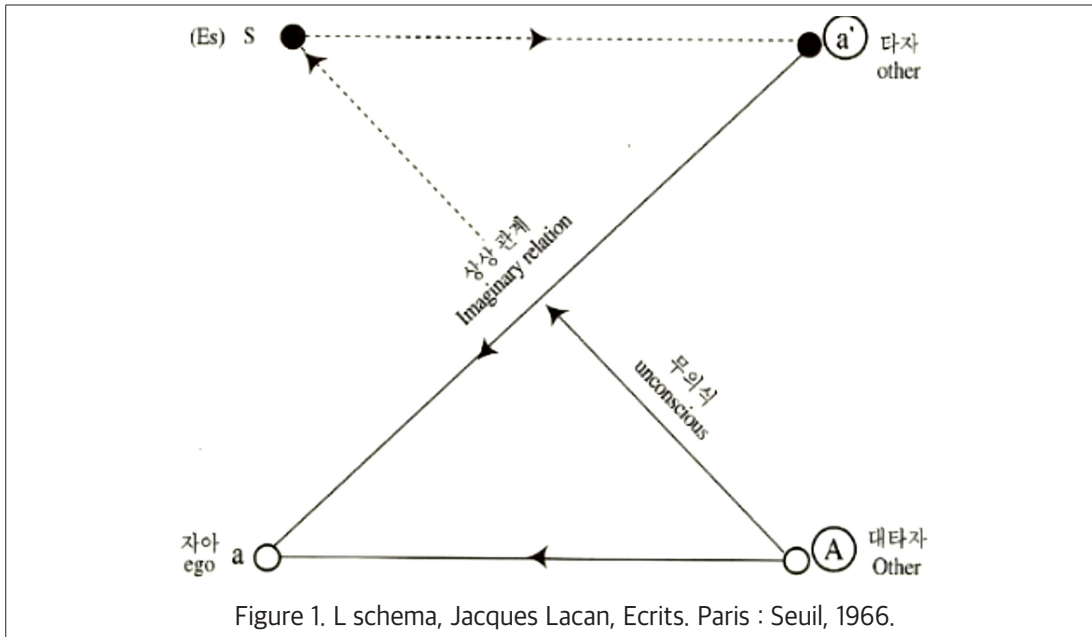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은 영화 ‘기생충’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인간이 향자적(向自的, relationship-oriented) 존재라는 점에 착안(着眼)하여 욕망 대상을 근본적으로 자리바꿈하는 방식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소고는 이론적 근거로서 Lacan의 L도식에 대하여 살펴본 후, 본문에서 영화에 나타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 환상(幻想)이 생산하는 잉여욕망과 파멸적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제기하는 도착적 잉여욕망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해법(solution),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주체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

II. 이론적 근거 : L도식

Lacan은 그의 정신분석이론을 다이어그램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처음 등장한 것이 L도식(L schema)이다. 이 도식은 그리스 알파벳 열한 번째 글자인 대문자 람다(lambda)와 형태가 유사해서 L도식으로 불린다. 이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도표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L도식>왼쪽 상단 S는 무의식적 주체(Es)의 자리, 대각선 방향의 오른쪽 아래 A는 대타자(Big Other), 왼쪽 하단의 a는 자아(ego), 오른쪽 상단 a'는 소타자(small other)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의 출발점은 대타자이다.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심층(深層)에서 무의식적 주체(Es, 욕동)와 대타자는 상징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심층(무의식)에서의 상징적 관계가, 마음의 표층(의식)적 차원에서는 자아와 소타자의 상상적 관계(imaginary relation, 의식)로 나타난다. 이는 <L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타자의 무의식적 주체를 향한 대각선 방향의 무의식 흐름이 상상계(의식)에 의해 막혀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의 진실이 의식 세계에서 왜곡(歪曲)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아의 의식(상상계)은 근본적으로 오인(誤認)과 착각(錯覺)을 포함하는 세계임을 뜻한다.

자아(ego)는 소타자의 이미지와의 동일시(同一視)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6개월부터 18개월 사

이, 언어의 체계인 상징계로 들어서기 전, 유아는 자기 자신과 외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비로소 이상적 자아상을 갖게 된다(서상문, 2011). 이때 심층(深層) 대타자의 자리(Big Other seat)를 차지하고 있던 엄마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바로 너야’라고 인정하는 말(=하단의 실선, 대타자→자아)을 하는데, 유아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엄마의 인정 시선과 신호가 바로 대타자의 장소로부터 오는 상징적 기호형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도식L>은 무의식적 주체와 자아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무의식적 주체(Es)는 대타자의 기호형식에 의해 표상됨으로써 발생하고, 자아는 소타자의 이미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발생한다. 자아(ego)와 무의식 주체(Es)는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반드시 소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서로 떨어져서 분열돼 있다.

최초의 원시적 무의식 주체(Es)는 야생마에 비유되는 이드(i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사(騎士, knight)에 비유될 수 있는 대타자는 무의식의 원시적 주체가 세상에 적응하도록 길들인다. 무의식 주체는 대타자의 세계, 상징계에 온전히 진입하지 않고는 건강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쾌락원리에 따라서 무의식적 주체 자신의 기쁨을 조급하게 추구하기 전에 먼저 타자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는 것, 현실원리를 배운다. 예컨대, 갓 태어난 아기의 정신세계는 출생이전에 이미 존재해 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회의 가치와 질서가 아기의 정신세계에 침투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대타자(상징계)에 적응하고 상징을 다루는 방식을 체득할 때 비로소 주체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된다고 하겠다.

무의식 주체(Es)가 대타자(상징계)와 일체(一體, 한몸)가 되었다면, 불교적으로는 성불(成佛)했다고 할 수 있겠고, 기독교 예수는 대타자(상징계, 말씀)가 육체(肉體)로 태어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 이전에는 무엇(누구)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만남에 대한 주체의 응답에 따라서 인격의 수준(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타자는 원칙적으로 비인격적 언어(기호형식)의 자리이다. 말씀의 자리 또는 도(道)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무의식 세계이다. 소타자는 단순히 실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다. 욕망의 거울에 비친 자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타자는 자기와 닮은 타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거울을 통해서 본다(상상적 동일시). 대타자는 결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그러나 말하는 존재로서의 모든 사람들은 언어의 장소인 대타자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실선만으로 파악되는 자아(ego)는 상상적 허구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점선으로 표시된 욕망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이해를 위한 정신분석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단의 점선은 무의식 주체에서 소타자로의 심리적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소타자는 실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환상(幻想)을 통해 본 이미지(image)라고 할 수 있다. 즉, 왜곡된 시선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보이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욕망의 구멍(결핍)을 채워줄 것으로 믿어지는

대상이다. 모든 주체는 욕망을 생산하고 이를 좇지만 결코 완전히 충족되는 법이 없다. 욕망이란, 주체에게 결핍된 것(=없는 것)이 사랑의 대상에게 상상적으로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 사회, 언어, 소통 등의 상징계의 체계에 잡히지 않고, 포기(拋棄)되고 남은 심적(心的) 에너지가 잉여욕동이다. 이는 상징계(대타자)에 미쳐 포섭되지 못한 실재(實在)의 잔여물이다. 욕동은 현실 원칙의 억압으로 분열된 주체의 자기동일성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인(誤認)을 통해서 자신을 구성하고 환상(幻想) 속에서 자신을 실현(만족)시킨다.

III. 연구방법

영화를 한 편의 텍스트로 사고하는 구조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조론적 분석이란, 연구대상의 전체를 꿰뚫어보기 위하여 먼저 그 구조를 파악하자는 것이고, 그 대상의 다양한 내용을 간추릴 때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영역과 차원을 달리하는 유형적인 요약을 시도하는 것이다(김중기, 1999).

Lacan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상징계, 실재계, 상상계로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보로메오 매듭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이면서 셋’ 또는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닌’ 관계이다. 보로메오 매듭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매듭처럼 보이지만 하나나 둘을 놓고 볼 때는 서로 분리 되어있고, 셋을 합쳐 놓고 보면 고리들이 세 잎 모양의 매듭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보인다.

본 연구는 Lacan의 정신분석이론을 바탕으로 영화에 숨겨진 무의식 세계, 특히 잉여욕망 문제를 찾고, 이를 L도식을 적용하여 구조화하려고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타자(Big Other) 붕괴(崩壞) 상황과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가족주의

영화 ‘기생충’의 사회심리적인 배경은, 포스트모던적 대타자 붕괴상황과 가족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르시시즘의 욕망은 통제(統制)보다는 오히려 탈주(脫走)의 자유를 얻고 있다. 욕망의 탈주 개념은 탈근대사회를 대변하는 이름처럼 되었다(김명주, 2009). 영화에서 제기(提起)된 문제는 긍정적 차원의 생산적인 탈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산적인 탈주란, 각 개인 및 집단이 자기 책임 하에 새로운 존재(New being)와 새것(New thing)을 구성(構成)해 나가기 위한 시도(試圖)를 말한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에서 가족 나르시시즘으로서의 욕

망의 탈주는, 결코 창조적인 새 존재를 향한 모습이 아니다. 실재(實在, the real)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왜곡된 응시에 의한 환상을 통해 상상계적 자아(ego)의 강화(強化)만을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은 참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인 나르시시즘이라 볼 수 없다.

여기서 무의식 주체(S)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a) 원시적 주체 → (b) 대타자(상징계) → (c) 무의식 주체

(a)원시적 주체는 100% 순수욕동(drive)의 상태이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의 상태, 더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선악과 사건 이전 원죄(原罪)와 무관한 아담의 내면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에서 순수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연교’의 아들 ‘다송’이다.

외부현실의 언어와 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b)외부(外部) 질서가 아기의 내면세계로 침투하여 아기의 마음속에 대타자(상징계) 질서가 형성되면서 (c)무의식 주체는 분열된다. 성서의 선악과 사건으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이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의 내면세계에 뱀의 질서가 형성되었다. 선악의 분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기준과 잣대이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참된 대타자(하나님 말씀) 질서와 ‘먹어도 문제없다’는 거짓된 대타자(뱀의 말) 질서의 대립과 상호작용(相互作用)을 역사, 문학, 서신, 이야기 등 다양한 형식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특히 선민(選民)의 내면세계 질서 형성에 매우 큰 관심을 표명(表明)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의 근원적 본질은 욕망 자체라기보다는 욕망이 향(向)하고 관계하는 내면의 질서, 대타자라는 것이 파악된다.

100% 순수 욕동(drive)은 대타자 질서에 적응되고 포섭된 형태인 욕망(desire)과 대타자 질서에 아직 포섭되지 않은 나머지 욕동(drive)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나머지(잉여) 욕동이, 쾌락원칙을 넘어선 고통을 수반(隨伴)하는 향락을 향(向)하는, 잉여욕망의 원형(原形)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욕망은 대타자(상징계) 영역 내에서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욕동은 대타자의 결여(缺如) 영역, 즉 실재계(實在界)의 기쁨을 추구한다. 이때 대타자의 금기(禁忌)와 거세(去勢)의 질서를 넘어서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향락(jouissance)을 향하는 잉여욕망에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 영화 ‘기생충’도 잉여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성서에도 잉여욕망의 고통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온전한 하늘의 평안을 향(向)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환난(患難)이다(요16:33). 그러나 이러한 환난의 근원은 선민의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기에, 곧 이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잉여욕망과 성서에 나타난 잉여욕망의 질적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기생충’의 잉여욕망은 대타자가 붕괴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도착적(倒錯的) 욕망이며, 반면 성서에서의 잉여욕망은 순수욕망으로서 실재 하나님을 지향하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잉여욕망의 두 가지 모

습은 욕망이 향하는 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별된다.

욕망(conatus)은 자기보존 및 확장의 힘이다(Spinoza, Baruch De).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며,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면서 또한 자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한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이러한 욕망의 흐름은 여실히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흐름은 영화의 끝에 이를수록 인간존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간의 본질인 욕망 자체보다는 ‘욕망하는 방식과 욕망대상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대타자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심리사회적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라는 송고(崇古)한 이데올로기 신념에 기초한 세 가족의 기생적인 관계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왜곡된 응시(환상)와 위장(偽裝)으로 넘쳐난다. 예컨대, 영화 내용 중 연세대에 들어가서 ‘다혜’와 결혼, 박사장 사위가 되어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기우’의 생각 등은 모두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도착(倒錯)적 잉여욕망, 상징적 조작(造作)

욕동은 억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억압된 무의식은 반드시 회귀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문학 예술이나 스포츠, 오락 게임 등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 배설(排泄)하는 편을 택한다. 욕동의 우회적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회적인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때, 법과 질서라는 상징계의 금기를 벗어나는 욕동(실재계)은 사회와 문명의 요구를 피해 위장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잉여욕망이 되어 사회와 문명을 파괴하는 폭력과 테러가 된다. 특히 주체의 환상이 깨질 때, 잉여욕망은 파괴적 괴물이 된다. 영화에서 수석(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돌변하는 장면은, 통제를 벗어난 잉여욕망의 파괴성을 대표하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대타자(상징계)의 이면적 모습이 나타나는데, 법의 질서는 낮과 밤의 원리가 다르다. 밤에는 공식적인 법이 통용되지 않는다. 밤의 법은 대단히 외설(猥褻)적이다. 예컨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병사를 구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부대에서 선후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병사는 비공식적으로는 구타당한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성문법과 상치(相馳)되는 관행으로서의 법이 있다. 관행의 법집행은 아무도 발설(發說)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는 모두 모르는 척 한다. 따라서 위법이면서 동시에 위법이 아닌 외설적 행동이 통용된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송고한 이념으로 작용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 안에서 밤의 법이 횡행(橫行)한다. 이러한 낮과 밤의 분열적인 법의 모습은 민주사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집단(=작은 대타자, small big other) 이기주의는 대타자(Big Other)의 이면(裏面)이다. 이러한 외설적 작은 대타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아(ego)는 많지 않다.

Lacan에게 초자아는, Freud의 도덕원리라기보다는,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적 욕망을 배신하고 상징적 질서 속에 자신에게 강요된 밤의 역할을 즐기도록 만드는 외설(猥褻)적 심리기제이다(김용규, 2004). 이러한 초자아는 우리가 상징적 질서 속에서 강요된 선택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즉 주체가 사회적으로 결정된 상징적 역할을 따라야 할 이상(=자아이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체 자신의 더욱 근본적 욕망을 배반했다는 죄의식에 기생(寄生)한다. 초자아 역시 강요된 선택임에도 마치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명령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초자아의 그러한 명령에 굴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욕망을 더럽힌 죄의식도 증가한다. 초자아를 따르면 따를수록 죄의식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Lacan의 초자아는 더 이상 정상적인 도덕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밤의 비공식적 도덕이기 때문에 더욱 교묘하다.

개인 주체는 외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대타자의 욕망과 초자아의 외설적 욕망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적 조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화에서 위조된 재학증명서, 팬티, 명함, 인맥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독도는 우리 땅’ 리듬에 따라 “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라고 가사를 바꾸어 노래하는 ‘기정’의 숨씨는 상징적 조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족의 기생관계는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이외에 실재적인 결핍을 메꾸기 위한 속임수로 가득하다. 상징적 조작들은 모두 진정성이 결여된 거짓이고 이를 포장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가 없다. 가족이라는 신념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상징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도착적 잉여욕망 행위가 넘쳐난다. 기생충이나 괴물로서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선택한다. 기생충에 가까운 생활방식을 하는 것으로 직접 묘사된 ‘기택’ 식구 뿐만 아니라, 고급주택의 주인 ‘동익’과 ‘연교’도 허약한 주변인들에게 심리적 착취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이야말로 기생충 생활방식을 즐기고 있는 위선자(僞善者)라는 것이 드러난다.

3. 욕망의 대상, 아갈마(agalma)

Agalma는 그리스어로 신에게 바치는 영광이나 장식품 또는 신을 본뜬 작은 입상을 뜻한다. Lacan은 agalma를 차용(借用)하여 욕망의 ‘대상 a’를 설명하였다(윤경희, 2013). Platon의 《향연》에서 아테네 명문 출신이고 재능과 미모 모두 뛰어나 당시 정치, 군사 양면에서 걸출(傑出)했었던 Alkibiades가 Socrates의 추한 외모의 이면(裏面)에 소중한 미지의 것(agalma)이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Socrates를 사랑한다(동성애). 이처럼 인간은 타자에게서 늘 자신의 욕망의 대상(agalma)을 찾게 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 Socrates는 자신에게는 결코 Alkibiades가 원하는 agalma가 없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사랑은 욕망의 속임수라는 말이 성립된다.

영화 ‘기생충’에서 순진하면서도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연교’는 자기 아들 ‘다송’이 미술 천재라는 환

상 속에 빠져있다. ‘다송’은 ‘연교’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녀의 욕망의 대상(agalma)은 아들 ‘다송’으로 부터 확인하고 싶은 미술천재성이다. Agalma는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그 자체이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자 하는 자는 인위적인 환상과 망상까지도 요구하게 된다. 영화에서 ‘연교’는 소파에서 신을 속에서 남편에게 “마약 사줘!”라고 소리친다. 욕망의 인간들은 환상이 주는 만족(agalma) 없이는 사막처럼 삭막하고도 냉혹한 현실을 결코 직면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근세’의 암굴왕 위치를 차지하게 된 ‘기택’의 아들 ‘기우’가 고급저택을 사겠다고 결심하는 모습 역시 현실성 없는 환상임을 암시하는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상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꿈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현실을 견딜 수 있다. 여기서 환상은 결핍을 충전(充填)한다는 말이 성립된다. 왜곡된 응시의 욕망이 대상a(agalma)의 원인이다. 역으로 환상의 대상a(agalma)는 욕망의 구멍(결핍)을 충전한다. ‘agalma는 없다’는 진실은 환상의 장막(帳幕)이 거워지면서 나타나는 섬뜩하고 끔찍한 실재계를 통해 드러난다. 일상생활에서 이면(실재)은 은폐되지만, 영화에서 저택 암굴에 살던 ‘근세’의 존재가 땅 위로 드러나면서, 지상의 모든 상징적 결핍과 상상적 환상은 그 실체가 밝혀진다.

4. 문명 속의 불만, 죽음욕동

문명(文明)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응집성(凝集性)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욕동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명과 개인의 갈등을 인간 내면에 구조화한 것이 Freud의 삼중구조 심리학(id, ego, superego)이다.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 현대문명의 이면(裏面)은 오히려 욕동 에너지의 배설(排泄)과 발산(發散)을 권장한다. 욕망(欲望)과 향락(享樂)의 사치(奢侈)를 즐기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게임과 도박 등 향락을 권장하고,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중독예방(中毒豫防)을 모색한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 주체는 심리적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죽음욕동)이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죽음욕동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조화, 즉 엄마와의 한 몸(one body) 상태에 대한 그리움, 향수(鄉愁)라고 할 수 있다. 인류학적으로는 성서에 나오는 에덴동산 또는 Platon의 대화편(Timaios)에 나오는 아틀란티스 등 상실된 그러나 무의식적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쁨 충만의 땅에 대한 복낙원(復樂園, Paradise Regained) 향수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나르시시즘적 자살 경향으로서 긴장 제로를 지향하는 욕동(=열반원칙, 涅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욕동은 영화 ‘기생충’에서 반문명의 상징인 인디언 복장으로 나타나서, 모든 잉여욕망의 반복구조를 종식시킨다.

죽음욕동은 피로와 분노와 불안 등이 뒤섞일 때 폭발(暴發)하게 된다. 죽음욕동은 생명에 내재(內在)된 이면(裏面)이다(남경아, 2014). 영화에서 저택(邸宅)의 지하에 숨겨있는 생활이 생명의 이면(裏

面)으로서의 실재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실재계)에 사는 ‘근세’와 ‘기택’의 센서 등(燈) 스위치 조작은 지상(상징계 및 상상계)과 소통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는 죽음욕동의 다른 이름이다. 심리적 착취(搾取)가 극점(極點)에 도달했다고 느껴질 때, 죽음욕동은 간접 경로를 우회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성경에서 ‘여호와와 날(the day of the LORD)’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고 은폐되어 있던, 실재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때로서, 이때는 심판과 죽음의 날이다.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여호와 주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등졌던 모든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向)했던 자들에게는 승리와 구원과 은혜의 날이다(사13:6; 욥2:11; 습1:7).

영화 ‘기생충’은 관객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면서도, 생활방식의 혁신이라는 도전을 던진다. 즉, 대타자 붕괴상황에서 나르시시즘적 가족이기주의 환상이 생산하는 잉여욕망에 의존하는 생활방식만으로는 문명 속의 불만, 죽음욕동(=실재의 출현)을 결단코 억압, 은폐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내재(內在)하고 있다.

V. 결론 : 하나님을 향(向)한 욕망의 주체화

영화 ‘기생충’은 세계인들을 불편함에 몰아넣었다. 이는 현대인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대한 강렬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해법(solution)은 전적으로 관객들의 과제(課題)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를 대타자 붕괴와 도착적 잉여욕망으로 파악하고, Lacan의 L도식을 적용하여 구조화하였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해법, 하나님을 향(向)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욕망의 주체화 개념을 설명한 이후, 욕망의 주체화 개념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욕망의 관련성을 연결시킨 다음, Figure 2 성막(tabernacle)과 인간 마음의 비유적 동일 구조(構造)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에 해당하는, 다섯 단계³로 구성된 ‘십자가 기도생활(The Cross prayer Life)’을 제안하고자 한다.

‘욕망의 주체화’란, 한마디로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있는 욕망을 온전한 대상을 향해(unto) 자리바꿈(transposition)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욕망은 대부분 타자의 욕망이며, 타자로부터 인정(認定)받으려는

3) 욕망의 주체화 과정 5단계 : 인간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김창대, 2009)을 성서적 언어로 번역(翻譯), 재구조화(再構造化)하였다. 5가지 조건 Authenticity, Self validation, Pattern chang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aking existential position 등에서, 예컨대 Pattern change는 옛 존재의 죽음으로 Taking existential position은 새로운 존재로 번역될 수 있다.

욕망이다(김석, 2006). 이는 상상계적 소타자의 욕망이든지 상징계적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뜻이다. 욕망의 주체화 과정은 이러한 욕망의 타자적인 속성을 깨닫고 벗어나는 과정이다. 이를 욕망의 선형(線形)적 자리바꿈 단계로 나타낸다면, 상상계적 대상에서 상징계적 대상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실재적 대상을 향(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실재를 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소타자든 대타자든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되는 발달적 애도(哀悼) 과정을 의미하며(김홍근, 2010), 욕망의 주체화는 주체의 궁핍(窮乏)을 통해 완성된다(김석, 2014). 이는 상징계에서 소외되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다(김석, 2006).

성서의 가르침 역시 마음의 궁핍을 강조하면서(마5:3),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로6:11)고 가르친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면, 세상으로부터의 자발적 소외(疏外)를 통해서만 존재를 향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더 나은 본향(히11:16),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즉 상상계와 상징계에 대한 애착을 끝내고, 실재계를 향(向)하여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의미다.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 세상 언어의 세계인 결여(缺如)된 상징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태초의 하나님 말씀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요1:1)를 욕망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욕망의 주체화이며, 이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도착적 잉여욕망을 자리바꿈시키는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방법은 기도(祈禱)인데(막11:17, 사56:7), 구약 성서의 성막(聖幕)과 성전(聖殿)은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이며(왕상8:16, 29), 기도하는 집이다(막11:17, 사56:7). 건물 성전은 신약 성서에서 마음의 성전, 인격 성전으로 대체(代替)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성전이 상징하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이병택, 2017). 따라서 성막(tabernacle)과 인간 마음은 비유적 동일 구조(構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마음의 성전이다.

지성소(Holy of Holies)는 마음의 깊은 무의식적 심층(深層)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거룩한 대상의 이름이 위치하는 자리(the place where the name of my favorite object is located)다. 여기에 하나님 이름을 두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의 이름이 위치하는 곳이 지성소이다. 마음의 구조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상징으로 표현하면(Figure 2), 지성소(Holy of Holies) 안에는 상자(Ark)가 있고, 상자(Ark) 안에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 언약의 말씀(the Covenant)이 있다. 말씀은 실재(實在, the Real)에 대한 이름이다. 따라서 Holy of Holies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참된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 다른 신(神)이 침범하면, 이는 인간 마음이 부패(腐敗)하고 타락(墮落)한 것이다. 이러한 타락은 태초 기쁨의 에덴동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무시(無視)되고, 오히려 먹어도 된다는 뱀의 말이 존

중(尊重)되었던 것이다. 즉, 선악과 사건은 뱀이 인간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게 된 사건이다. 남편이 죽어서 홀로된 과부(寡婦)에게는 하나뿐이 아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있고, 나라를 상실한 애국지사(愛國志士)에게는 조국해방(祖國解放)이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조국(祖國)의 이름을 두는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야만 거룩한 성전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요1:14).

성소(Holy Place)는 의식(意識)적 기능들이 위치하는 자리로서, 핵심적 기능은 지성(知性)과 감성(感性)과 의지(意志)라고 할 수 있다. 떡상(Table of Showbread)은 감성(感性)을, 7 등대(7-Branded Lampstand)는 지성(知性)을, 분향단(Altar of Incense)은 의지(意志)를 상징한다. 이러한 의식적 기능들은 지성소(Holy of Holies)에 위치한 기쁨과 사랑의 궁극적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에게 외아들이 최고의 가치라면, 아들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게 될수록 그녀의 감성은 기쁨을 느끼고 그 반대일 때 슬픔을 느낀다. 그녀의 지성은 아들의 성공 방법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祈禱) 역시 아들의 성공을 비는 것이다. 그녀의 의지는 자신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희생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知), 정(情), 의(意) 등 의식은 가장 좋아하는 관계대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궁극적 가치대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번제단(Bronze Altar)은 거룩한 신성(神性)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다른 신(神)들을 불태우는 자리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거룩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으므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지성소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모두 불태워야 한다. 물두명(Bronze Laver)은 덜 닦인 오염물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었는지 점검하는 마음의 거울에 해당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지성소를 무엇(누구)이 차지하느냐이다. 이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욕망의 대상이 무엇(누구)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한 주인(主人)의 자발적 노예(奴隸)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 그 자체이다. 그런데 인간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 두 가지 형태의 욕망의 주체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1차적 주체화 과정으로 사회화 과정이며, 2차적 주체화 과정은 하나님을 향(向)한 거듭남의 과정이다. 1차 주체화 과정은 타자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2차적 주체화 과정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차적 주체화 과정에서는 부득이 천성(天性)적인 자기 존재의 결여(거세, 좌절, 박탈)를 경험하게 되고, 결여를 수용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진입에 성공, 적응하게 된다(노상우 외, 2014).

1차적 주체화에 성공한 주체는 자신의 존재 결여를 채워줄 agalma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을 향한 사랑의 눈속임이고, 미끼이고, agalma를 소유한 자는 없

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대상 자체를 찾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과도적 이행대상 또는 중간대상이나 현상(Transitional Object, Transitional Phenomenon)⁴’속에서, 상실된 자기 존재의 만족을 환상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분석을 철저하게 경험하기 전에는 욕망의 진실을 깨닫기 어렵다. 즉 자기분석을 통해 욕망의 진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잃어버린 자기 원상(imago)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원죄(原罪)때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선악과 사건은 기쁨의 원인(原因)대상인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고, 그 이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마음의 공허와 결핍(缺乏)을 메우려고, 돈과 권력과 명예 등 하나님 대체물(=다른 神)을 보이는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있다. 이것이 상상계적, 상징계적 욕망이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 욕망하는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누구(무엇)도, 온전한 기쁨의 대상(하나님)과 동행(同行)했던 에덴동산의 무의식적 기억(동경)을 온전히 재현(再現)할 수 없으며, 자신 또한 타자의 온전한 욕망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때 주체는 비로소 모든 욕망의 환상과 이상화 그리고 도착적 욕망과 구별되는, 온전한 승화(昇華)의 길, 하나님을 향(向)하여 돌아서는(repent)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 이것이 2차적 주체화 과정이다. 이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은 타자(=세상의 영)에 의 예측과 맞섬이라는 욕망의 이중성을 보이면서 평생 지속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은 구약 성서에서는 상번제 생활을 통해, 신약 성서에서는 영원한 제사장,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주기도 생활을 통해 표현되었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최초의 인류 아담이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새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신자들 모두 표면적인 모양과는 달리, 이면적 실제적으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다른 신을 욕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유상섭, 2003). 요즘 코로나 19로 공적 예배가 중단된 곳이 많아졌다. 개인적 경건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한나의 기도 등을 통해 나타난 오직 하나님 통치를 욕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한동구, 2016). 구약의 상번제(常燔祭, regular burnt offering)와 신약의 주기도(主祈禱, Lord's Prayer)는 모두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과 동일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이를 융합하여 ‘십자가 기도생활(the Cross Prayer Life)’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 기도생활’은 모두 5단계로 구성된다. 탐색단계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며, 작업단계는 옛 존재를 태워버리는 번제단 기도, 응집단계는 덜 닦인 것을 씻어내는 물두멍 기도,

4) 영국의 심리학자 Donald Woods Winnicott (1896 - 1971)가 처음으로 사용한 정신분석학 용어

생산단계는 새 존재로 거듭나는 분향단 기도, 종결단계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떡상 기도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등대 기도이다. 이러한 ‘십자가 기도생활’을 주기도에 적용하면, 탐색단계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작업 및 응집단계에서 하나님 이름이 기도자의 마음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생산단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기도자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기도자의 일상생활에서 성취되면서 종결단계에 이른다.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 ‘십자가 기도생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1. 탐색단계 :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단계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전감 조성이다. 안아주기 환경(holding environment)이 조성(造成)되면, 그 안아주기 환경이 마음의 불안을 담아주게 된다. 이러한 안아주기 환경은 탁월한 상담가나 종교인, 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God)과의 연결(連結)을 통해 조성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

2. 작업단계 : 하나님 이름이 (주체의 마음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단계(1)

안전감이 형성되면, 마음의 중심(Holy of Holies)에 하나님(God) 대신 들어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 좋아했던 모든 것들(small gods)을 번제단(Bronze Altar)에서 태워버려야 한다. 지성소(Holy of Holies)는 주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대타자(Big Other)가 차지하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인데, 여기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다른 신들(small gods)을 태워버리는 단계이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 기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계이다. 이 때 내면의 나쁜 대상관계가 모두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자기대상관계가 형성된다. Heinz Kohut은 자기대상이 자기와 분리되어 경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대상은 자기의 근원이라고 보았다(안인숙 외, 2014). 이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는 존재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국가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까지 기도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5).”

3. 응집단계 : 하나님 이름이(주체의 마음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단계(2)

자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만한지를 Bronze Laver에 비쳐보면서 점검한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두 번째 의미이다. 이때 Holy of Holies에 남아있는 덜 담긴 더러운 것들까지 모두 씻어낸다.

4. 생산단계 : 하나님 나라가(주체의 마음에) 임하는 단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매일 매순간 유지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분향단, Altar of Incense). Altar of Incense은 번제단의 거룩함의 효과가 중단 없이, 유지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즉사하였다(레10:1-2). 십자가 예수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은 중단 없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십자가 기도생활이 중단되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보면 또다시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분향단의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이 향(香, incense)으로 하나님께 상달(上達)되는 것을 의미한다(계5:8). 향(香)과 가루 그리고 재가 상징하는 텅 빈 존재로서 예수와 함께 죽음에 이를 때, 비로소 속죄(贖罪)가 이루어져서 예수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엡2:6).

5. 종결단계 : 하나님의 뜻(주체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단계

마음 중심(Holy of Holies)에 하나님(법)이 들어오시면, 이때 비로소 진정한 속죄(贖罪)의 기쁨이 크게 체험되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주체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 몸은 땅에 있으나, 마음은 늘 하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잉여욕망은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을 향(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향하게 된다. 떡상(Table of Showbread)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Ark)을 먹어서 마음이 배부르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떡)으로 배불리 먹는 은혜와 기쁨의 일이 된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고, 그 뜻대로 충만한 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7-Branched Lampstand). 등대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상징한다. 십자가 기도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전5:16-18).”

영원하고 온전한 욕망대상으로서의 숙주(宿主)를 발견하고, 그 숙주를 향(向)해 모든 마음의 에너지(욕망)를 쏟는 것이야말로 잉여욕망의 왜곡된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온전한 숙주는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도, 태초의 도(道)와 법(法)이다. 결국,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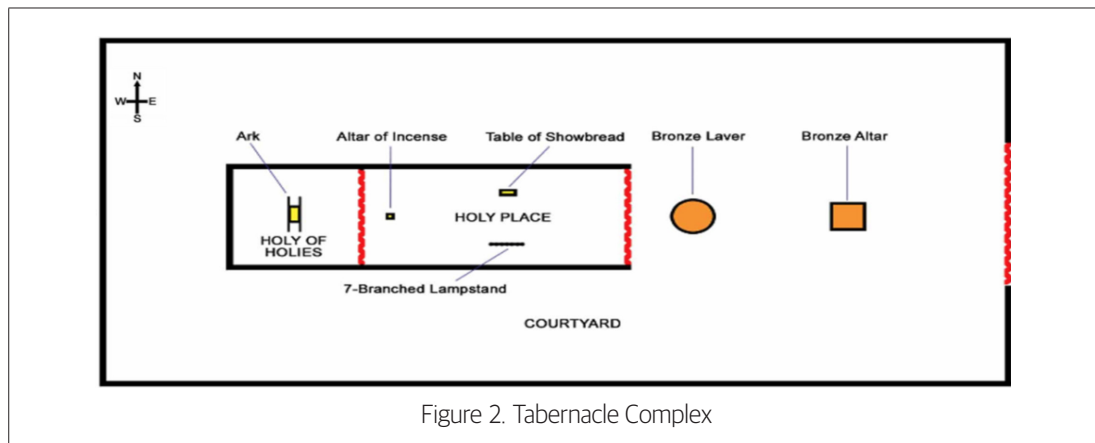


Figure 2. Tabernacle Complex

대상과의 자유로운 관계는 오히려 그 대상과 분리(分離)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삼위 하나님(천국)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더 좋아지는 십자가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통째로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권택영(2003). **잉여쾌락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Kwon, T. Y. (2003). *The era of surplus pleasure*. Seoul: Munye Publishing House.]

김명주(2009). ‘욕망’ 개념을 통해서 본 들뢰즈 철학의 의미 : ‘탈주’와 ‘생성’.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57(3), 31-50.

[Kim, M. J. (2009). *The meaning of Deleuze's philosophy through the concept of 'desire': 'breakout' and 'creation'*. Saehan Philosophy, Philosophy, 57(3), 31-50.]

김석(2006).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기계: 라캉과 들뢰즈의 욕망이론. 한국현상학회, 현상학과 현대철학, 29, 173-202.

[Kim, S. (2006). *Le sujet dsirant et la machine dsirante : Lacan et Deleuze*. Korean Society of Phenomena,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29, 173-202.]

김석(2014). 라캉과 지젝: 주체화 윤리와 공동선을 향한 혁명.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67, 7-36.

[Kim, S. (2014). *Lacan and Žizek: The ethics of subjectivation and revolution for the common good*. Korean Philosophical Research Society, Age and philosophy, 67, 7-36.]

김용규(2004). 지젝의 대타자와 실재계의 윤리. 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 이론, 9(1), 81-115.

[Kim, Y. K. (2004). *Žizek's Other and Real Ethics*. Expansion of Korean Critique Theory, Criticism and Theory, 9(1), 81-115.]

김중기(1999). **참가치의 발견**. 서울: 도서출판 예능.

[Kim J. K. (1999). *Discovery of participation value*. Seoul: Book Publishing Entertainment.]

김창대(2009). 인간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관한 가설 :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30(2), 21-43.
- [Kim C. D. (2009). *Hypothesis on Five Conditions that Promote Human Change: From the Counseling Theory*. Soga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Institute, Human Understanding, 30(2), 21-43.]
- 김홍근(2010). 발달적 애도를 통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실천, 24, 109-142.
- [Kim, H. G. (2010). *The Process of Transmuting Internalization Through Developmental Mourning*.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24, 109-142.]
- 남경아(2014). 라캉의 죽음충동과 주체의 자유.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73(2), 85-105.
- [Nam, K. A. (2014). *The "Death drive" in Jacques Lacan and the Liberty of the subject*. Beomhan Philosophy, Beomhan Philosophy, 73(2), 85-105.]
- 노상우, 진상덕(2014).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주체형성과정과 교육학적 함의.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실천, 19(1), 65-84.
- [Ro, S. W. and Jin, S. D (2014). *The Process of Subject Formation in Jacques Lacan's Psychoanalysis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Erziehungswissenschaft,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9(1), 65-84.]
- 박찬부(2011). 욕망과 욕동: 라캉이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영미어문학회, 영미어문학, 98, 185-202.
- [Park, C. B. (2011). *Desire and Drive: A Study on the Practice of the Lacanian Theory*. Korean-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98, 185-202.]
- 서상문(2011). Lacan 거울단계 이론의 교육철학적 함의.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5(2), 67-90.
- [Seo, S. M. (2011).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he Mirror Stage of Jacques Lacan*. Korean Educational Idea Association, Educational Thought Study, 25(2), 67-90.]
- 손성우(2019). 영화 <기생충>의 욕망의 자리와 환상의 윤리.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81, 89-122.
- [Son, S. W. (2019). *The Position of Desire and Fantasy Ethics of a Film <PARASITE>*. Korean Cinema Association, Film Research, 81, 89-122.]
- 안인숙, 최민영, 김은미, 김용태(2014). 자기심리학의 기독교상담적 비평과 통합가능성 조망: 하나님 자기 대상과 영적으로 변형된 자기구조.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 139-162.

- [Ahn, I. S. and Choi, M. Y. and Kim, E. M. and Kim, Y. T.(2014). A proposal for the criticism and integration of Self Psychology with Christian counseling: *God-selfobject and spiritually transformed Self-structure*.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Journal of the Korean Christian Counseling Society, 25, 139-162.]
- 오미란(200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혁명적 정치의 가능성 탐구** : 슬라보예지젝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Oh, M. R. (2007),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volutionary politics of slavo j zizek in the age of post-modernism*.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유상섭(2003).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주기도**(마 6:9~13; 눅 11:2~4). 정보통신대논총, 214-255. ISSN 1226-8666
- [Yoo, S. S. (2003). *Lord's Prayer from a Biblical*. Information Chongshin University, 214-255. ISSN 1226-8666]
- 유재학, 하지현(2009). **정신분석치료환경** : 자유연상과 분석적 중립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48(3), 130-142.
- [Yoo J. H. and Ha, J. H (2009). *Psychoanalytic Situation* :Free Association and Analytic Neutrality. Korean Society for Neuropsychiatry, Neuropsychiatry, 48(3), 130-142.]
- 윤경희(2013). **아갈마, 사랑과 애도의 메타포** : 라캉 정신분석학과 예술 충동에 관한 에세이 파편. 한국불어불문학회, 불어불문학연구, 93, 183-213.
- [Yoon, K. H. (2013). *L'Agalma, métaphore d'amour et de deuil* : Fragments d'essai sur la psychanalyse lacanienne et la pulsion artistique. Societe Coreenne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93, 183-213.]
- 이다운(2019). **영화 <기생충> 연구 - 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 공존의 불가능성** -.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101, 283-303.
- [Lee, D. U. (2019). *A Study On The Film <Parasite>: Impossibility of Coexistence Between Classes Reenacted by Tragic Comedy*. The Research Socier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Language Research, 101, 283-303.]
- 하상복(2006). **대타자의 붕괴와 탈근대 주체** : 슬라보예 지젝의 이론과 돈 드릴로의 『마오 2』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회, 새한영어영문학, 48(2), 95-119.

-
- [Ha, S. B. (2006). *The Disintegration of the Big Other and the Postmodern Subject* in Slavoj Žižek's Theory and Don DeLollo's Mao II. Saeha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Saeha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8(2), 95-119.]
- 한동구(2016). 구약성서의 기도의 신학: 자기 비움의 기도, 하나님 통치의 수용을 통한 신적 계시의 확신성(삼상 1장).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통권59, 158-181.
- [Han, D. G. (2016). Theology of the Prayer of the Old Testament: *Centered on Hannah's Prayer of Vows (1 Sam 1)*. The Korean Society of Old Testament Studies, 59, 158-181.]
- 허만섭(2020).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본 영화 <기생충> -현대적 아비투스 계급의 발견-.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19, 139-164.
- [Heo, M. S. (2020). *The film "Parasite" from the Prism of Cultural Capital: Discovery of the Modern Habitus Class*.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Visual Culture Contents, 19, 139-164.]
- Fink, Bruce(2002). *Lacan and Psychiatry*(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theory and technique, 1999). Translated by Maeng Jung Hyun. Seoul Minum Publishing House
- J. Lacan(2019). *Ecrich* (original Ecrits. 1966). Seoul: New wave.
- J. Lacan(1997).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Tabernacle Complex", Retrieved from <http://rastafarirenaissance.com/tag/showbread/> (2020.2.7.)

‘잉여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 -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

Psychoanalytic Exploration of Surplus Desire and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 Focusing on the movie “Parasites” -

전성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현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창돈 ((사)북한체제테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뚜렷한 생각이나 뜻이 없는 본능에 가까운 마음의 작용, 욕동(慾動, drive)이 현대사회의 대타자(Big Other) 붕괴상황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도착(倒錯)적 잉여욕망(剩餘欲望) 문제를 영화 ‘기생충’의 핵심 주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 탐색 및 기독교 신앙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영화를 한 편의 텍스트로 사고하는 구조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Lacan의 L도식을 적용하여 탐색, 구조화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대타자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作動) 하지 않는 사회심리적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신념에 기초한 세 가족의 기생(寄生)적인 관계 속에 들어있는 (둘째)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왜곡된 환상적 응시(凝視) 및 상징적 조작 등 도착적 잉여욕망 문제와 (셋째)망상(妄想)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꿈일지라도, 그것(agalma)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현실을 견디는 환상의 결핍 충전(充填) 기능이 발견되었고, (넷째)그러나 문명 속의 불만, 죽음욕동은 나르시시즘적 가족주의 환상이 생산하는 도착적 잉여욕망에 의존하는 생활방식만으로는 폐제(廢除)되지 않고, 늘 파멸의 원인으로 회귀(回歸)한다는 심층심리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영화 속에 나타난 현대인의 부정할 수 없는 자화상(自畫像), 도착적 잉여욕망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해법(解法)으로서, ‘십자가 기도생활’을 통한 하나님을 향(向)한 ‘욕망의 주체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기생충, 잉여욕망, 대타자, 십자가 기도생활, 욕망의 주체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생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nse of Reality and Formative Embodiment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Focusing on ‘Ecology and Environment’

오의석 (Eui Seok Oh)**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s recognition and embodiment of reality by focusing on the artists' works dealing with the na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In order to examine the nature and ecology through the Christian world view, the study primarily discusses the cultural mandate, stewardship and the future of nature and culture in the Bible. Also, this study compares and categorizes the artists' perspectives and reactions towards nature into three realms : pioneering and conquest, restoration and care, and compliance and coexistence. The phenomena of natural ecology in contemporary art and natural ecology by Christian artists show much similarity in appearance. However, Christian artists tend to focus on the humble definition of careers rather than conquerors. They also differ in that they show communality, which is intended not to settle on personal narratives and expressions, but to empathize and involve the public. Both pay attention to the real crises and problem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but Christian artists try to find alternatives to restoration by looking at ecology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Christian world view of the Creator and the world.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se Christian artists does not limit the horizon of contemporary Christian art to Christian themes and church art. The Christian world view deals with all things created by the Creator and expands to illuminate and express history, reality and the future. In addition, it demonstrates cultural transformation efforts by fulfilling the calling as responsible stewards in the contemporary art world.

Key words : Christian Art, Sense of Reality, Embodiment, Ecology, Environment

* 2020년 02월 12일 접수, 03월 23일 최종수정, 03월 27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4725)

이 논문은 제36회 기독교문학회(2019. 10. 26, 성균관대학교) 생태 환경 분과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Daegu Catholic University) 환경조각전공 교수,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ohes@cu.ac.kr

I. 서론

지구촌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한국 기독교 미술 작가들도 작업하며 살고 있다. 한국 기독교 미술 작가들이 한국 사회의 현실과 지구촌 전체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계 안에 환경과 생태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과 작가는 매우 적은 것을 발견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속에는 생태와 환경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실의식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작품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다룬 바 있다. 통일과 평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중심 되는 주제라면 생태와 환경은 지구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진보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환경신학, 생태신학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여러 교회들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환경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로 보수적인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복음주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기독교 미술 작가들의 경우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명을 기독교 미술의 범주 밖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과 작품 표현의 양식 속에 그 인식한 바를 체현해 내는 데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일례로 어느 기독교 미술 작가가 환경운동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담아내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작가의 의식과 삶과 작품은 일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믿음과 고백과 삶의 괴리가 있듯이 작가의 의식과 작품도 매우 유리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서 현실 참여적 작업의 취약성의 이유는 선행 논문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 교회와 신학의 보수성에 기인하며 그로 인해 형성된 기독교 미술론이 제한된 종교적 주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역사와 현실, 환경과 일상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만물을 대상으로 조명하고 표현해 내는 열린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관으로서의 미술론에 기초하여 생태와 환경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문화명령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명령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는’ 관점에서 적실하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한 관리자로서 인간의 위치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명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책임 있는 청지기와 종으로서의 기독교 미술 작가의 신분과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생태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미래관과 문화관을 다루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생태 환경에 대한 조형적 반응과 체현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적 사례연구로 환경과 생태를 다루는 기독교 미술 작가들과 작품세계를 앞서 논의된 확장된 기독교

술론과 생태 환경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조명 속에서 작가들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품으로 체현되어 나타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품과 전시에 대한 문헌과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대상들을 찾은 후, 작품 전시의 관람과 작업실 답사, 작가의 노트와 대담 기록, 설문 등을 통해서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작가의 현실의식과 경험, 세계관 등을 이해하고, 그것이 기독교 정신과 어떤 연관을 가지며, 현실의식의 체현을 통해서 현대기독교 미술의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고 풍성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생태와 환경을 다루는 작품과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찾아 '행동하는 예술'의 사례로 제시하고 한국 사회와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변혁적인 의미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정의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독교 미술 작가들의 창작과 전시 중심의 모임에서 연구 발표와 세미나 등이 시작되었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 미술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조명해 보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기독교 미술이 단순히 기독교 미술 작가의 작업일 수 없다는 자각과 반성이 일어났고 기독교 미술이 성경과 기독교적 주제를 다루는 미술로 범위가 한정될 수 없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¹⁾ 기독교 미술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역사와 현실, 자연과 문명, 환경과 일상, 창조세계의 그 어떤 것이라도 조명하고 다룰 수 있고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미술은 교회미술, 기독교 미술 작가의 미술, 기독교의 주제를 다루는 미술로 이해되어왔다. 미술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미술은 곧 중세의 미술을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 미술은 기독교 박해의 시기에 지하묘실 카타콤(catacomb)으로부터 시작되어 A.D. 313년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점차 지상에서 전개되었고 중세 미술의 부흥기인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의 양식을 낳는다. 중세는 교회와 교권의 영향력 아래서 건축을 비롯한 회화, 조각 등이 교회 안에서 전개되었고 이런 이유로 중세의 교회미술이 기독교 미술의 역사적 전형으로 평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당시의 작가들은 자율적인 창조가 인정되지 않았고 교회가 정한 형상과 표상의 주제 안에서 봉사하였으며 단순한 직인과 장인으로 작업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예술, 즉 독립적이고 개인적이며 예술가의 개성을 존중하는 미술을 추구하게 되었고 기독교 미술 작가들의

1) 1993년 통합연구학회 특집 『기독교 미술의 원리와 과제』에 실린 연구자의 논문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통합연구 18호), 1996년 『기독교와 미술』(예영, 한국미술인선교회 편)에 실린 「창조·타락·구속의 미술- 미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조명」을 참조할 수 있다.

작업도 교회 밖의 자유로운 미술의 장에서 펼쳐지는 변화를 맞게 된다.

자크 마리탱(Jacque Maritain)은 기독교 예술은 ‘구속받은 사람의 예술’을 뜻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곧 기독교 예술이 기독교를 작품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독교인으로서 작품을 제작하는 일을 의미한다.(조요한, 1974; 4)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 작가의 작품이 곧 기독교 미술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작가와 작품의 실체는 별개의 것으로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쉐퍼(F. A. Schaeffer)의 지적처럼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든지 비기독교인의 세계관으로 구성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작품이 드러내는 세계관은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경우도 있다.

일찍이 프란시스 쉐퍼는 그의 저서 『예술과 성경』에서 모든 예술은 세계관을 드러내며 강화한다고 전제하고 예술작품에 대한 네 가지 평가기준의 하나로 작품에 표현되고 있는 세계관을 들면서 예술가가 세계관을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세계관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비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chaeffer, 1973: 53) 쉐퍼가 말하는 세계관을 미술사에서는 시대성 혹은 정신성이란 말로 흔히 표현한다. 한 시대의 작품은 그 시대상을 표현함은 물론 그 시대가 갖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미술은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한 개인이 지닌 세계관을 조형의 양식 속에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대 기독교 미술은 동시대의 조형 표현 양식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내는 미술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현실인식 가운데 생태 환경을 다루는 본 연구는 기독교 미술인 작가들이 생태와 환경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현대미술과 생태 환경

1. 대지미술과 자연관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 현대미술 속에 다양한 형태와 양식으로 표출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지미술 (Land Art)이다. 대지미술은 1960년 후반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시도되었다. 이 새로운 미술은 환경적인 성격을 갖는다. 대지미술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촉발되어서 조형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실험적인 활동을 보여준다. 대지미술 작가들에게 자연은 관찰 표현의 대상이 아니라 작업의 현장이고 작업을 통해서 변환된 의미체가 된다. 광활한 대지, 강, 바다, 하늘 등 무한한 자연환경의 영역을 예술의 실험 무대로 포함하였다. 대지미술은 편리한 관람을 유도하는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벗어나 있으며, 실내 조각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인공조명과 일정한 공간, 일정한 규모 등을 배제한 채 적극적으로 실외와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있다. 대지 예술가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은 미술관을 '문화적 감옥'이라고 표현하며 자유로운 창조를 위해 인위적이지 않은 환경공간을 택해 대규모 작업을 수행했다.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서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었다. 대지미술 작가의 가운데 마이클 하이저



[Figure 1] Michael Heizer,
<Double Negative>, 1969-1970



[Figure 2] Robert Smithson, <Spiral Jetty>, 1970
Diameter : 48.8 M
Lenth : 457.3M

(Michael Heizer)는 자연에 대한 개척적인 의지와 자세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 '이중부정(Double Negative)'이 좋은 예이다. (Figure 1) 이 작품은 미국 네바다 사막의 머몬(Mormon) 암석구에서 폭약과 중장비를 사용하여 대략 240,000톤의 흙과 암석을 파내어 트랙터로 경사지의 가장자리로 밀어낸 거대한 작업이다. 하이저는 이처럼 거대한 암석을 이동하거나 원시의 경관을 파괴하고 다시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이명준·배정현, 2010: 70) 이처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욕과 공격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하이저의 작품 태도는 미국적인 전통으로서 서부 개척정신의 연장선에 서 있다고 이야기 된다.(박장민, 2005: 254-255)

스미슨(Robert Smithson)의 <나선형 방파제, Spiral Jetty> 는 역시 솔트레이크 호수를 배경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그 규모와 제작의 방법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개척적인 시선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Figure 2) 그러나 스미슨의 작품이 오랫동안 지향했던 <개간 프로젝트>의 이념과 정신성을 고려해보면 그의 작업은 오히려 자연의 회복과 보존에 더욱 마음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스미슨은 땅을 파고 그것을 재조형하는 대지작업의 과정을 마치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이재은, 2009: 26) 스미슨의 <개간 프로젝트>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그는 다른 대지작가들과 달리 황폐화된 장소들을 선택하여 고갈되고 버려지고 오염된 현장을 회복을 위한 대면의 장으로 작품화하는 자연에 대한 돌봄의 시각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지에서의 프로젝트들은 산업체의 제작비를 지원받고 장비들을 동원한 제작방식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해서 ‘자연의 강간’이라든지 ‘어머니 대지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비평이 따르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행해진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반성적 입장에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2. 자연 생태미술

대지미술은 기존의 전통적 미술에서 관조와 관찰, 표현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전시의 공간 또는 매체로 선택하고 활용한다. 미술관과 갤러리를 벗어나 자연의 대지 공간 자체가 작업과 전시의 공간이 되고 작품의 오브제로 설정되고 활용된다. 자연의 현상을 작업에 끌어드리며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작품의 과정까지도 작업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대지미술에서 자연공간과 매체를 선호하고 활용하는 방식과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특성과 차이를 갖는다. 미국의 대지미술은 광활한 자연 조건을 배경으로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대형 프로젝트의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유럽 작가들의 대지작업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극소화 하면서 약간의 인위적인 행위와 요소를 첨가하거나 자연의 재료들을 취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갖는데 대표적인 작가로 리처드 롱(Richard Long)을 들 수 있다. 그는 흔적이 드문 곳이나 풀 위를 걷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흔적을 남겨 작업한다. 그리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데 이처럼 최소한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자연에 순응하고 생태계의 순환에 적응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자연에서 채취된 돌을 전시장으로 가져와서 원, 나선, 십자 등의 단순한 형태로 설치한다.(Figure 3) 리처드 롱은 이처럼 자연 속에서의 행위와 과정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연친화적 입장에서 작업한다.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는 대지미술가로 앤디 골드워시(Andy Goldworthy)는 영국 특정지역의 돌, 낙엽, 갈대, 눈과 얼음까지 작업에 활용한다. 가능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사용된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소멸되는데, 선택된 특정한 재료는 한 개의 매체가 아니라 속해 있던 환경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한다. 그의 작품 <Sidewinder>는 나무줄기로 제작된 약 55미터의 뱀 모양 조각으로서 자연의 소재로 만들어져서 점차 이끼가 끼고 자람에 따라 주위 환경의 일부가 되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된다. (Figure 4)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 나쉬(David Nash)는 계속 나무를 연구해온 작가로 나무가 열, 빛, 습기와 건조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무가 나타내는 변화를 작업으로 보여준다.(오의석, 2015: 54-55)

이처럼 유럽의 작가들은 최소한이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자연에 순응하고 생태계의 순환에 적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지를 작업의 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보다 더 미술과 자연의 공생과 결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연 생태미술의 이념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대지미술과 자연 생태미술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자연을 개척과 정복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가 하면,



[Figure 3] Richard Long, <Han River Circle>
2011, Daegu Art Museum



[Figure 4] Andy Goldworthy, <Sidewinder>, 1985

자연을 회복과 돌봄의 대상으로 다루기도 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공통점이 있다면 자연을 조형작업을 위한 관조와 관찰, 표현과 변용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자연을 예술 작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예술작업을 진행하고 교감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연 생태미술은 우리 시대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훼손에 대한 작가들의 조형적 반응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연 미술 작업 가운데는 자연을 신성시하거나 자연주의적 범신론적 입장에서 자연을 접근하고 교통하며 다룰 수 있는 위험도 보인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미술 작가들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연과 생태에 대한 시각의 정립이 요청되며 자연과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필요로 한다.

IV 기독교 세계관과 생태 환경

1. 문화명령과 자연관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명령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 28)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문화적 존재이며 문화적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성경의 교훈이다.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발표 논문인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거」에서 린 화이트 2세(Lynn White, jr)는 산업화한 사회에서 사는 인간의 자연 경외감 결여나 기술에 의한 자연파괴가 성경적 가르침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서구의 문화는 성경적 교훈을 문화에 최고도로 적용한 결과라고 비난하였다. (Webber, 1979: 34) 화이트의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에도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비판의 핵심을 김균진은 그의 저서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에서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³ 성경 안에 있는 생태학적 구원의 길을 찾아 제시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힘의 추구가 근본 원인이고 이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시장 경제제도와 과학기술이 현실적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화이트의 주장대로 기술공학의 사회가 땅을 착취했음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그 공학 기술로 땅을 탈취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문화명령을 오해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로버트 웨버의 주장처럼 창세기의 가사는 땅이 인간의 돌봄을 받도록 주어졌으며 따라서 땅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땅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준다. (Webber, 1979: 34) 자연을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서구의 자연관도 근대 이후의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많은 자연관의 변화를 갖는다. 크게는 자연을 유기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계로 볼 것인가로 대별되며 차이를 드러낸다. 최근 생태학이 주목을 받는 일차적인 원인도 자연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계론적인 자연관에서 유기체적 자연관으로의 변화, 곧 자연을 그 자체의 목적을 갖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의석, 2015: 65)

자연에 대한 개념은 미학의 진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예술을 자연(nature)의 모방(mimesis)으로 정의한 예술모방론은 2,500년 이상 서양의 예술사상을 지배하였다. ‘자연(自然)’이란 한자어의 의미 속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권의 자연관이 나타나며, 이것은 중국의 회화, 특히 산수화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흔히 동양이라고 부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은 서양의 자연관에 비해 친화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김상엽, 2012: 72) 동양의 자연관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⁴ 가지고 있다.

서양사회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모더니즘의 예술이 출현한다. 과학과 이성, 기술의 진보에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써 모더니즘 작가들은 자연을 모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그들은 결함이 있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보다 더 위대한 인간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더니즘의 환상은 인류가 치른 1,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통해 깨어진다. 자연의 인간화를 추구한 모더니즘의 자연관에 대해서 반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군의 작가들이 바로 대

3) 1. 창세기 1, 2장의 창조 기사에 나타나는 유일신론과 자연의 탈신성화, 2.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우월적 세계관, 3.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정복과 지배 4.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

4) 자연은 무위(無爲: 억지로 함이 없음)으로 귀결되어 노장사상은 무위자연(無爲自然)에 이른다. 유가의 ‘하늘을 본받고 따른다’는 사상은 인간의 노력과 인위(人爲)를 존중한다 점에서 노장의 무위와 차이가 있다. 맹자(孟子)는 인간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자연을 변화시키고 보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전국시대 말기의 순자(荀子)는 하늘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자연을 활용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에서도 자연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김상엽, 「동양의 자연관과 회화, 미술세계 2012, 9월호, P. 72」)

지미술가이며 자연 생태예술가이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한다.(오의석, 2015: 62-63) 이 작가들은 예술작품이라는 문화적 도구를 통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고 감당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2.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예술가

청지기 의식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초래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문제를 다루고 회복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인류전체가 견지해야 할 성경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동산을 책임 맡은 청지기였으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가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문화명령은 피조세계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알려준다. 크리스천 예술가 역시 청지기로서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캘빈 시어벨트(Calvin Seerveld)는 '예술은 땅을 경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예술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Hilary·Adrienne, 2001: 73) 라고 단언하며 예술의 위치를 설정한다. 복음서에서 농부와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존재는 경작자로서 인간의 조건을 상기 시켜준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경작의 과정은 농사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문화의 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이러한 창조질서 안에서 부여된 명령에서 이탈하고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개성과 지나친 자유정신의 강조가 나타나고 기독교 미학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창조성'을 강조하는데 머무는 현상이 나타난다. 창조성은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이고 예술적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그 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을 것이다. 홈즈(A. F. Holmes)는 창의성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것에 우리의 창조성을 경주시키는 죄. 또 인류에게 해로운 것을 위해 무책임하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죄를 상기시키면서 온전하고 균형 잡힌 신학은 예술, 학문, 사회, 교회 등의 모든 책임의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f)도 특별히 예술의 영역에서 창조성과 함께 청지기 의식에 무게를 두고 강조한다. 그는 '예술과 창조적인 행위는 자연을 지배하라는 창조명령의 한 부분이며 또한 청지기로서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고려할 것은 창의성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가진 주체자라는 사실이라'고 말한다.(Wolterstorff, 1980: 78-79)

여기서 기독교 미술 예술가가 청지기로서 지키며 관리할 영역은 생태적인 환경과 함께 시각적인 환경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들의 작품이 기본적으로 공간점유의 형식으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리와 도심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의 경우는 물론이고 갤러리와 미술관에 전시되는 작

품뿐 만이 아니라 작가의 사적인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인 미발표의 작업까지도 작가는 공간의 점유자와 관리자로서 책임에서 가져야 한다. 조형예술은 공간점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만큼 인공적인 시각 환경 속에서 조화와 균형과 절제, 때로는 강한 대비를 통한 환경 구성 등 다양한 방법과 시도로 공간에 대한 책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3. 자연과 문화물의 미래

성경이 말하는 문명관과 미래관은 청지기 정신의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과 자연과 문화물은 함께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문화와 자연에 대한 대응과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지구의 영원한 멸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는 더 이상 자연과 생태 문화의 의미는 크지 않고 존중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구의 미래에 관하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벧후 3: 10)에 나타난 ‘불’을 멸절의 불이 아니라 정화와 연단의 불로 해석하는 성경적 종말론은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불을 통과한 지구의 연단이며 창조세계의 회복임을 주장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그 자녀들의 구속뿐 아니라 이 지구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는 총체적 회복, 우주적인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롬 8; 20, 21) 이러한 우주적 회복은 지구의 궁극적 미래가 파괴가 아닌 변화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와 유산, 문화들 역시 멸망하지 않고 정화되어 미래의 세계에서 영화로운 상태로 회복될 것을 말한다.(Wim Rietkerk, 1992: 7)

1990년대 중반, 연구자의 미국 칼빈대학 체류 연구기간에 접한 문화물의 천국보존에 관한 논의는 그리스도인 문화예술인의 청지기적 책임과 소명을 일깨워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워진 벽돌(삶의 재료)로 저 세상에서 새로운 도시를 완성하신다는 의미의 연속성’(Wim Rietkerk, 1992; 148) 안에서 현시대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송인규는 그의 저서 『일반 은총과 문화적 산물』에서 문화물이 천국에서도 보존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며 논증하고 있다⁵⁾ 그리고 자연물의 천국 보존에 관해서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있어온 찬반양론을 소개하면서 자연물의 천국 참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모든 피조물이 중

5) 문화물의 천국보존에 대한 다섯 가지 논제

1. 문화적 노력과 결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속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로 말미암아 산출된 열매를 이 유 없이 멸하지 않는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화목 효과는 만물에 -이에는 문화물도 포함되는데 -미치므로, 문화물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하는데, 그런 연속성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결실에 대한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불타 없어지는 것은 문화물 자체가 아니라 문화물에 수반된 죄악적, 세속적, 사탄적 요소이고 오히려 문화물은 정화되어 천국에서의 보존을 기다린다. 5. 인간의 문화적 업적이나 결실이 천국에 보존된다는 언급이 있다. (계 21: 24, 26)

말론적 구속의 완성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내용(사 11; 6-9, 65: 25, 롬 8: 19-22)을 제시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하나님이 인간과 무관하게 자연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성경의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자연물을 귀하게 대우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구속 완성 시에도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며 세 가지 항목의 적실한 내용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자연계의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대상에 대해 좋다고 평하셨다는 사실, 둘째는 언약의 효시는 하나님이 자연과 맺은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이 인간과 무관하게 자연물에 대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증거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은 하등 동물에 대해서 은혜로운 섭리를 펼치시는데 이 또한 인간에 대한 유익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송인규, 1998: 263)

김균진도 그의 저서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신학의 이해』에서 자연환경은 ‘대 파멸로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장의 제목으로 설정하고 대답을 주고 있다. 저자는 먼저 우주의 종말에 대한 자연과학의 가설들을 살펴보고 그 가설들이 과학 이전의 묵시사상의 표상 재료들과 일치하며 환원론, 물질론, 결정론 등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김균진, 2006: 331) 그리고 이러한 가설들은 세계에 대한 시대적 불안과 절망의 상황에서 등장하여 ‘현실에 대한 불안과 절망은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조장하고 좌절감은 무관심을 조장하고, 무관심이 이 세계를 인간다운 세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창조적 의욕과 노력을 마비시킨다’고 말하며(김균진, 2006: 329) 우주과학자 헤크만(Otto Heckmann),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과 드레버만(E. Drewermann), 칼 하임(K. Heim), 블로흐(E. Bloch) 등의 주장을 빌려서 우주의 종말은 폐기가 아닌 완성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끝과 시작, 재난과 새로운 출발,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며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종말론이라고 긍정하면서 죽음과 울부짖음과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인용한다.(김균진, 2006: 336)

V.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과 생태 환경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서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작가와 작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환경미술협회 단체전이나 환경미술 공모전 등에 출품하며 활동하는 기독교미술인 작가들의 경우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독교미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작품이나 작가의 글, 평문 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낸 작가로 범위를 한정하고 한다. 특히 환경과 생태의 문제를 다룬 작가와 작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중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단체의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한국 기독교 현대미술을 다룬 저서에서 조명된 작가, 자연과 생태 환경문제를 다

론 개인전을 가졌거나 단체 활동을 하는 작가 중에 기독교 미술 작가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의 경향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생태계의 위협과 환경오염 등의 상황을 작품에 담아 표현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경고하는 경향으로 1980년대에 정크(junk)를 집합적으로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 일부와 1990년대 김용님의 <환경과 생명전-푸르름의 신새벽을 위하여> 전시를 소개한다. 둘째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참여의 경향으로 특정한 동물들을 주제로 선택하여 보존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젝트형 작업으로 박훈 작가의 <반달곰 구출 작전>, <사슴 사냥>, 등의 전시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술계의 전체의 방향성과 흐름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자연 생태미술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크리스천 작가로 일찍이 자생적으로 야투(野投) 자연미술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이 활동을 국제적인 자연미술비엔날레와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해온 작가로 고승현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후기 대지미술 작품과 자연 생태환경전의 작업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1. 생태 환경 문제의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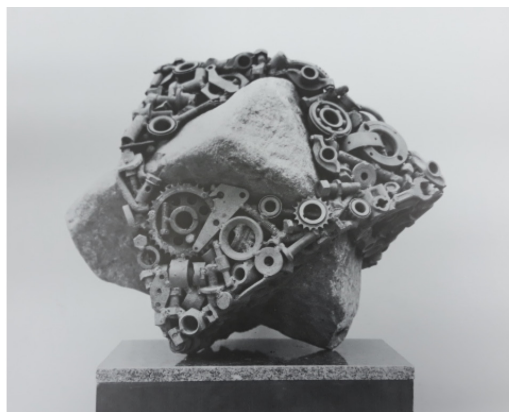
연구자의 1980년대 작품 중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고철과 기계 오브제의 집합적 작품들은 당대의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서술적인 의미를 갖는다. 1983년의 작품 <돌 83-1>은 자연석의 중앙부를 기계부품의 집합체가 띠 모양으로 삽입되어 있는 구조이며, 그 연작으로 자연석의 상부만 노출된 채 아래 부분이 기계적인 질감과 덩어리로 둘러싸여 있는 작품 <돌 83-4>, 자연목의 절반 이상 윗부분이 기계 오브제의 집합 덩어리로 대체된 작품 <나무 83-2> 등이 출현하는 배경과 동인은 무엇일까? [Figure 5] 미술사적 배경으로 1960년대 유럽의 누보레알리즘(Nouveau Realisme)은 산업 사회의 오브제와 고철을 대량으로 차용하며 제시하였는데 세자르의 압축 시리즈 작품, 텅겔리의 폐물기계, 아르망의 집적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작가들이 참여한 누보레알리즘 선언문은 대량생산과 소비체제에서 나온 쓰레기와 폐물더미를 도시 환경의 새로운 현실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연’으로 긍정하며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출현된 작품들을 대할 때 현대 산업 사회에 대한 작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긍정과 부정, 찬양과 거부의 이중성으로 우리에게 읽혀진다.

감상자에 따라서 산업 기계문명에 대한 부정과 비판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혹자에게는 긍정과 예찬으로 해석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작품의 동인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의 작업노트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넓은 들을 가로 지르는 고속도로와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물결, 산을 배경으로 치솟은 철탑, 그리고 철



[Figure 5] Oh, E. S.,
<Wood 83-2>, 1983,
75 × 75 × 100cm



[Figure 6] Oh, E. S.,
<Stone 1984-Seoul>
55 × 55 × 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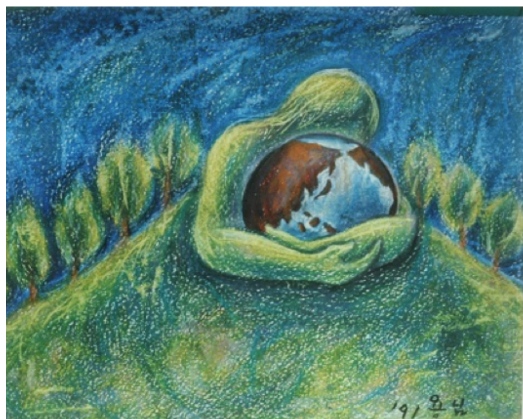
탑에 의해서 찢어진 하늘의 구름 조각들 이런 정경들 속에서 나는 자연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는다. (오의 석, 1995: 77)

작품제작 전 연구자는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철원의 최전방고지와 격리된 별판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귀환하게 되는데 문명의 도심에서 망막에 비친 산업화의 시각 환경들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20세기 초반 미래주의 작가들이 기계시대의 미와 역동성을 새로운 감각세계의 가치로 삼고 외쳤던 것과 정반대의 위치에서 기계주의의 위협과 도전을 예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 <돌 1984-서울>(Figure 6)이다. 이 작품은 자연석과 삼각추 형태의 기계 부품 집합체 4개를 결합한 작품으로 문명의 틀 속에서 간혀서 억눌리고 고통하는 자연 환경의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환경인식과 조형적 체현이 문제 상황의 표명에 그치고 있었다면 1990년대 들어서 한 층 더 치열하게 회화의 영역에서 표출한 전시가 있었는데 현재 강화에 정착하여 작업하고 있는 김용남 작가의 개인전 <환경과 생명전>을 들 수 있다. 이 전시는 1991년 4월 서울 그림마당 민에서 열렸는데 「푸르름의 신 새벽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과 환경의 회복을 꿈꾸는 바람과 의지를 담고 있다.

너무나 오염되고 갈취당하고 유린되고 강간당해 온 자연에게 뼈아프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렸다. 땅을 확대하고 하늘을 고문하고 생명 있는 것들을 능욕해 온 우리의 기나긴 역사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렸다. 돌맹이 하나, 풀 한포기, 꽃 한송이, 한 숨의 공기, 한 방울의 물에 대한 외경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렸다. 풀, 공기, 나무, 짐승들의 신음소리, 원망소리, 탄식소리, 애원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그렸다. 질어가는 이 잿빛의 문명이 다한 후에 아니 이 잿빛이 짙어질수록 더욱 눈부시게 동터를 프르름의 신새벽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렸다.(김용님,1991: 2)

자연을 주제로 다루는 동시대 기독교작가들의 자연에 대한 접근이 주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드러나는 기독교 미술 문화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생태계의 위기를 절감하고 자연에 저지른 인간의 과오를 참회하며 그 회복을 소망하는 작가의 자연관이 작품과 전시기획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7] Kim, Y. L., 1991
<Women Holding the Earth>



[Figure 8] Kim, Y. L.,
<A Women Planting Green> 1991

작품 <지구를 안은 여인, Women Holding the Earth>의 화면을 살펴보면 청록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육지의 땅을 나타내는 부분만 갈색조를 띠고 있고 인물과 나무와 하늘 모두를 푸른 색조로 다루어졌다.(Figure 7) 반면에 < 초록을 심는 여인, A Women Planting Green>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청회색의 톤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인의 손에 들린 식물만이 푸른 청록색을 갖는다.(Figure 8) 작품전의 부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작가가 작품에 사용한 색조에서도 이 작품이 환경과 생태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은 모두 여인으로 지구를 품은 모습은 모성애를 보여주

며 식물을 심는 노동의 모습에서는 강인함이 묻어난다. 김용님 작가의 작품들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신학적 성향이 현실의 문제에 대면하고 발언하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성신학에 깊이 천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보존

앞에서 살펴본 작가들이 환경 생태의 문제를 예감하면서 서술하고 참회하면서 도전하고 있다면 박훈 작가는 회복과 보존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고 교육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박훈의 생태환경 관련 프로젝트로 <사슴사냥>, <반달곰 구출하기>, <20세기 마지막 곤충채집>은 신선한 도전을 던지며 일반 감상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슴사냥>은 1998년 12월 23일 - 29일까지 서울시 25개의 녹지에서 실행된 대형 프로젝트이다. 판화를 전공한 작가는 석고로 캐스팅 복제된 작고 예쁜 사슴 1,000마리를 서울시 45개의 녹지공간 곳곳에 숨겨 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사냥을 하게 한 작업으로 1,000마리의 사슴모형에는 사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각기 에디션 번호를 적었고 상황본부에서는 이들을 집계하였다.(Figure 9)

작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속에서 그 생명력을 느끼며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프로젝트 전시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슴사냥 / 서울 프로젝트>를 통



[Figure 9] Park, H., <Dear Hunting Seoul Project>, 1998



[Figure10] Park, H., <Black Bear Rescue Operation>, 1999

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함이 제작의 의도라고 말한다.

1999년 6.5- 6.6일 실행된 <서울프로젝트 II 반달곰 구출작전>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봉산, 북한산, 남산, 관악산에 각각 250마리씩 1,000마리의 올무에 걸린 반달곰을 풀어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밀렵꾼들에 의해 설치된 올무를 끊고 반달곰을 구출하러 나서게 한다. 참여시민들은 인간의 욕망의 탓에 걸린 포획의 장면을 목도하고 구출하는 체험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집결지에 모아짐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종료된다. (Figure 10) 이 프로젝트는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 관리청이 후원을 하고 일반 기업들의 협찬 속에서 이루어진 공공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지만 프로젝트의 아트 디렉터로서 박훈 작가는 기획의 글 가운데 창세기 1장 26-28절을 박스 이미지로 삽입하여 넣고 있다. 하단에 보다 큰 글씨로 ‘정복 ≠ 파괴’ 라고 적으면서 ‘하나님(God)의 창조물인 자연 속에서 그 생명력을 느끼며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한데 전시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술평론가 김경서는 ‘사냥’에서 ‘구출’에로의 태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반달곰 구출작전’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사슴사냥>에서는 미래의 환경에 대한 ‘희망’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반달곰 구출작전>에서는 미래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전격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슴사냥>이 야생동물의 사냥을 통해 억제될 만큼 번성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에 대한 희망의 제시인 반면 반달곰 구출작전은 인간의 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반달곰의 구조 체험에 참여시킴으로써 생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확산시키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Figure 11] Park. H., The Last Insect Collecting in the 20th Century Project Plan, 2000



[Figure 12] Park. H., Becoming Fabre - Ecological Environmental Project at Insadong, Seoul, 2001

박훈의 프로젝트는 야외의 거대한 환경 속에서 만이 아니라 도심 속 갤러리와 미술관의 실내 전시장에 펼쳐지기도 한다. 2001년 여름, 서울 인사아트센터서 진행된 <파브르 되어보기-인사동 생태환경 프로젝트>와 <야생동물 발자국을 찾아라, 부산시립미술관>이 좋은 예이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인사동 생태환경 프로젝트 <파브르 되어보기>에서 박훈은 전시장을 아이와 어른 모두가 참여하는 곤충 학습장처럼 바꾸었다.⁶ 전시장 안에는 1,000여 종의 곤충 사진과 3,000여 개의 곤충 모형을 설치하여 똑 같은 곤충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드로잉을 하고 곤충상자에 손을 넣어 알아 맞추기 게임 등을 통해 곤충의 세계를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생태 체험 교육적 기능을 가진 이 전시에 대해서도 작가는 기획의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을 작업과 작가의 신앙에 기초한 진술들을 종합하면서 미술평론가 서성록은 박훈 작가를 환경운동가나 미술가 이전에 창조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품은 기독교 미술 작가로 인정하면서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의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것(서성록, 2003: 59)이라고 서술한다. 작가의 프로젝트 작업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조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생과 동역의 조형적 체현

생태 환경의 위기를 표명하고 경고하는 작업들과 회복과 보존을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 환경 속에서 상생하면서 함께 동역을 모색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전개된다. 이러한 작업은 크게 몇 가지 다른 양상을 가지는데 첫째는 자연과 생태를 작품의 일부로 끌어 들여서 수용하는 경

6) 기획의도 ;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배운다.

시나리오: 2000년 여름 어느 날 작가는 서울의 한 복판에 위치한 인사동 중앙로를 파헤치고, 지난해 20세기 마지막 곤충채집을 통해 얻어낸 살아있는 곤충의 알 들을 땅 속에 뿌리며 새 생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그로부터 1년 후 2001년 한 여름 인사아트센터 지하 바닥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생태학계와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이상 현상에 의문을 갖고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다. 과연 어떤 곤충들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생존하고, 서식하는지 사실을 밝혀내는데…궁금한 시민들도 현장답사에 나선다.

참가순서

1. 현장에서 지급하는 곤충의 부분 스케치를 받고, 종이 위에 그려진 곤충의 일부가 어떤 곤충의 모습인지 전시된 곤충도감을 자세히 둘러보며 확인한 후 나머지 반을 그린다.
2. 상황실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정확히 그림을 완성한 참여자에 한해 기념촬영을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관한 웹사이트(artproject.pe.kr)에 마련된 게스트 북(Guest book)에 참여소감을 기입한다.
3. 기념사진은 e-mail을 통해 참가자 본인에게 전송되고, 곤충스케치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이미지는 웹사이트 화랑에서 관리된다, 온라인을 통해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각으로 소개한다.
4. 곤충스케치에 성공한 참여자가 모형 곤충들을 담은 상자 속에 직접 손을 넣어 상황실에 전시되어 있는 곤충 기념품과 동일한 모양의 곤충을 찾아내면 같은 이미지의 곤충 기념품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촉감으로 곤충을 느껴보는 자연 친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5. 전시기간 중 작가와 함께하는 곤충드로잉시간을 통해 자연생명체의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향이고, 둘째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벌이는 자연미술과 생태미술의 경향이며, 이 양자를 절충한 작업의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고승현 작품 <백년의 소리> 연작들은 자연목의 일부를 가야금의 구조로 제작하여서 자연 속에 내재한 소리를 작품에 담고 감상자들의 참여에 의해 울림을 갖게 함으로 그 소리를 들려준다. 작가의 작품 <백년의 소리>를 연구자가 처음 접한 것은 제2회 금강자연비엔날레에서였다. 그 후 가야금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국내의 여러 지역과 지구촌 전역에서 펼쳐지는 자연미술 프로젝트에서 현지의 나무들로 제작되고 설치되어졌다.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자연목을 사용하여 변형된 형태로 조형화하고 감상자들로 하여금 현을 연주해 봄으로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한다. (Figure 13)



[Figure 13] Ko, S. H., <A Century's Sound>
Keum River, Gong-joo, 2012



[Figure 14] Ko, S. H.,
<Me and Donkey>, San Bernardo, Italy, 2019

자연은 나의 어머니요, 선생이며 친구이다. 자연은 누군가 말한 것처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자연 안에서 호흡은 곧 나의 기도이며, 그 시간들은 나의 신앙생활이다. 자연의 섭리와 그 순리를 쫓아 순응하고자 나는 노력한다. - 종락 - 자연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 속에서 연주되는 나의 악기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승현, 2017; 33)

위와 같은 작가의 진술에 기초하여 미술평론가 김성호는 고승현을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이자 신앙생활’과 다른 아닌 정신생태학 차원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자연미술을 실천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자연을 절대자의 창조세계로 바라보는 깊은 이해를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자연 환경 속에서 펼쳐진 고승현의 퍼포먼스 작업들을 작가의 창작과 자연의 화답이 어우러진 협업작품이라고 해석한다.(김성호, 2019; 4)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1983년 고승현의 작품 <황소와 나>는 몸을 낮

추어서 황소의 입 가까이에 작가의 입을 대고 함께 풀을 나누어 먹고 있는 퍼포먼스이다. 퍼포먼스는 201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낙타와 함께 그리고 2019년 여름에는 이탈리아의 산 베르나도에서 당나귀와 함께 풀을 나누는 모습으로 재현되어진다. (Figure14) 인간인 작가가 짐승과 같이 자세를 낮추고 다가가서 먹이를 공유하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장기간 금식을 할 수 있는 동물이지만 평소 먹이에 대한 탐욕은 그 어느 동물 다도 크고 집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매일의 양식으로 만족하기 어렵고 평생의 먹거리를 비축해 놓고서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동물들과 함께 먹이를 나누는 모습은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욕망에 대한 풍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동물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인간의 낮아진 차원을 표명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기에 이 작품은 보는 이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거룩한 산의 모습이 떠오르게 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이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이사야 11: 7, 8)

황소와 낙타 같은 큰 동물이 아닌 작은 곤충과 벌레, 해변의 갑각류, 연체동물의 섭생과 움직임의 작업에 협력한 작업들도 자연 생태미술 속에 나타난다. 연구자의 대지미술 작업 가운데 2018년 작은 텃밭 농사를 탐구한 「촌(村) 다움의 미학 -자연 생태환경 설치전」에는 배추벌레가 파먹은 케일 잎의 형상을 조합한 작품들이 <버리지 아트>라는 명제로 출품 된다.(Figure 15) 벌레들에 의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조형적 수확을 작품화하여 전시함으로써 상생과 동역적인 조형을 실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곤충과 벌레들을 행위를 조형에 참여 시키는 작품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다른 자연생태예술 작가들에게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고승현 작가는 이미 1980년대에 서해안 안면도와 삼시도 등의 해변 갯벌에서 작업한 생태 드로잉(Eco-drawing) 연작 가운데 <게들과의 합작(Collaboration with Crabs)> <고동과의



[Figure 15] Oh, E. S.,
<Cabbageworm's Work>, 2018
45 x 45 cm, Dried Kale Leaves.



[Figure 16] Ko, S. H.,
<Collaboration with Crabs>
Anmyeon Island, West Coast, Korea
Summer, 1983

협작(Collaboration with Shells)을 선보였고, 2012년 봄 대천 해변에서 <생태 드로잉-고동과의 협작>을 재현하였다. 텃밭이나 해변의 특정한 작은 장소에서 생태계의 작은 존재들과 교감하고 협력함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작업은 창작에 있어서 작가가 주체가 되고 동물이 대상이 되는 인간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연 생태계와 소통하며 함께 협력하여 이루는 동역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VI. 결 론

생태 환경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전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미술의 영역에서도 생태미술, 자연 미술, 대지미술을 통해서 환경과 생태의 문제는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조형작업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응을 개척과 정복, 회복과 돌봄, 순응과 상생이라는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태와 환경을 조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문화명령과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책임, 자연계와 인간에 의해 창조된 문화물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명령에서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경작하고 돌보는 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음을 밝히고, 기독교 미학이 강조하는 인간의 창조성이나 현대미술이 강조하는 예술의 자유정신에 앞서서 책임 있는 종과 청지기로서의 예술가적 소명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자연계와 문화물의 미래가 영원한 멸절이 아니라 정화된 상태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편입된다고 보는 미래관과 문화관을 다룸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이를 대하는 문화적 노력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위에서 생태와 환경에 대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조형의 작업과 전시,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체현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작가의 작품세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 생태 환경의 문제를 드러내어 환기시키고 인간의 욕심을 돌아보며 경고하는 작업들, 둘째, 문제와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한 운동차원의 참여적인 프로젝트형 작업, 그리고 셋째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의 작업으로 생태 자연의 현장으로 나가거나 작업 속으로 자연과 생태를 끌어들이므로써 자연과 상생하고 동역하는 차원의 조형 활동이다.

기독교 미술 작가들이 보여주는 자연 생태미술의 현상은 현대미술 속에 출현한 자연 생태미술 작가들이 보여주는 경향인 개척과 정복, 회복과 돌봄, 순응과 상생이란 경향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미술 작가들에게는 정복자로서의 지향보다는 돌보는 자로서의 소박한 의미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크며, 개인적인 서사와 표명에 안주하지 않고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의도하는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양자 모두 생태와 환경에 나타난 현실의 문제를 주목하지

만 특별히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시각으로 생태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독교미술작가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 체현의 노력들은 현대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기독교적 주제와 교회의 미술로서만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주에 의해 빚어진 만물의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조명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적 미술의 소명을 수행함으로써 미술계를 향한 문화변혁적인 노력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Hilary, B and Adrienne, C.(2001). *Art and Soul*, 김유리·오윤성 역(2004), **예술과 영혼**. 서울: IVP.
- John R. W. Stott(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2011)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Rietkerk., Wim(1992). 김선일 역, **미래, 미래, 미래인**. 서울: 호도애.
- Schaeffer, F. A(1973). *Art & Bible*, 김진선 역(2002), **예술과 성경**, 서울: IVP.
- Webber, Robert E.(1979). *The Secular Saint*, 이승구 역(1989), **기독교 문화관**, 서울: 엠마오.
- Wolters, A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 Worterstoff, Nicholas(1980) *Art in Action*, 신국원 역(2010) **행동하는 예술**. 서울: IVP.
- 고승현(2017). **백년의 소리-가야금**. 한국자연미술가협회.
- [Ko, S. H. (2017) The Sound of Hundred Years: Kayageun. Korean Nature Art Association]
- 김성호(2019). 자연과의 호흡- 고승현의 자연미술, **고승현 제9회 개인전 작품집**, 금강자연미술센터.
- [Kim, S. H. (2019 Breathing with Nature - Ko Seung-hyun's Nature Art, The 9th Solo Exhibiton, Geumgang Nature Art Center]
- 김균진(2006).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Kim, G. J. (2006). Understanding of Christian Theology on the Natural Environment Crisis of Ecosystem and Theology. Yeons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1997) Crisis of Ecosystem and Theology. Christian Book Association]
- 김상협 (2011). 동양의 자연관과 회화, 미술세계 9월호. 서울: 미술세계사.
- [Kim, S. H (2001) The View of Nature and Painting in the East, Misulsegye 9,]
- 김영한 (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 [Kim, Y. H. (1992) Korean Christian Culture Theology. Sungkang Culture Press.]
- 김용님 (1991). **‘환경과 생명전’ 도록**. 서울: 그림마당 민.

[Kim, Y. L. (1991) Environmant & Life Exhibition. Guerimmadang Min.]

김용희(2010), 생태예술의 지형 그리기: 대지예술, 환경예술, 자연예술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1 no 5, 한국기초조형학회.

[Kim, U. H. (2010). Drawing Landscapes of Ecological Art: Focusing on the Relation among Land Art, Environmental Art, and Nature Art. *Journal of Basic Design Art*. vol.11 no 5. Basic Design Art Association]

마순자(1999). 대지예술과 낭만주의의 전통. **현대미술사연구** 9, 현대미술사학회.

[Ma. S. J.(1999). Land Art and Tradition of Romanticism. *Journal of Modern Art History*. vol. 9. Modern Art History Association]

박장민(2005). 마이클 하이저의 대지미술: 원시유적의 현대적 해석” **미술사학보** 제24집, 미술사학회.

[Park, J. M. Michael Heizer's Land Art; Modern Interpretation of Primitive Ruins. *Journal of Art History* 24th Edition. Journal of Art History. voll. 24.]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미술사랑.

[Seo, S. R. (2003) Art& Christ, Dreaming Hand - Korean Christian Artists. Misulsarang]

____ (2015).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

[____ (2015). Contemporary Christian Art in Korea, Yesterday and Today.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____ (2017). 구속(救贖)의 예술 한국기독교 미술인 협회 서양화 작가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기독교 미술**.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

[____ (2017). Art of Redemption. *The Quincentenary of Reformation and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송인규(1998) **일반 은총과 문화적 산물**. 서울; 부흥과개혁사.

[Song, I. G.(1998). Common Grace and Cultural Products. Revival and Reformer publisher]

오의석(2015). 대지예술(Land Art)의 지형과 세계관, **크리스천 아트포럼**.

[Oh, E. S. (2015). Landscape of Land Art and World View. *Christian art forum*]

____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18호. 통합연구학회.

[____ (1993). Modern Christian Art and World View. *Journal of Joins*. voll. 18.

-
- _____ (1995). 부활의 조형 -산업 오브제와 고철에 의한 조각 작품 제작연구, **산업미술연구** 제5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 [_____ (1995) Sculpture of Resurrection-A Study on Sculpture Works with Industrial Objects and Junks, Journal of Industrial Art. Industrial Art Institute, Daegu Hysung Catholic University.]
- 이명준, 배정환(2010) 대지예술의 자연관과 시각 매체의 문제, **한국조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년 추계, 한국조경학회.
- [Lee, M. J., Bae, J. H.(2010). Land Art's View on the Nature and Problems of Visual Media. Collection of Conference Paper,. Fall, 2010. Korean]
- 이재은 (2009). 로버트 스미슨의 '개간프로젝트' 개념에 대한 연구
- [Lee, J. E.(2009). Study on Robert Smithson's Concept of 'Clearing Project]
- 조요한(1974). **예술철학**. 서울: 법문사.
- [Cho, Y. H. (1974). Philosophy of Art, Beommunsa]
-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2006) **Pro Rege -영광스런 극장 안에서**. 서울: 예서원.
-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Pro Rege- In the Glorious Theater. Yeseowon]
-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2015).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서울: 예서원.
-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2015)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Yeseowon]

https://blog.naver.com/park_hoon/80101839557 (검색일 2020. 2. 10)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생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nse of Reality and Formative Embodiment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Focusing on 'Ecology and Environment'

오 의 석 (대구가톨릭대학교)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체현에 관한 연구로 자연과 생태 환경을 다루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연과 생태를 조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먼저 성경에 나타난 문화명령, 청지기 정신, 자연과 문화의 미래에 관해 다루었다. 그리고 현대미술 속에 나타난 대지미술과 자연 생태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프로젝트에 나타난 개척과 정복, 회복과 돌봄, 순응과 상생의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독교 미술 작가들의 작품은 생태와 환경의 문제를 예감하고 서술하거나 호소하는 단계로 출발하여 점차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조형적 노력을 보여 주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조형작업을 동역하고 함께 상생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미술에 나타난 자연 생태미술과 기독교 미술 작가들이 보여주는 자연 생태미술의 현상은 외형적으로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독교 미술 작가들에게는 정복자로서의 지향보다는 돌보는 자로서의 책무에 집중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리고 개인적인 조형의지의 표명에 머물지 않고 대중의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프로젝트와 전시에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양자 모두 생태와 환경에 나타난 현실적 위기와 문제에 주목하지만 기독교미술작가들은 창조세계에 대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으로 생태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기독교미술작가들의 생태 환경 작품은 현대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기독교적 주제와 교회의 미술로서만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주에 의해 빚어진 만물들을 다루면서 오늘의 현실을 조명하고 표현함으로써 현대미술계 안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적 미술의 소명을 수행하는 문화 변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주제어 : 기독교 미술, 현실 인식, 체현, 생태, 환경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발간호	발간일	원고접수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

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7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 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 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디자인 프로그램 인디자인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188*254mm, 여백은 왼쪽 25, 오른쪽 25, 위쪽 30, 아래쪽 30, 머리말 20, 꼬리말 20
- 2) 논문제목: 산돌고딕, 글자크기 27,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산돌고딕, 글자크기 16,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산돌고딕, 글자크기 18, 줄 간격 24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산돌명조, 크기 10.5, 줄 간격 180, 들여쓰기 3
- 5) 본문 글꼴 설정: 산돌명조 10, 들여쓰기 3, 줄 간격 180, 장평 95%, 자간 -25%
- 6) 각주: 산돌명조, 글자크기 8, 장평 95%, 자간-25%, 왼쪽여백 2, 내어쓰기 3, 줄 간격 110
- 7) 긴 인용: 산돌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25%, 줄 간격 180, 들여쓰기 3, 여백주기 오른쪽 10, 왼쪽 10
- 8) 참고문헌: 산돌고딕, 글자크기 13,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산돌명조, 글자크기 10.5, 장평 95%, 자간-25%, 여백주기: 왼쪽 6, 내어쓰기 6, 줄 간격 18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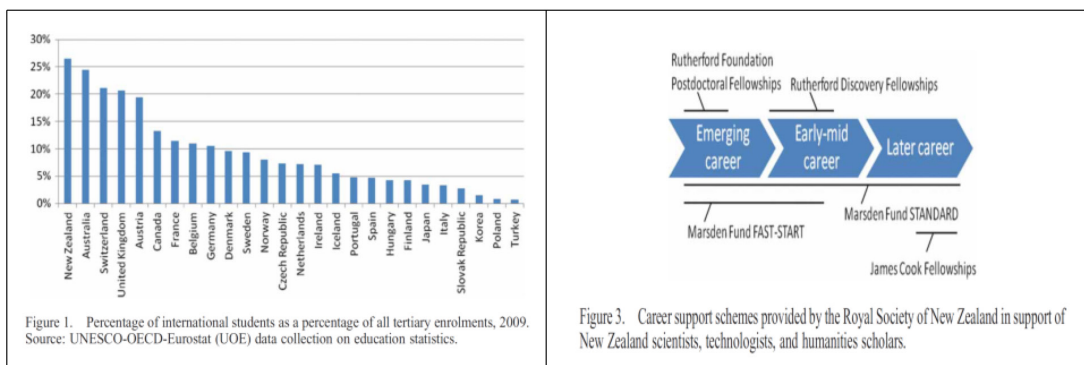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N = 152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

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1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9층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50일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 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 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 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

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편 집 위 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종훈 (성신여자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명현 (인천대학교)		신응철 (동아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우종학 (서울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박영주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황혜원 (청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손병덕 (충신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前 고려대학교 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김지원 (백석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1호 (통권 82호), 2020년 3월호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9층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Faith and Scholarship

Vol. 25 No. 1

March 2020

INDEX

Analysis on Homeschooling Research Trends in Korea

Hyun-Suk Kim / Hee-Young Jeoung

A Bible Storytelling Spatial Planning Study for Christian Education

- Focused on 'Ark Encounter' Case in US Kentucky

Tae-Ryong Kim

Art and the Gospel: A study on Vincent van Gogh's Landscape Paintings

Young Hwan Ra

**Exploring the Meaning of School Community Recognized b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Jonghun Kim

A Study on the Alternative Life of Christians in the Consumption Society

Sang-Min Lee

Psychoanalytic Exploration of Surplus Desire and a Solution at the Christian Faith Level

- Focusing on the movie "Parasites" -

SungHo Jeon / HyunSim Lee / ChangDon Lee

**A Study on the Sense of Reality and Formative Embodiment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Focusing on 'Ecology and Environment'**

Eui Seok Oh